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1140-100001-10



2025년 연구보고서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지표 및 사회조사 항목 체계 개편 연구

2026. 1.



<https://mods.go.kr/dsri>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보고서 2025-03

---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지표 및 사회조사 항목 체계 개편 연구

심수진·우한수·이나리



Statistics Korea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 발간사

“데이터의 가치는 분석과 활용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혁신과 효율성 향상 등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급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데이터는 더 이상 단순한 숫자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나침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연구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AI 기반의 공공 AX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연구에 지속적으로 매진해 왔습니다.

2025년 연구보고서에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첨단 기술을 국가통계에 접목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 연구 성과를 담았습니다.

첫째, 인공지능(AI) 기반 국가통계 기술혁신을 선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을 현장조사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조사자료의 내용검토 및 자동분류, 질의응답에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였으며, 이는 통계 생산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생성형 AI를 활용한 나우캐스트 지표 서비스 제공 방안 연구는 통계서비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점차 열악해지고 있는 조사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통계방법론 연구와 국가통계 품질제고를 위한 연구를 강화하였습니다.

확률표본과 자원자표본을 통합한 추정 방안 연구는 응답자 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비확률표본의 병행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데이터 과학기술을 활용한 자료수집 개선 연구와 데이터 통합방법 연구는 다양한 데이터의 연계·통합 방법을 보다 체계화하였습니다.

셋째, 사회적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에 집중하였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고립·은둔 청년’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문항 개발 연구를 비롯하여, 돌봄 분야 국가통계 활용 방안과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통계·지표 분석 연구는 데이터가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소득이동통계 심층 분석 연구와 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중·고령기 비교 연구는 관련 정책의 실효성과 활용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표 작성 연구와 퇴직연금 적립금 배분 방법 연구는 국민의 체감 경기를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합리적인 경제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새롭게 출발한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은 앞으로도 최신 기술과 사람을 잇는 데이터 연구를 통해 국가통계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본 연구보고서가 통계 생산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각계각층의 의사결정자에게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1월

국가데이터연구원장

가진

#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2
제2장 선행연구 .....	5
제1절 지역 간 비교 지표 .....	5
제2절 17개 시도의 사회지표 작성 현황 .....	10
제3절 전북의 현황 분석 .....	15
제3장 전북 사회지표 영역별 개편 결과 .....	17
제1절 전북의 사회지표 작성 현황 .....	17
제2절 전북 사회지표 개편 방향 및 프레임워크 .....	21
제3절 영역별 개편 결과 .....	24
제4장 사회조사 작성체계 개편 .....	78
제1절 사회조사 항목 변경 사항 .....	78
제1절 지역사회조사 설계 및 운영방안 .....	102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105
제1절 지역사회지표 활용 방안 .....	105
제2절 요약 및 시사점 .....	109
참고문헌 .....	111
부록 .....	112
Abstract .....	160

## 요 약

지역사회지표는 지역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체계로 과거와 현재의 지역 모습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전북의 사회지표와 사회조사를 사회변화에 맞춰 개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전북 사회지표는 2007년 작성 이후 지표개편 없이 동일한 체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전북사회조사의 경우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과의 영역 불일치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지표의 최근 개편 사례와 작성현황, 최근의 사회변화 이슈,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의 반영을 중점으로 하여 전북 사회지표와 사회조사 항목과 조사체계를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전체 프레임워크는 12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기존 영역 중 복지 영역이 삭제되고, 사회참여 영역은 사회통합으로 변경되어 일부 복지 영역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최근 사회지표의 변화 추세에 맞춰 주관적 웰빙 영역을 신설하였다. 이외에도 최근의 사회지표 작성변화에 맞춰 영역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각 영역별 개별 지표의 중요도 조사결과와 전문가 자문결과, 타 시도의 지역사회지표 개편 사례 등을 토대로 하여 각 영역별 개별 지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각 영역별 개편 결과를 토대로 전북사회조사에 대한 신규항목(외국인에 대한 태도, 외로움 경험률,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 여행경험률, 스마트기기 활용과 역량, 부채부담도, 기후변화 불안 등)이 추가되었다. 사회변화에 따라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항목(장례방법, 교통수단 보유, 환경문제 해결방안, 자전거 이용 등)이 삭제되었다. 또한 사회조사의 조사체계를 영역별 2년 주기에서 모든 영역을 매년 조사하는 변경된 방식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지역사회지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가독성 있는 보고서와 통계표 구성 및 작성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개별 지표에 대한 메타정보의 추가를 제안하였다.

주요 용어 : 지역사회지표, 삶의 질, 지표체계, 지역사회조사

# 제 1 장

## 서 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역사회지표는 지역의 사회 상태를 종합적이고 집약적으로 나타내 우리 지역의 전반적인 현황을 제시하고 이를 모니터링하고자 만들어진 지표이다. 지역사회지표는 지역의 과거와 현재 모습과 지역 내 삶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로 현재 모든 17개 시도에서 작성되고 있다. 정책평가나 정책 모니터링 지표와는 달리 지역사회지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여 지표 구성이 이루어지지만, 지역사회지표뿐 아니라 전체 사회지표, 삶의 질 지표 등 모든 지표체계는 초기 작성한 그대로 변화 없이 유지할 수는 없다. 지표체계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가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10년 전, 20년 전의 사회의 모습과 사람들의 가치관이 지금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 추세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지표들이 있을 수 있고, 사회변화에 따라 나타난 새로운 현상과 트렌드를 포착할 필요가 있으며, 새롭게 개발된 통계자료를 반영할 필요도 있다.

전북 사회지표는 2007년 처음 작성된 이후 일부 지표에서의 변화는 있어 왔으나, 전체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첫 지표체계 구축 이후 18년이 흐른 만큼 사회변화와 최근 사회지표 작성 추세에 맞춰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전북은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시도 모든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듯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 중점적인 관심 사항이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새로운 지표체계 구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의 전북의 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최근의 지역사회지표 작성과 관련된 주요한 변화는 2020년부터 시작된 지역사회지표 공통항목 작성이다. 지역 간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부터 17개 시도의 지역사회조사에 지역공통항목을 포함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공통항목에 해당되는 지표와 기존지표와의 중복 여부 검토를 통해 공통항목이 중복 조사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전북 사회지표체계 안에서 반영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조사와 지역사회지표는 지역사회의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지역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통계이다. 최근 사회변화를 반영한 전북 사회지표의 개편을 통해 작성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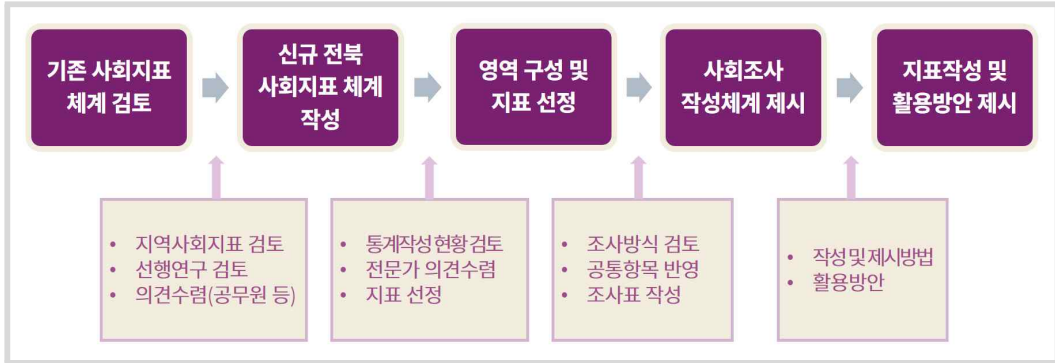
본 연구는 전북 사회지표와 사회조사 항목 체계의 개편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에서 다뤄질 내용은 기존의 전북 사회지표 프레임워크와 사회조사 작성 항목, 개별 지표들의 작성 체계를 검토하고 이를 사회변화와 최근 사회지표 작성 추세에 맞춰 개편하는 것이다.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프레임워크에 따라 각 영역별 삭제 지표와 신규지표 등을 검토하고, 사회조사에 반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지역사회지표를 어떻게 작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통해 지역사회지표 작성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연구의 전체적인 추진방법은 <그림 1-1>과 같다. 우선 기존의 전북 사회지표 체계 전반을 검토하고 기존 사례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전북 사회지표 개편 방향을 도출한다. 기존 사례 중에서는 타 시도의 지역사회지표 작성 현황과 개편사례, 선행연구 사례를 검토하여 전문가 자문의견을 통해 전북 사회지표 체계의 개편안을 도출한다.

다음으로는 선행연구들의 검토를 통해 도출한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지표 중요도 의견수렴과 전북도청 사회지표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다.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기존 지표의 삭제 및 변경지표를 도출하고, 이와 함께 타 사회지표 작성 사례와 전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신규지표를 검토한다. 특히 전북 지역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전문가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문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지표의 경우 정확한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마다 개별 통계의 중요도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능하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문가 대상으로 지표에 대한 중요도 조사결과를 반영하고자 한다. 전문가는 전북 지역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 내 전문가와 지역사회지표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전북의 지역특성과 최근 지역사회 이슈와 통계의 타당성을 모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사회지표 개편 과정에서 도출된 개별 지표에 대한 변경사항과 지역사회조사 공통 항목의 조사항목을 반영하여 전북사회조사의 영역별 작성주기와 조사항목에 대한 개편안을 도출한다. 이와 함께 기존 조사항목과 영역별 2년 주기로 작성되고 있는 사회조사의 설계와 운영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지표와 사회조사의

작성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지표와 사회조사의 활용 사례를 통해 전북의 사회지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림 1-4> 연구 추진 절차

지역사회지표가 전체 국가단위에서 작성되는 사회지표와 다른 점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별로 각기 다른 특성이 있고, 지역정책은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사회지표도 이를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역사회지표는 전반적인 사회지표의 성격을 가지는 공통지표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특성지표로 구성된다. 공통지표만으로 구성되면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작성되는 ‘한국의 사회지표’와 차이가 없고, 특성지표로만 구성되면 사회지표보다는 정책성과지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통지표와 특성지표 간에 적절한 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지역사회지표 체계 안에 공통지표와 특성지표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그림 1-2>).



<그림 1-5> 공통지표 및 특성지표 작성 방법

지표를 개발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하향식과 상향식 방식이 모두 검토되어야 적절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지표 작성에 필요한 공통지표는 지표의 비교 가능성과

장기적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선행연구나 이론적인 배경, 타 지역의 작성 사례 등을 검토하는 하향식 방식이 주로 활용될 수 있다. 반면 특성지표의 경우는 지역의 특성이나 이슈, 정책 현안, 지역정책에서의 활용성 등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배경이나 타 지역 사례보다는 정책분석과 함께 지역 내 공무원이나 시민들의 관심사나 의견을 반영하는 상향식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특성지표는 지역의 정책분석과 함께 전북도 내 관련 부처와 전북도민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서 개발되는 것으로 이론적인 틀보다는 도정의 주요 정책방향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책분석과 함께 공무원이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지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어 긴 연구기간이 필요하다. 전북 사회지표는 작성 이후 한 번도 개편을 하지 않았고, 본 연구과제의 연구수행 기간(6개월)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지표 작성 체계를 고려하여 지역특성지표보다는 공통지표에 초점을 맞춰서 개편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전북 사회지표에서 시급하게 검토가 필요한 전북사회조사의 항목과 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1-2>에서 제시된 지역의 정책분석과 공무원과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특성지표를 개발하는 과정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 제 2 장

### 선행연구

#### 제1절 지역 간 비교 지표

지역을 중심으로 작성되는 지역사회지표는 지역의 삶의 질 측정을 목적으로 하거나, 지역 내 정책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지표체계로 나누어질 수 있다. 2016년에 작성된 지역사회지표 작성 매뉴얼에서 해외 지역사회지표의 대표사례로 잭슨빌과 시애틀, 오리건주의 지역사회지표를 검토하였다(통계청<sup>1)</sup>, 2016). 이 지표들은 각각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 성과평가 지표의 대표 사례로 검토되었으며, 기존에 정리된 내용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추가로 제시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해외의 지역사회지표는 1980년대부터 작성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지표는 2000년대 이후부터 사회지표 작성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최근에는 지역행복 측정을 목적으로 지표가 일부 시군구 단위를 중심으로 작성되는 사례도 있다.<sup>2)</sup> 이 장에서는 기존에 언급되었던 해외사례는 제외하고 1절에서는 선행연구로 지역 간 비교를 목적으로 작성되는 지표<sup>3)</sup>를 검토했으며, 2절에서는 한국의 사회지표 및 17개 시도의 지역사회지표 작성 사례와 개편 내용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 1. OECD 지역웰빙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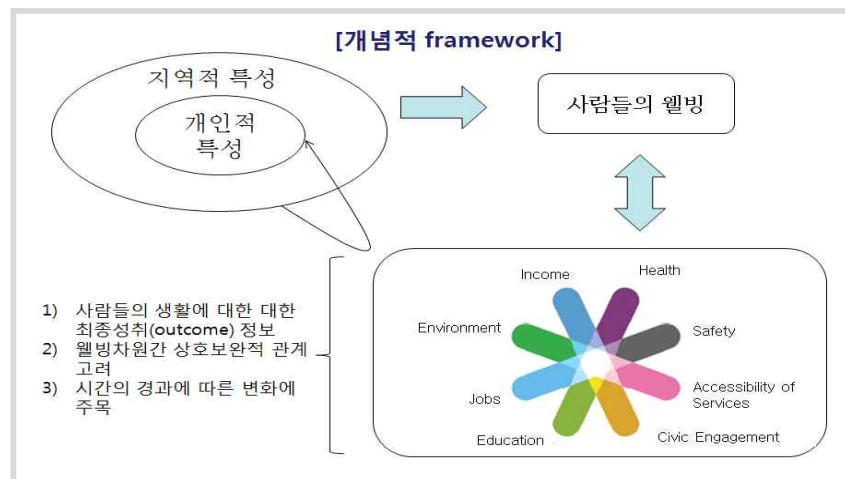
지역사회지표는 타 지역 간의 비교보다는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슷한 지표를 활용함에도 지역 내 특성에 따라 지표가 개발되어 비교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OECD에서는 국가 간 웰빙을 비교하기 위한 ‘더 나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역 단위에서의 웰빙을 측정하는 지역웰빙지표(Regional Well-Being Index)도 작성하고 있다.

1) 현 국가데이터처

2) 국민총행복전환포럼에서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행복 측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 지역 간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지표들 중 지역발전지수(산업연구원), 지역발전지수(농촌경제연구원), 지역낙후도지수(한국개발연구원) 등도 있으나, 경제 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이 연구에서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다.

지역웰빙지표는 지역이라는 공간적 범위에서 웰빙을 측정하고 지역 간에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어 국가 간 비교를 위한 지표와는 차이를 보인다. 지역 및 도시 수준에서 사람들의 웰빙은 ‘개인적인 특성과 지역 기반 특성이 결합하여 결정된다’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유성렬 외, 2019). OECD의 국가 간 웰빙 측정 지표와 영역의 수는 11개 영역으로 동일하나 지역웰빙지표는 ‘일과 삶의 균형’ 대신 ‘서비스 접근성’ 영역이 별도로 추가되어 지역웰빙지표의 장소 기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출처: 유성렬 외(2019). 환경변화에 대응한 제주사회지표 개편. p.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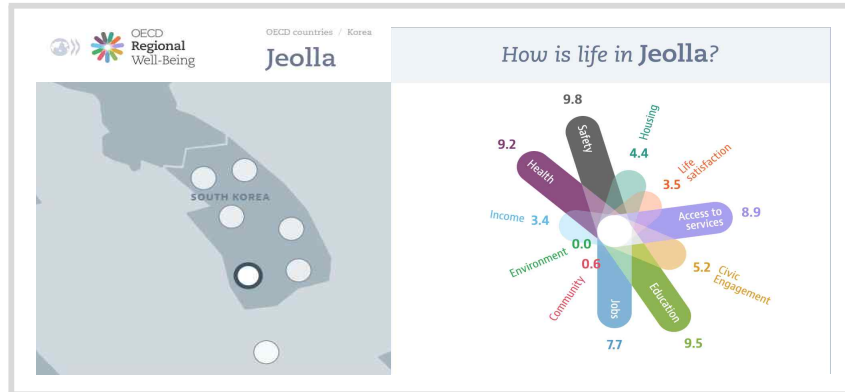
<그림 2-1> OECD 지역웰빙 측정의 개념적 프레임워크

OECD의 지역웰빙지표에서는 전체 11개 영역에서 13개 지표(4)로만 구성되어 있다. OECD 국가들 안에서 하위 지역별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하므로 검토할 수 있는 지표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7개 권역으로 지역을 나눠서 지표를 비교하고 있으며, <그림 2-2>는 전라권 지역의 지역 웰빙으로 OECD 대상 국가의 다른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전라권 지역의 웰빙 수준을 보여준다. 서비스 접근성이나 안전, 건강, 직업, 교육 영역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순위가 높은 영역임을 보여준다.

OECD의 지역 웰빙에서 포함하고 있는 지표는 단순해서 지역의 세분화된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한 우리 지역의 특성을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비교하고자 하는 지역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지역 간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지표는 지역의 순위를 비교하는 측면이 강조되어 지역에서는 선호하지 않지만, 타 지역과의 상대적인 차이를 통해 우리 지역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지역 내 지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측면에

4) 소득(가계가처분소득), 일자리(고용률, 실업률), 주택(1인당 방수), 건강(기대수명, 사망률), 교육(교육이수율), 환경(공기오염 정도), 안전(살인발생률), 시민참여(투표율), 서비스접근성(인터넷 광대역 접속비율), 공동체(사회적 관계망), 삶에 대한 만족(삶에 대한 만족도)

서 지역을 살펴볼 수 있다. 타 지역과의 영역별 비교를 통해 우리 지역의 강점과 약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출처: <https://www.oecdregionalwellbeing.org/KR04.html>

<그림 2-2> OECD 지역웰빙지표 예시(전라권)

## 2.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

국가데이터처에서는 지역에서의 지역사회조사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2013년에 발간하였고, 2016년에는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지역사회지표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성되고 활용되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작성되어 실제 지자체에서 지역사회지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지역 간 비교 가능성과 장기적인 시계열 비교를 위해 행정자료와 사회조사 자료를 포함하는 99개의 권고지표를 지역에서 작성해야 할 공통지표로 제시하였다(통계청, 2016). 그러나 가이드라인 작성 이후 약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고, 2020년부터는 주관지표에 대한 지역 간 비교 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이 개발되어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편에서는 2016년에 발간된 매뉴얼보다는 2020년부터 작성되고 있는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을 지표체계에 반영하고자 한다.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은 지역(시군구) 간 비교 가능한 주관지표 작성을 목적으로 당시 행정안전부와 균형발전위원회(현재 지방시대위원회), 국가데이터처의 공동작업으로 개발되었고, 17개 시도의 협조로 2020년부터 17개 시도의 지역사회조사에 반영하여 조사되고 있다. 공통항목의 작성 배경에는, 국가데이터처는 지역사회지표의 표준화를 위해서, 행정안전부는 지역 삶의 질 측정의 필요성으로, 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지표 중 주관지표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지역별 기존 조사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는 조사항목 수에 제한이 있어 영역별 2년 주기로 공통항목들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모두 21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2개 항목

은 매년 조사되는 항목이고, 1개 항목은 지역별로 선택하여 적용하는 항목(기관신뢰)이다(<표 2-1>). 매년 조사되는 2개 항목을 포함하게 되면 홀수연도에는 12개 항목, 짝수연도에는 10개 항목이 포함된다. 공통항목의 영역별 작성주기는 지역사회조사가 일부 시도 지역(서울, 경남, 충남)을 제외하고는 영역별 2년 주기로 작성되고 있으나 영역별 주기는 상이하어 모든 지역의 영역 작성주기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시도의 지역사회조사는 일괄적으로 실시되는 조사가 아니라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조사로 조사시기와 조사수행 과정, 조사대상(만 13세 이상 또는 만 15세 이상)에서 약간의 차이는 존재한다. 특히 사회조사에 포함된 주관적 인식 관련 항목은 조사시점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지역별로 조사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엄밀한 비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2021년과 2022년 지역별로 작성된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조사항목의 배치가 서로 다양하고, 척도의 제시순서<sup>5)</sup>에서 일부 차이는 있다(남상민 외, 2024).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람들의 주관적인 만족도나 인식과 태도 등을 시군구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시계열로 비교 가능한 통계자료로는 지역사회조사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1> 지역사회지표 공통항목(총 21개 항목)

영역	홀수년(12개)	작성주기	
		홀수년	짝수년
삶의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	○	○
건강	의료서비스 만족도		○
사회통합	일반인에 대한 신뢰		○
	기관 신뢰(지역선택 항목)		○
	사회적 지원		○
	공동체 의식		○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
소득소비자산	가구 월평균 소득	○	○
	소득 만족도	○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정도	○	
주거와교통	주거환경 만족도	○	
	교통수단 만족도	○	
	지역거주기간 및 정주의사	○	
노동	일자리 충분도	○	
	일자리 만족도	○	
교육	교육환경 만족도	○	
안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
환경	환경 체감도		○
문화와 여가	여가활동 만족도	○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	○	

5) 질문에 대한 보기선택 항목의 순서가 매우 불만족 ~ 매우 만족 순으로 제시되는 지역과 매우 만족 ~ 매우 불만족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

### 3. 지역균형발전지표

지역균형발전지표는 지역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균형발전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2018년에 개발된 지표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지표의 작성 목적은 지역의 객관적 주관적 종합진단을 통해 지역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고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의 기초자료 및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지방시대위원회, 2025). 균형발전지표는 핵심지표와 부문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72 개의 부문지표는 44개의 객관지표와 28개의 주관지표로 구성된다. 핵심지표는 지역의 발전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 지표로써 인구증감률(최근 5년 평균)과 재정자립도(최근 3년 평균) 2개 지표로, 재정사업 지원대상 선정 및 자원배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표 2-2> 균형발전지표 객관지표의 부문별 지표

영역	부문	객관지표
사회	인구(6개)	인구증감률, 합계출산율, 조사망률, 인구총조사 외국인수, 노령화 지수, 청년층 순이동률
	교육(4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서비스권역 내 영유아인구 비율, 초등학교 서비스권역 내 학령인구 비율,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 인구 만명당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수
	주거·교통(2개)	노후주택비율, 대중교통수단분담률
	문화·여가(3개)	도서관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공공체육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지자체 예산 중 문화예산 비율
	안전(5개)	소방서 접근성, 경찰서 접근성,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주민수, 119 안전센터 1개당 담당주민수, 지진옥외대피소 접근성
	생활·환경(6개)	하수도보급률, 생활권공원 서비스 권역 내 인구비율, 행정구역 면적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생활계폐기물 재활용 비율, 행정구역 면적 대비 공원면적비,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보건·복지(5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지자체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중,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응급의료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병원서비스 권역 내 인구비율
경제	산업·일자리(7개)	최근 3개년 사업체수 증감률, 최근 3개년 종사자수 증감률, 경제활동참가율, 연구개발인력당 연구개발비, 지식기반제조업입지개수 3개년 평균, 지식기반서비스업 입지개수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창업기업수 증감률
	생산·분배(3개)	지역 내 총생산, 무역거래량, 1인당 민간소비지출액
	물가·재정(3개)	소비자물가상승률, 지가변동률, 재정자립도

출처: 지방시대위원회(2025)

객관지표의 영역별 지표는 <표 2-2>와 같으며, 주관지표는 앞서 언급되었던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을 활용하여 작성된다. 지표의 작성단위는 시군구 단위이나 모든 객관지표가 시군구 단위까지 산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균형발전지표의 핵심지표는 관련 정책사업에서 예산 배분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만 부문지표는 현재 온라인<sup>6)</sup>으로 서비스 되고, 분석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균형발전 측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제2절 17개 시도의 사회지표 작성 현황

### 1. 한국의 사회지표 개편 방향

‘한국의 사회지표’는 국가데이터처에서 1979년부터 매년 작성되는 지표체계이다. 초기 UN 사회통계 작성에 대한 권고에 따라 1978년에 지표체계를 개발하였으며, 지표체계에 포함될 주관지표를 작성하기 위해 사회조사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매년 작성해오고 있다.<sup>7)</sup> 한국의 사회지표는 초기 지표체계 개발 이후 지속적으로 8~9년 주기로 지표를 개편하여 왔으며, 마지막 개편은 2019년에 이루어진 5차 개편이다. 이러한 개편은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변화와 주요 이슈를 사회지표 체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며,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신규로 개발되는 다양한 통계들을 지표체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그림 2-3>은 한국의 사회지표의 5번의 개편과정에서 나타난 영역의 변경 과정을 보여준다. 80~90년대에는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화로 인한 사회변화가 있었던 만큼 영역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2차 개편 시 전체 영역 구성에서의 변화가 있었고, 이후 이러한 큰 틀에서의 변화는 4차 개편 때 다시 있었다. 시기별로 영역의 변화 과정을 보면 당시의 주요 이슈나 관심을 파악할 수 있다.

가장 최근의 개편인 5차 개편에서는 사회의 주요 이슈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인구감소, 다문화 등 인구 관련 이슈가 주로 검토되었으며, ‘주관적 웰빙’을 독립된 주제 영역으로 세분화하는 개편이 있었다. 또한 각 영역별 개별 지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불평등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의 반영과 영역 명칭을 해당 영역에서 다루는 내

6) 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나비스: [www.nabis.go.kr](http://www.nabis.go.kr))

7) 과거에는 사회조사가 한국의 사회지표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로 개발되어 모든 항목이 사회지표에 포함되었으나, 기존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는 ‘한국의 사회지표’보다 신규통계로 공표되는 ‘사회조사’에 대한 수요와 활동도가 더 크다. 과거에는 사회조사 결과가 대부분 사회지표에 수록되었지만, 사회조사도 매년 항목 검토 과정을 거쳐 다양한 수요에 의해 항목을 개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 사회조사에는 포함되나 한국의 사회지표에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도 있다.

용과 일치시켜서 사회지표의 성격에 적절하도록 변경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이루어졌다. 5차 개편 이후 변경된 내용 중 하나는 사회지표 보고서의 통계표 작성방식의 변화이다(<표 2-3>). 다양한 지표를 다루고 있는 만큼 관련 지식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개별 지표에 대한 내용이 새로울 수 있다. 개별 지표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표 작성양식에서 지표정의와 출처를 같이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다.

'78년 체계개발	'87년 1차 개편	'95년 2차 개편	'04년 3차 개편	'12년 4차 개편	'19년 5차 개편
인구 26(17)	인구 46(17)	인구 44(31) <b>가족</b> 43(20)	인구 48(34) 가구과 가족 50(28)	인구 12(12) 가구과 가족 26(26)	인구 13(13) 가구, 가족 31(31)
소득소비 11(11)	소득소비 30(15)	소득과 소비 41(33)	소득과 소비 51(46)	소득과 소비 24(21)	<b>소득소비자산</b> 23(23)
고용인력 67(26)	고용노사 103(43)	노동 62(49)	노동 35(35)	노동 21(21)	노동 27(24)
교육 55(21)	교육 64(28)	교육 43(43)	교육 44(39)	교육 27(25)	<b>교육, 훈련</b> 28(28)
보건 59(22)	보건 48(33)	보건 50(33)	보건 67(45)	<b>건강</b> 16(15)	건강 26(26)
주택, 환경 33(14)	주택, 환경 54(42)	주거와 교통 51(32) <b>정보와 통신</b> 28(16)	주거와 교통 57(45) 정보와 통신 28(22)	주거와 교통 34(33)	<b>주거</b> 22(22)
	<b>문화, 여가</b> 31(17)	문화와 여가 34(38)	문화와 여가 44(39)	문화와 여가 25(24)	<b>여가</b> 21(21)
공안 34(7)	공안 51(26)	안전 55(40)	안전 66(40)	안전 32(29)	<b>범죄, 안전</b> 24(24)
사회 85(13)	사회 41(22)	<b>정치와 사회참여</b> 28(13)	정치와 사회참여 33(18)	<b>사회통합</b> 35(18)	사회통합 26(25)
전체 350(128)	전체 468(243)	전체 553(401)	전체 640(486)	전체 284(255)	전체 269(268)
8개 영역	9개 영역	13개 영역	13개 영역	11개 영역	12개 영역

<그림 2-3> 한국의 사회지표 개편 과정

<표 2-3>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통계표 작성방식 변화

개별 지표 작성양식																	
2018년 보고서	<p>1-6 연령별 출산율과 합계출산율 Age-specific fertility rate and total fertility rate</p> <p>단위: 해당연령 여자인구 천명당 명, 가입 여성 1명당 명 In births per 1,000 women, births per woman</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연도 Year</th> <th colspan="7">연령별 출산율 ASFR</th> <th rowspan="2">합계출산율 TFR</th> </tr> <tr> <th>15 ~ 19세 Years</th> <th>20 ~ 24세 Years</th> <th>25 ~ 29세 Years</th> <th>30 ~ 34세 Years</th> <th>35 ~ 39세 Years</th> <th>40 ~ 44세 Years</th> <th>45 ~ 49세 Years</th> </tr> </thead> </table>	연도 Year	연령별 출산율 ASFR							합계출산율 TFR	15 ~ 19세 Years	20 ~ 24세 Years	25 ~ 29세 Years	30 ~ 34세 Years	35 ~ 39세 Years	40 ~ 44세 Years	45 ~ 49세 Years
연도 Year	연령별 출산율 ASFR							합계출산율 TFR									
	15 ~ 19세 Years	20 ~ 24세 Years	25 ~ 29세 Years	30 ~ 34세 Years	35 ~ 39세 Years	40 ~ 44세 Years	45 ~ 49세 Years										
2019년 보고서	<p>1-8 합계출산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표 정의 가입기(15-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의 수.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는 데 사용됨</li> <li>자료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li> </ul> <p>단위: 명/가입 여성 1명, 명/해당 연령 여성 1,000명</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연도</th> <th rowspan="2">합계출산율<sup>1)</sup></th> <th colspan="6">연령별 출산율</th> </tr> <tr> <th>15-19세</th> <th>20-24세</th> <th>25-29세</th> <th>30-34세</th> <th>35-39세</th> <th>40-44세</th> <th>45-49세</th> </tr> </thead> </table>	연도	합계출산율 <sup>1)</sup>	연령별 출산율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연도	합계출산율 <sup>1)</sup>			연령별 출산율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 2. 17개 시도의 사회지표 작성 현황

현재 17개 시도는 모든 지역에서 사회지표나 사회조사를 작성하고 있다(<표 2-4>). 17개 시도의 사회지표 작성현황을 비교해 본 결과 대부분 'OO 사회지표'로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서울시의 경우 서울서베이와 서울시 도시정책지표라는 명칭을 사

용하고 있다. 전북을 포함한 울산, 경기, 충북, 경남 등 5개 지역에서는 ‘OO 사회조사’로 작성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전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대부분 다양한 출처의 통계 자료를 포함하는 사회지표가 아닌 사회조사의 결과보고서이다. 즉 4개 지역에서는 사회지표는 작성하지 않고 사회조사 결과보고서만 작성하고 있다.<sup>8)</sup> 경기의 경우 사회조사 보고서이나 ‘주요 지표’ 영역에서 인구 관련 행정통계를 일부 포함한다.

<표 2-4> 17개 시도 사회지표 작성 체계

	보고서명	시작 연도	행정통계 포함	작성주기		지표수	
				사회지표	사회조사	전체	사회조사
서울	서울서베이 보고서 서울시 도시정책지표	2003	O	1년	1년	122	36
부산	부산의 사회지표	1996	O	1년	2년	170	86
인천	인천사회지표	1998	O	1년	2년	171	61
대구	대구의 사회지표	2011	O	2년	2년	290	136
광주	광주 사회지표	1999	O	2년	2년		64
대전	대전의 사회지표	2011	O	1년	2년	185	68
울산	울산광역시 사회조사 결과보고서	1998	X	-	2년	214	214
세종	세종 사회지표	2014	O	1년	2년	173	74
경기	경기도 사회조사	1998	X		2년	85	73
강원	강원의 사회지표	2007	O	1년	2년	132	54
충북	충청북도 사회조사	2009	X	-	2년	78	78
충남	충남사회지표 보고서	2012	O	1년	1년	182	91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보고서	2007	O	2년	2년	158	87
전남	전남의 사회지표	2012	O	1년	2년	82	23
경북	경상북도 사회지표	1997	O	1년	1년	130	40
경남	경상남도 사회조사 결과	1992	X	-	2년	80	80
제주	제주의 사회지표	2012	O	2년	2년	198	77

지역의 사회지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영역을 비교해 보면 <표 2-5>와 같다. 맨 위에 제시된 것이 한국의 사회지표 해당 영역이고, 아래쪽에는 17개 시도에서 작성하는 영역이 제시되어 있다.

8) 국가데이터처의 경우 사회조사와 한국의 사회지표 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한다. 사회조사 보고서는 조사가 진행된 당해 연도 11월경 사회조사 결과만 포함된 사회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고, 한국의 사회지표는 사회조사 결과와 다른 통계자료를 추가하여 익년 3월경에 발간된다.

<표 2-5> 한국의 사회지표와 시도 지역사회지표 영역 비교

	영역												주관적 웰빙 기타
	인구	가족	건강	교육	노동	소득 소비	여가	주거/ 교통	환경	안전	복지	사회 통합	
국가데이터처	인구	가구 가족	건강	교육 훈련	노동	소득 소비 자산	여가	주거 교통	생활 환경	범죄 안전		사회 통합	주관적 웰빙
서울	인구와 가구		건강과 보건	교육과 돌봄	경제와 노동		문화 여가	도시생 활/주거 교통	환경	안전과 재난		가치와 의식	-
부산	인구	가구 가족	보건	교육	노동	소득 ·소비	문화 여가	주거 ·교통	환경	안전		사회 통합	-
인천	인구	가구와 가족	건강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문화와 여가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사회 통합	-
대구	인구	가족 ·가구	건강	교육 ·훈련	노동	소득	여가	주거 ·교통	생활 환경	안전		사회 통합	주관적 웰빙
광주	인구	가족	보건과 건강	교육	노동	소득	문화와 여가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사회참여 통합	삶에대한 만족 정보통신 청년
대전	인구	가족	보건	교육	노동	소득 ·소비	문화 여가	주거 ·교통	환경	안전	사회 복지	사회 ·통합	과학 기술
울산	인구 유출	가구 ·가족	보건 ·위생	교육	노동 ·고용	소득 ·소비	문화 ·여가	주거 ·교통	환경	안전	사회 복지	사회참여 ·통합	삶의질 베이비 부머
세종	인구	가구와 가족	보건	교육	노동	소득 ·소비	문화와 여가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사회 복지	정부와 사회참여	행복도시
경기	주요 지표	가족과 가구	보건	교육	일자리와 노동	소득과 소비	문화와 여가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사회통합 공동체	
강원	인구	가족 ·가구	건강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주관적 웰빙과 여가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사회통합	산업·관광
충북		가구 ·가족	건강	교육	노동	소득 ·소비	문화 여가	주거 ·교통	환경	안전	복지	사회통합	
충남	인구	가구와 가족	건강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여가와 문화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사회통합	도정특성
전북	인구	가구 ·가족	보건 ·의료	교육	고용 ·노사	소득 ·소비	여가 ·문화	주거 ·교통	환경	안전	복지	사회참여	특성항목
전남	인구	가구 ·가족	보건 ·의료	교육	노동	소득 ·소비	여가 ·문화	주거 ·교통	환경	안전	사회 ·복지	공동체와 사회참여	-
경북	인구	가구와 가족	건강	교육	노동	소득/ 소비 및 경제	여가와 문화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사회통합	저출생 지역산업
경남		가족과 가구	보건	교육	일자리 노동	소득과 소비	문화와 여가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사회	-
제주	인구	가구 ·가족	건강	교육	노동	소득, 소비, 자산	문화와 여가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사회통합 과 복지	삶에대한 만족도 지역특성

주: 음영으로 표시된 지역은 표시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들의 작성주기를 보여주며, 음영표시가 없는 지역은 매년 모든 영역을 포함하여 보고서를 발간하는 지역이다.

서울시 지표를 제외하면 영역 구성이나 명칭에 있어 전반적으로 유사한 형태로 작성되어 있다. 인구 영역을 포함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사회지표가 아닌 사회조사만 작성하는 지역이고, 복지, 사회통합, 주관적 웰빙, 지역특성 영역을 제외하면 모두 동일한 영역구성으로 되어 있다. 사회통합 영역의 경우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포함하고 있으나, 영역 명칭은 사회참여, 사회통합, 공동체 등 다른 영역에 비해서 좀 더 다양하다. 복지 또는 사회복지를 별도의 영역으로 포함하는 지역은 6개 지역이고, 주관적 웰빙은 5개 지역에서 별도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다.

현재 사회조사만 작성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지역별로 작성하고 있는 사회지표 수를 비교해 보면, 전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30~180개 정도로 구성되며, 대구 지역의 경우 200개 이상으로 지표수가 많다. 또한 지역별로 작성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조사의 경우 서울, 충남, 경북에서는 모든 영역을 매년 조사하는 반면, 그 외 지역은 국가데이터처의 사회조사와 동일하게 영역을 2년 주기로 나누어 조사가 진행된다. 서울, 충남, 경북을 제외하고 사회조사에서 영역을 2년 주기로 나누어 조사하는 지역의 경우에도 부산, 인천, 대전, 세종, 전남은 사회조사의 영역 주기와는 별개로 모든 영역에 대해서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의 경우에는 사회조사의 영역주기에 맞춰 사회지표 보고서도 영역을 나누어 2년 주기로 작성한다.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역에서 별도의 연구를 통해 지표체계의 개편이 있었던 지역은 부산, 경기, 경북, 제주, 대구, 강원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지표 개편이 이루어졌을 수 있지만, 현재 파악하고 있는 지역은 <표 2-6>에서 제시된 6개 지역이다. 지역마다 사회지표 작성방식(직접 작성, 일부 용역, 전체 용역 등)이나 업무 관여도에 차이가 있어 개편 여부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표 2-6> 타시도 사회지표 개편 사례

시도	최초작성	개편연도	수행기관
부산	1996	201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구	2011	2021	지방행정발전연구원
경기	1998	2015	고려대 산학협력단
강원	2007	2022	통계개발원 <sup>9)</sup>
경북	1997	2009(1차)	대구사회연구소
		2017(2차)	통계개발원
		2023(3차)	한국삶의질학회
제주	2012	2019	한국삶의질학회

출처: 유성렬 외, 2023, 경북 사회지표 개편 연구용역 보고서

9) 현 국가데이터연구원

지역사회지표 개편에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로 사회·경제적 변화 및 도정 정책의 반영, 신규 관심영역 및 지표의 추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2020년 이후 개편된 지표체계의 경우는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을 지표체계 안에 포함하고 있다(유성렬 외, 2023). 강원과 대구, 제주 사회지표 개편 결과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한국의 사회지표 개편 결과를 반영하여 영역명칭을 변경하고 지표 수를 전반적으로 축소하였다. 지역의 산업을 보여줄 수 있는 ‘지역산업’ 영역을 신설하고, 강원과 대구의 경우 ‘주관적 웰빙’ 영역을 신규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대구와 제주에서는 개편 과정에서 ‘정보와 통신’ 영역이 삭제되었으며, 강원과 경북 사회지표 개편보고서에서는 많은 수의 지표를 좀 더 핵심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영역별로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 제3절 전북의 현황 분석

전북은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를 비전으로 하여 대한민국 생명경제 중심지를 넘어 세계 생명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5대 핵심 산업과 3대 기반을 구체화하고 있다(<그림 2-4>). 또한 민선8기 공약사업에서는 ① 전북 도민경제 부흥, ② 농생명 산업수도, ③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 ④ 새만금 도약·균형발전, ⑤ 도민행복·희망교육의 5대 목표와 20대 핵심전략을 수립하였다(전북특별자치도,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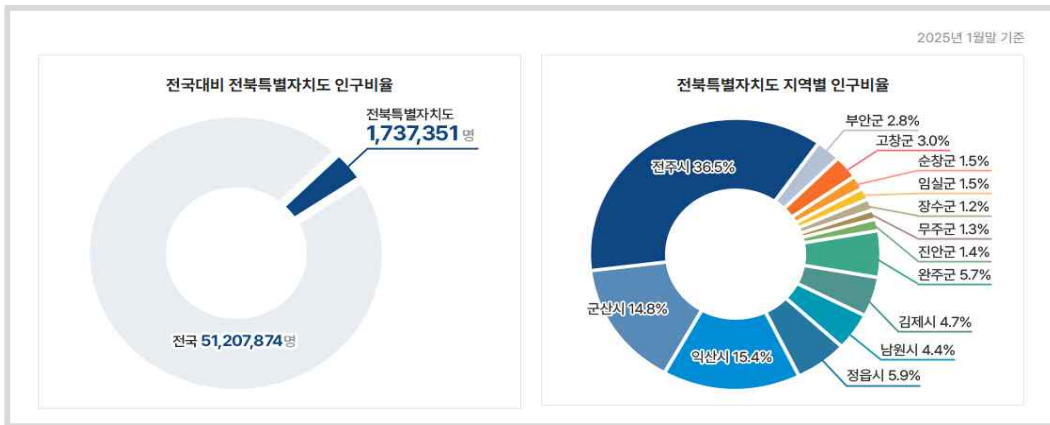


출처: 전북도청 홈페이지

<그림 2-4> 전북특별자치도 정책 방향

전북 지역은 6개 시지역과 8개 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1월 기준 인구는 1,737,351명으로 전국 인구의 3.39%에 불과하다. 전북 지역 안에서도 시와 군지역 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어, 전주, 군산, 익산 3개 시의 인구가 전체 전북인구의 66.5%를 차지하고 있으며, 5개 군 지역은 각각 2% 미만으로 적은 편이다(<그림 2-5>). 2021년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역에 전북의 10개 시군이 해당된다.

전북의 정책방향과 민선8기 핵심전략 그리고 현재 전북의 주요 이슈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결과를 통해 전북 지역의 몇 가지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전북 지역의 최근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 다문화 가구의 증가와 지역사회 안에서 이들 집단의 적응도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이다. 산업 부분에서는 농생명 산업, 새만금과 관광 관련 부분도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핵심적인 전략이다. 고령친화와 관련된 정책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는 타 지역과 유사하게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이다. 전북도청 내 내부자료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도정현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은 산업이나 지역발전 정책보다는 보건복지 정책과 저출생 및 청년 관련 정책에 관심이 높은 것을 보여준다.



출처: 전북도청 홈페이지

<그림 2-5>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인구 분포

이러한 특징은 전북 사회지표의 특성지표 개발 시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지역 내 외국인 및 다문화 가구의 변화 추이, 이들 집단에 대한 지역사회의 포용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 지역 내 사회복지 정책 및 저출산 정책이나 이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도 검토될 수 있다. 특히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나 출산 관련 인식의 경우 사회조사를 통해 지표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주관적 태도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지표개발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내에서의 균형 발전 정도를 보여줄 수 있도록 시군 단위로 지표를 세분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제 3 장

### 전북 사회지표 영역별 개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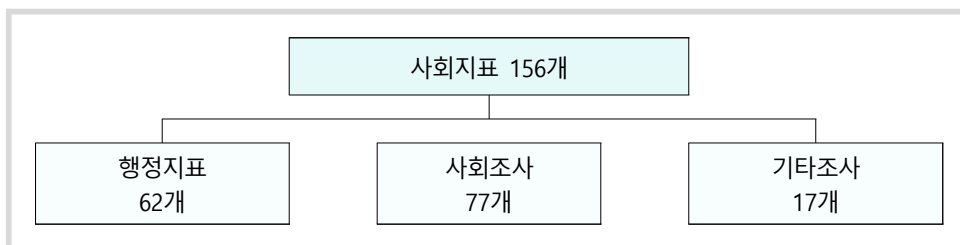
#### 제1절 전북의 사회지표 작성 현황

##### 1. 작성 연혁 및 개요

전북도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시민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시민의 만족도와 사회적 변화 등의 추이를 분석하고 향후 시민의 삶의 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7년부터 전북의 사회지표를 수립하여 매년 사회지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전북의 사회지표는 주요한 사회 문제들을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인구, 가족·가구, 소득·소비, 고용·노사, 교육, 보건·의료, 주거·교통, 환경, 복지, 여가·문화, 안전, 사회·참여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행정을 위한 주요 관심지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도 또는 시·군 단위의 특성항목을 마련하며, 총 13개 분야에 특성항목 영역의 지표를 제외한 총 15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표는 자료출처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행정지표 62개, 전북의 사회조사를 통해 산출되는 지표 77개, 타 기관의 조사통계를 활용한 지표 17개로 구분된다.

전북 사회조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원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다. 설문 문항은 전북 사회지표의 분야별로 ① (홀수연도) 교육, 보건·의료, 주거·교통, 환경, 여가·문화 안전, 특성항목과 ② (짝수연도) 가족·가구, 소득·소비, 고용·노사, 복지, 사회·통합, 특성항목으로 나누어 2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다.



<그림 3-1> 자료출처에 따른 전북의 사회지표 구분

## 2. 영역별 지표

전북 사회지표는 인구, 가족·가구, 소득·소비, 고용·노사, 교육, 보건·의료, 주거·교통, 환경, 복지, 여가·문화, 안전, 사회·참여, 특성항목 총 13개 분야이며 매년 지표가 변경되는 특성항목을 제외하면 총 156개의 지표<sup>10)</sup>로 구성되었다.

인구 영역은 3개의 관심영역이 있으며, 시도별 인구, 장래 추계인구와 같은 인구 규모와 성 및 연령별 인구, 외국인 등의 인구구성, 출산율 및 사망률 등 인구동태로 구분되며 관심영역과 관련된 12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가구·가족 영역은 가족 구조, 가족 변천, 가족 기능 3개의 관심영역에 대해 14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세대별 가구분포, 가구주의 연령비율 등 전북의 가구 구성 현황과 함께 이혼 및 혼인 건수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와 견해에 대한 지표도 포함한다.

소득·소비 영역은 경제적 삶의 결정요인인 가구 소득, 가구 소비, 가계 자산으로 관심영역을 구분하여 월평균 가구 소득과 같은 객관적 지표와 소득 또는 소비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인 지표를 포함하여 총 13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고용·노사 영역은 노동 공급, 노동 수요, 근로 여건 3개 관심영역을 설정하고 경제활동인구 규모 및 참가율, 사업체 현황 등 노동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규모와 함께 직업 선택 요인, 구직활동의 어려움 등의 노동 조건과 선호 직장, 근로여건 만족도에 관련한 주관적인 의견을 파악하는 지표를 포함하여 총 10개의 지표로 구성되었다.

교육 영역은 교육 자원, 교육 기회, 교육 효과 3개 관심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의 측면에서의 지표와 교육 참여 현황과 의향, 교육의 만족도 등의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총 12개의 지표를 포함한다.

보건·의료 영역은 건강과 보건의료이용 2개 관심영역이 있으며, 흡연여부, 운동 유무 등 건강행태 관련 지표와 비만, 유병률, 자살률 등 건강상태지표, 보건의료 인력시설 정도, 의료이용 만족도로 구성된 총 15개 지표가 있다.

주거·교통 영역은 주거와 교통 크게 2개 관심영역으로 구분된다. 주거는 수급과 현재 상황, 주택의 질과 관련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통은 교통의 편의 측면에서 도로 현황과 자동차 수, 통학통근 방법 등 교통이용현황 지표와 함께 대중교통 만족도 지표가 포함된 총 16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환경 영역은 환경 현황, 환경 상태, 환경 관리 3개의 관심 영역하에서 폐수, 생활 폐기물 발생량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전력 소비량, 상하수도 급수량 등 환경자원

10) 기존의 전북 사회지표의 영역별 지표 목록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이용, 환경의 질, 환경 보전과 관련한 총 11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복지 영역은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2개의 관심 영역하에서 전북의 복지 자원과 사회보험 시스템, 기초 생활보장 수준을 파악하고 사회적 약자(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에 대한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지표가 포함된 총 18개의 지표로 구성되었다.

여가·문화 영역은 인프라, 여건, 참여 3개 관심영역으로 구성된다. 지역의 문화재 수, 문화시설 수의 물리적인 환경과 평균 여가시간, 문화예술 지출 수준 등 여가문화 향유 현황을 파악하고 문화예술 관람이나 동호회 참여, 지역 문화예술행사의 만족도 등 여가문화를 참여하는 수준을 파악하고자 총 13개의 지표로 구성되었다.

안전 영역은 범죄, 사건·사고, 사고예방, 안전 4개의 관심 영역하에서 범죄 발생건 수 및 비율과 관련된 범죄현황과 교통·화재·자연재해 발생현황, 사고예방 및 대비를 위한 경찰 및 소방인력 현황, 야간보행이나 사회안전 중요도 등 안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총 15개의 지표를 포함하였다.

사회참여 영역은 개인의 가치와 의식수준, 사회참여의 의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 정체성이나 공동체 의식과 같은 주관적인 시민의식 수준과 직접적인 사회참여 여부 및 시간 등의 객관적인 시민참여 수준을 지표화하여 총 7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특성항목은 도 또는 시·군에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항목들과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으로 구성되며, 2024년에는 안전, 의료서비스, 청년과 관련된 9개 지표를 포함하여 구성되었다.

<표 3-1> 자료출처에 따른 사회지표 영역별 구분

		행정지표	사회조사	기타조사	계
홀수연도	교육	5	7	-	12
	보건·의료	5	6	4	15
	주거·교통	6	9	1	16
	환경	8	3	-	11
	여가·문화	2	11	-	13
	안전	9	6	-	15
짝수연도	인구	12	-	-	12
	가구·가족	-	9	5	14
	소득·소비	4	8	1	13
	고용·노사	-	5	5	10
	사회참여	1	6	-	7
	복지	10	7	1	18
계		62	77	17	156

### 3. 지표 전문가 조사

전북도민의 삶의 질을 반영할 수 있는 사회지표 개편을 위해 지역의 현안과 주요 관심사 등을 파악하고자 기존 전북 사회지표 및 사회조사의 개편안에 대해 관련 분야 및 지역 전문가, 지역 사회지표 조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북 사회지표의 하위 영역 구성, 개별 지표별 중요도, 신규 지표 수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25년 4월 30일부터 5월 13일까지 14일간 서면으로 진행하였으며 전북 사회지표 3~4개 영역에 대해 지표 중요도를 7점 척도로 평가하고 분야별 관심영역의 적정성과 삭제, 추가지표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설문지<sup>11)</sup>를 구조화하여 이메일을 통해 조사대상자에게 배포하였다.

조사대상자 총 46명 중 35명(76.1%)이 회신하였으며, 전북 사회지표 조사담당자 1명이 추가 응답하여 총 36명이 조사에 응하였다. 각 지표별 중요도 응답결과는 제3절 영역별 개편결과에서 영역별로 제시되어 있다. 응답자별로 3~4개 영역에 대해 의견을 문의하였으며, 응답자에 따라 요구받은 영역만 응답한 경우도 있고, 추가로 모든 영역에 대해 응답한 경우도 있어 영역별 응답자 수에는 차이가 있다.

<표 3-2> 회신건수 및 영역별 응답자 수

(단위: 명)

구분	전체 회신	영역별 응답자 수										
		인구	가족 가구	건강	교육	소득 소비	고용 노사	주거 교통	여가	환경	안전	사회 통합
인원	36	24	25	28	27	26	25	30	28	29	29	26

11) 외부 전문가 및 전북 사회조사 담당자들에게 요청한 조사표는 <부록> 6.에 제시되어 있다.

## 제2절 전북의 사회지표 개편 방향 및 프레임워크

### 1. 전북 사회지표 개편 방향

전북 사회지표는 2007년 첫 사회조사 시작 이후 별도의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연구가 첫 개편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개편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지표 및 사회조사 작성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 최근의 사회변화가 반영된 영역 및 개별 지표의 개편과 변경이다.

지역에서 사회지표 작성은 주로 사회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지표와 사회조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 지표는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등의 통계를 활용하여 요약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지표는 지역의 전반적인 사회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모아놓는 것이다. 사회조사는 사회지표 중에서 행정으로 집계될 수 없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태도, 행동양식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다. 이에 국가데이터처에서 ‘한국의 사회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관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사회조사’가 실시되었다. 앞서 검토한 것처럼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사회조사에 행정통계를 추가하여 사회지표를 작성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지표가 아닌 사회조사 결과만 작성하는 지역이 있다.

전북의 경우 사회조사를 중심으로 사회지표를 작성하고 있어 행정통계를 포함하고 있지만 결과보고서의 제목이 ‘전북 사회조사 보고서’이고, 사회조사의 영역별 2년 주기에 따라 발간되는 체계이다. 따라서 인구 영역의 경우 사회조사 지표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1년 주기 지표만 작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에 한 번씩 보고서에 포함되며, 다른 영역에 포함된 1년 주기 행정통계들도 마찬가지로이다. 사회조사의 경우 응답 부담을 고려하여 2년 주기로 나눠서 조사하더라도 사회지표는 모든 영역을 포괄하여 제시하는 데 지표작성의 의미가 있다. 이에 사회조사는 영역별 2년 주기가더라도 매년 모든 영역을 포함하여 보고서가 작성되는 것이 적절하며, 보고서의 명칭 또한 ‘전북 사회지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사회조사는 현재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과 영역주기가 불일치하여 영역주기의 개편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을 고려하여 영역주기를 변경하고, 영역별 개편 결과를 반영하여 사회조사 항목을 변경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조사항목과 조사항목의 구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자 한다. 사회조사와 영역별 주기와 조사항목과 관련된 부분은 4장에 제시되어 있다.

사회지표 프레임워크는 최근의 사회변화와 타 지표체계의 개편 방향을 고려하여

전체 프레임워크를 통해 영역 개편을 검토하고 개별 영역별로 하위영역 구성과 하위 영역별 개별 지표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개별 지표의 검토에서는 타 시도의 작성사례, 전문가 자문의견, 기존 전북 사회지표를 대상으로 한 지표 중요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개별 지표의 삭제 및 신규 개발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표 명과 통계표의 일치 여부, 지표작성의 간결성 등을 고려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존 지표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2. 전북 사회지표 프레임워크

현재 전북의 사회지표는 모두 12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 지역의 사회지표와 비교해 본 결과 대부분 다루어지는 영역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국가데이터처의 ‘한국의 사회지표’의 경우 2012년 4차 개편 시 영역을 변경한 이후 5차 개편에서는 영역의 변경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주관적 웰빙’ 영역만 추가되었다. 타 지역의 사회지표와 비교해 보면 개편이 있었던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의 영역 구성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개편이 있었던 지역은 ‘한국의 사회지표’ 4차 개편 후의 영역구성과 유사한 반면, 그렇지 않은 지역은 2차 개편 시의 영역과 비슷하다.

전반적으로 유사하나 가장 크게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복지’ 영역이다. ‘복지’ 영역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표가 포함되나, 의료보험, 소득보장 등 건강이나 소득 소비 등의 주제 영역과 포괄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기존에는 투입지표 위주로 지표들이 포함된 경향이 있어 개편과정에서 그러한 영역은 삭제되고, 필요한 지표들은 관련 영역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이루어졌다. ‘주관적 웰빙’ 영역의 경우와 같이 독립된 영역으로 반영되는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다.

한국의 사회지표의 개편 결과 및 지역의 개편 사례 검토를 통해 전북 사회지표의 프레임워크는 크게 12개 영역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기존의 영역을 대부분 유지하되 영역 명칭은 최근 추세에 맞도록 변경하고, 복지와 사회참여 영역을 포함하여 ‘사회통합’ 영역으로 변경하였고, ‘주관적 웰빙’ 영역이 신설되었다. ‘사회통합’ 영역으로 변경하면서 소수집단에 대한 포용이나 신뢰 등과 관련된 주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며, ‘주관적 웰빙’ 영역은 해당되는 지표는 적긴 하나, 별도의 영역으로 구성함으로써 다른 영역에서 포괄할 수 없는 독립된 영역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림 3-2>는 변경된 전북 사회지표의 프레임워크와 영역별 하위영역을 보여주며, <표 3-3>은 영역별 개별 지표의 변경내용과 최종 영역별 지표 수를 보여준다. 각 영역별 검토결과와 지표의 삭제, 변경, 신규추가에 대한 내용은 제3절에 영역별로 제시되어 있다. 지표의 삭제와 변경에는 영역별 지표 이동과 기존 지표의 분리 및 통합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기존 지표의 수와 삭제 및 신규를 반영한 최종 지표의 수

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림 3-2> 프레임워크 체계 변경안

<표 3-3> 전북 사회지표 체계 개편 내용

	기존		지표 개편 내용			개편결과	
	영역	지표	삭제	신규	변경	영역	지표
인구	3	12	1	3	2	4	14
가구·가족	3	14	3	5	2	3	14
건강	3	15	5	9	1	3	19
교육	3	12	5	5	4	3	15
노동	3	10	2	4	-	2	12
소득·소비	4	13	2	3	1	4	14
주거·교통	4	16	5	2	3	4	15
여가	3	13	4	6	1	3	15
환경	3	11	3	6	?	3	14
안전	4	15	4	1	2	3	13
사회통합	2	7	-	3	2	4	18
복지	2	18	6	-	1	-	-
주관적웰빙							4
계		156					167

주: 삭제와 신규에는 타 영역으로 이동과 지표 통합/분리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기존 지표와 신규 및 삭제된 개편결과의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제3절 영역별 개편 결과

#### 1. 인구

##### 가. 한국의 사회지표 및 타 시도 지표체계

인구 영역은 일부 지역(충북, 경남, 경기)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사회지표에서 포함하고 있는 영역이다. 인구 영역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충북과 경남 지역의 경우 사회지표가 아닌 사회조사 보고서로 행정자료를 포함하지 않고 사회조사 결과만 작성된 보고서이고, 경기도의 경우 사회조사 보고서 중심이나 ‘주요 지표’ 영역에서 인구 및 지역 내 산업 관련 행정자료를 일부만 다루고 있다.

인구 영역은 인구구조와 규모, 출생과 사망, 인구 이동을 다루고 있는 영역이며, 대부분 행정통계로 집계되기 때문에 작성되는 통계가 거의 유사하여 지역별 편차가 거의 없는 영역이다. 한국의 사회지표에서는 인구 영역의 하위영역을 총인구, 인구구성, 출생, 사망, 인구이동 네 개 영역으로 다루고 있으며, 5차 개편 시 인구 영역에서 주요 개편 방향을 저출산 및 다문화 2가지 항목에 초점을 두어 개편하였다(한 준 외, 2019).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비슷하게 총인구, 인구구성, 출생 및 사망, 인구이동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있다. 개별 지표로 보면 타 시도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지표는 평균연령 및 중위연령, 혼인상태 등이 있다. 인구 영역의 경우 대부분 행정통계로 작성되나, 대구의 경우 인구정책 하위영역에서 인구정책 인식 지표<sup>12)</sup>와 인구이동에서 타 지역 이사계획 및 전입사유 관련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강원 또한 저출산 지원정책, 인구유입 정책 관련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표 3-4> 인구 영역의 하위영역 구성 사례

지표명		하위영역 구성
국가데이터처(사회지표)		총인구, 인구구성, 출생, 사망, 인구이동
지역 사회지표	충남, 경북, 강원	총인구, 인구구성, 출생 및 사망, 인구이동
	대전, 세종	총인구, 인구구성, 인구동태
	부산	인구현황, 인구동향, 인구이동
	인천	총인구 및 인구이동, 인구구성, 인구동태, 등록외국인
	대구	총인구, 인구구성 및 분포, 자연적 증감, 사회적 증감, 인구정책

12) 인구정책 우선순위, 청년층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 다문화사회 관련 정책에 대한 견해

### 나. 기존 지표체계 검토

전북 사회지표에서 인구 영역은 인구, 인구구성, 인구동태 세 개 하위영역의 12개 지표로 구성된다. 하위영역의 명칭이 ‘인구’로 명명되어 있어 실제 하위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지 않으며, 인구동태에서 출생과 사망, 인구이동을 모두 다루고 있다. 인구 영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등록외국인 인구를 국적, 자격별로 세분화하여 지표로 포함하고 있는 반면, 연령이나 성별로는 세분화하지 않고 있다. 또한 타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지표인 평균연령 및 중위연령이나 혼인상태 등의 지표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인구밀도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 다. 지표 중요도 전문가 조사 결과

인구 영역의 지표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결과 모두 24명의 응답을 받았고, 결과는 <표 3-5>와 같다. 대부분 지표의 중요도가 평균 5.5점 이상으로 높은 편이나, 인구밀도와 자격별 등록외국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3-5> 타 시도 비교 및 전문가 지표 중요도 조사 결과

하위영역	지표	타 시도 반영 사례	전문가 조사결과	
			평균	표준편차
인구	시도별 인구	10	6.04	1.08
	시군별 세대 및 인구	9	6.33	0.76
	인구밀도	3	4.83	1.40
	장래 추계인구	5	5.58	1.21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12	6.25	0.61
인구구성	성 및 연령별 인구	12	6.08	0.78
	국적별 등록외국인 인구	6	5.71	1.08
	시군 등록외국인 인구	6	5.96	1.00
	자격별 등록외국인 인구	2	5.25	1.26
인구동태	시군 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10	6.17	1.17
	사망원인별 사망자 수 및 사망률	12	5.58	1.32
	인구이동 및 순이동	12	6.29	0.81

하위영역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하위영역인 인구와 인구구성을 ‘인구구조’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인구이동 지표는 하나의 지표(인구이동 및 순이동)만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문가 검토에서 제시되었다.

삭제지표에 대한 의견으로는 인구밀도, 자격별 등록외국인 인구 지표 등이 언급되었고, 시도별 인구를 시도군별 세대 및 인구조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신규 지표에 대한 의견으로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지표로 귀농귀촌 인구나, 생활인구, 인구이동의 원인을 보여주는 전입 및 전출 사유 등의 지표들이 제안되었다.

### 라. 인구 영역 개편(안)

인구 영역은 기존의 3개 영역 12개 지표에서 4개 영역 14개 지표로 개편하고자 한다. 하위영역 구성에 있어 한국의 사회지표나 타 지역에서의 영역구성을 고려하여 인구는 총인구로 변경하고, 출생 및 사망과 인구이동은 분리하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또한 기존에 인구 영역에 포함되어 있던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는 인구구성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등록외국인 인구를 어느 영역에 포함해야 할지는 지표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사회지표를 비롯한 충남 사회지표에서는 인구이동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대구, 대전, 세종 등의 지역에서는 총인구에 등록외국인 인구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지역 내 총인구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측면에서 여기에서는 총인구에 포함해서 구성하였다.

<표 3-6> 인구 영역 지표 개편(안)

하위영역	지표	개편내용	비고
총인구	시도별 인구	유지	
	시군별 세대 및 인구	유지	
	인구밀도	삭제	
	장래 추계인구	유지	
	국적별 등록외국인 인구	출처변경	하위영역 이동
	시군 등록외국인 인구		하위영역 이동
	자격별 등록외국인 인구		통계표 변경 필요
인구구성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유지	하위영역 이동
	성 및 연령별 인구	유지	
	평균연령 및 중위연령	신규	인구총조사
	혼인상태별 인구	신규	인구총조사
출생 및 사망	시군 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유지	
	사망원인별 사망자 수 및 사망률	유지	
인구이동	인구이동 및 순이동	유지	
	귀농,귀어,귀촌 인구	신규	국가데이터처, 귀농어,귀촌인 통계

인구 영역에서 삭제로 검토된 지표는 인구밀도와 자격별 등록외국인 인구이다. 인구밀도는 타 지역 사회지표에서 대부분 포함하지 않는 지표이기도 하고, 지표 중요도 평가 결과 4.83점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들의 의견도 지역의 면적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규모만 나타나는 지표여서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정보가 거의 없고, 지표의 활용도도 낮기 때문에 삭제 의견이 제시되었다.

자격별 등록외국인 인구의 경우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별로 제시한 것으로 통계

표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삭제를 검토하였지만, 전북 의견수렴 결과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은 분리하여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만 통계표의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그래프는 범주별로 묶어서 보여주고 있지만, 통계표는 29개 유형별로 성별 수치가 제시되고 있다. 너무 많은 하위항목이 나열되어 있어 수치가 가지는 의미 또한 파악하기 어렵다. 큰 범주별로 묶어서 시계열 변화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통계표의 작성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체류자격에서 F4에 해당하는 재외동포 거소신고자가 제외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외국인통계의 경우 출처가 다양하고 출처별로 외국인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표 3-7>에는 2023년 기준 외국인 인구가 제시되어 있다. 기존 전북 사회지표에서 활용하는 출처는 법무부 자료로 재외동포거소신고자(F4: 4,119명)가 제외되어 있으며, 포함하더라도 등록센서스보다 포괄범위가 적다. 등록센서스의 경우 체류자격별로 세분화되지 않는 단점이 있고, 외국인 주민현황은 등록센서스를 기반으로 하여 국적취득자와 외국인주민자녀까지 포함한 통계이다. 외국인 주민현황의 경우에도 체류자격별로 통계가 산출되지는 않지만 외국인을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외국인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통계별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포괄범위가 더 크고, 체류자격이 어느 정도는 세분화되는 외국인 주민현황 통계를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3-7> 외국인 인구 통계별 비교 (2023년 기준)

구분	등록외국인통계	등록센서스	외국인 주민현황
등록외국인	40,115명 (F4: 4,119명)	52,799명	73,802명 (국적 취득자 제외)
작성기준	현주민구, 월별	11월 1일 기준 상주민구, 연간,	
작성기관	법무부	통계청	행정안전부
포괄범위	장기체류외국인 (등록외국인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단기체류외국인(불법) 장기체류외국인	등록센서스 + 국적취득자, 외국인주민자녀
세분화	시군구, 성, 연령, 국적, 체류자격	시군구(성별), 연령, 국적	시군구, 성, 국적, 연령,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

주: 법무부의 등록외국인통계에서는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관련 법이 달라 두 항목을 합친 통계는 제공하지 않으며, 각각 별도로 제공  
출처: 송다영(2018); 법무부, 체류외국인통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

인구 영역에서 신규로 추가되어야 할 지표는 평균연령과 중위연령, 혼인상태별 인구, 귀농(어)귀촌 인구이다. 평균연령과 중위연령은 지역 내 시군별 인구분포를 대표

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이며, 혼인상태별 인구 또한 인구 영역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이다. 인구가동에서는 귀농(어)/귀촌 인구를 통해 읍면 지역으로의 인구가동을 파악할 수 있다. 전북 지역의 귀농(어)/귀촌 인구는 최근 감소 추세이며 귀촌인 인구의 대부분은 전주시에서 유입되고 있다. 대부분이 귀촌인구이고, 귀어인구는 규모가 작아서 귀농인구에 포함하여 통계표를 작성할 수 있다.

<표 3-8> 인구 영역 신규 지표

지표명	출처	정의
평균연령과 중위연령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평균연령(총인구에 대한 연령의 평균)과 중위연령(총인구를 연령별로 세워서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
혼인상태별 인구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인구의 혼인상태(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별 구성 비율
귀농어/귀촌인구	국가데이터처, 귀농어,귀촌인 통계	동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읍면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의 수

인구 영역에서 신규검토 지표로 제안되었던 지표 중 하나는 생활인구이다. 생활인구는 지역 내 등록된 인구뿐 아니라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인구까지 포함한 개념<sup>13)</sup>이다. 지역 내 거주하지 않더라도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을 포함하는 인구로 현재 국가데이터처에서 공표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국가승인통계는 아니고, 통계작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실험적 통계이다. 2024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하여 사회지표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고, 시계열 작성 결과를 모니터링한 이후에 지표 포함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가구·가족

### 가. 한국의 사회지표 및 타 시도 지표체계

가구·가족 영역은 현재 모든 지역의 사회지표에서 포함하고 있는 영역으로 개인에게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구성단위라고 할 수 있다. 가구는 같이 사는 사람들의 거주단위로 비교적 정의가 명확한 반면, 가족은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시대나 사회에

13) 생활인구는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작성되며(전북은 10개 지역 대상으로 군산, 익산, 전주, 완주는 제외), 등록인구와 체류인구의 합으로 체류인구는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날이 월 1일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민등록정보, 외국인등록정보, 통신 3사의 모바일 이동정보, 신용카드 사용정보를 활용하여 작성된다.

따라 변화하여 측정단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한 준 외,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가족의 모습을 명확히 보여주고, 가족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최근에는 혈연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전통적인 가족개념 이외에도 사회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가족개념이나 규범들의 측정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는 저출산 관련 문제도 가족개념이나 가치관 등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국의 사회지표에서는 가구·가족 영역의 하위영역을 가족 및 가구구성, 가족형성, 가족생활, 가족규범 네 개 영역으로 다루고 있으며, 5차 개편 시 주요 개편 방향을 가구 구성 중심의 사회지표를 재검토하고 가족과 관련된 새로운 현상들이나 규범의 변화를 포착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개편하였다(한 준 외, 2019).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가족 및 가구구성과 가족형성, 가족생활은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며, 가족규범, 노후생활 등도 포함하는 사례가 있다. 가족생활에서는 가족관계뿐 아니라 미취학아동 돌봄과 부모부양, 노후생활 등을 같이 다루고 있다. 다만 노후생활의 경우 지역에 따라서는 복지 영역에 포함하여 구성하는 등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가족규범 영역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더라도 해당 영역에 포함되는 지표인 결혼에 대한 인식이나 출산 관련 지표를 포함하는 사례는 많은 편이다. 그리고 다문화 가구에 대한 인식이나 분포 등을 포함하는 지역이 있으며, 또한 일부 지역(울산, 세종, 경기)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지표도 포함하고 있다.

<표 3-9> 가구·가족 영역의 하위 영역 구성 사례

지표명		하위 영역 구성
국가데이터처(사회지표)		가족 및 가구구성, 가족형성, 가족생활, 가족규범
지역 사회지표	인천	가구 및 가족 구성, 가족형성, 가족생활, 노후생활
	대전	가족형성, 가족구조 및 기능
	대구	가족구성, 가족형성 및 해체, 가족생활 및 규범
	충남, 강원, 경북	가족 및 가구구성, 가족형성, 가족생활
	부산	가구현황, 혼인 및 이혼, 가족생활

### 나. 기존 지표체계 검토

전북 사회지표에서 가구·가족 영역은 가족구조, 가족변천, 가족기능 세 개 하위영역의 14개 지표로 구성된다. 영역 구성에 있어서는 타 시도 가구·가족 영역의 지표체계와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이나, 미취학 아동의 보육 관련 지표가 가족구조에 포함되어 있고, 가족기능에는 부모님 부양 관련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부모님 부양과

관련될 수 있는 노후생활 관련 지표는 복지 영역에서 구성하고 있어, 복지 영역에 해당하는 일부 지표를 가구·가족 영역에 포함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가족기능 영역에 삶의 만족도 지표가 포함되어 있어 일부 지표의 영역 이동 및 삭제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출산 관련 인식이나 국제결혼 및 다문화 가구 관련 지표도 해당 영역에서 다루질 필요가 있다. 다만 다문화 가구의 분포나 현황이 아닌 태도나 인식과 관련된 부분은 사회통합 영역에 포함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 다. 지표 중요도 전문가 조사 결과

가구·가족 영역의 지표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결과 모두 25명의 응답을 받았고, 결과는 <표 3-10>과 같다. 중요도 평가 결과 가구·가족 영역에서 있었던 기존 지표들 중에서는 부모님 생활비 주 제공자, 가족안전유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균 5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존에 복지 영역에서 있었던 지표들의 경우 평균 값이 5점 미만인 경우가 많았다.

<표 3-10> 타 시도 비교 및 전문가 지표 중요도 조사 결과

하위영역	지표	타 시도 반영 사례	전문가 조사결과	
			평균	표준편차
가족구조	가구수	8	5.76	1.20
	세대수별 가구분포	8	5.60	1.04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 비율	3	5.32	1.28
	분거가족 거주지역, 이유, 기간	7	5.12	1.17
	미취학아동 유무, 나이, 보육방법, 만족도	11	5.20	1.29
가족형성	다문화 가구 인식	5	5.64	0.95
	혼인 건수(조 혼인율)	10	5.88	1.20
	이혼 건수(조 이혼율)	10	5.60	1.15
가족기능	삶에 대한 만족도	10	6.44	0.77
	가족관계 만족도	9	5.92	0.95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 및 현황	6	5.44	1.19
	부모님 부양에 대한 견해 및 동거자	9	5.00	1.50
	부모님 생활비 주 제공자	8	3.64	1.55
	가족안전유형	1	3.36	1.66
돌봄 (기존의 복지 영역 지표)	사회서비스 만족도	11	5.88	0.88
	성차별 여부	0	4.16	1.72
	선호 장례방법	2	2.80	1.94
	보육 시설수 및 아동 수	11	5.21	1.58
	여성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4	5.60	1.38
	노후의 생활비 마련 방법	4	5.38	1.60
	노인이 겪는 가장 어려운 점	4	4.24	1.94
	노인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3	4.16	2.01
	노인복지 시설 확충	0	3.96	2.01

하위영역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영역구성의 적정성보다는 하위영역에 적합한 지표의 이동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가족형성 명칭에 대한 변경 의견과 함께 다문화 가구 인식, 성차별 여부 등은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여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삭제지표에 대한 의견으로는 부모님 생활비 주 제공자, 선호 장례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삭제에 동의하였으나 성차별 여부와 노인 관련 지표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을 다루고 있으므로 가구·가족 영역이 아니더라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추가지표에 대한 의견으로는 비혈연동거가구나 가족의 동거유형, 1인가구(독거노인수) 등 새로운 가족 유형을 보여주는 지표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반려동물 양육, 가족돌봄의 비중, 국적별 혼인과 이혼 관련 지표 등 최근 사회변화나 이슈를 반영하는 지표의 추가 필요성이 언급되었으며, 가족 관련 가치관을 보여주는 결혼에 대한 태도, 이상자녀수 등의 지표에 대한 추가 의견이 제시되었다.

## 라. 가구·가족 영역 개편(안)

가구·가족 영역은 기존의 3개 영역 14개 지표에서 3개 영역 14개 지표로 숫자는 동일하나 영역 명칭과 개별 지표는 변경되었다(<표 3-11>).

영역 구성은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으나, 가족형성 영역 명칭을 가족 생애주기로 변경하였으며, 가족생활 영역에서 가족 간의 관계나 가족 간 돌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족생활 및 돌봄으로 하위영역의 명칭만 변경하였다. 복지 영역에 해당되는 지표 중 일부를 가구·가족 영역에서 검토하였으나(9개 지표) 검토과정에서 대부분 사회통합 영역으로 포함되었거나 타 영역으로 이동하였으므로 검토 결과는 사회통합 영역에서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기존의 지표 중에서 삭제지표는 가구수, 부모님 생활비 주 제공자, 가족안전유형 지표이다. 가구수 지표의 경우 세대수별 가구분포 지표에 가구수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지표로 구성할 필요가 없으며, 부모님 생활비 주 제공자와 가족안전유형 지표는 전문가 지표 중요도 조사 결과 중요도 점수가 낮게 나타난 지표이기도 하며, 지표가 의미하는 내용이나 수치의 변화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부모님 생활비 주 제공자 지표의 최근 값을 보면 60% 이상이 부모님 스스로 해결이고, 모든 자녀가 25% 정도이며 나머지는 장남, 아들, 딸로 구분되는데 최근에는 장남, 아들, 딸의 구분이 중요하지 않으며, 자녀수가 많지 않아서 지표가 의미하는 바가 현재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가족안전유형 지표는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응답한 비율<sup>14)</sup>의 46.5%가 ‘해당없음’이고, 다음으로는

14) 질문항목: 귀 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상황 등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 귀하 또는 귀

‘가족의 건강이상(29.8%)’이 높은 편이다. 이 지표의 경우 가족 영역에 적합한 지표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또한 가족구성이나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항목으로 지표로써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였다.

<표 3-11> 가구가족 영역 지표 개편(안)

하위영역	지표	개편내용	비고
가족구조	가구수	삭제	기존지표와 중복
	세대수별 가구분포	유지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 비율	유지	
	분거가족 거주지역, 이유, 기간	유지	
	다문화 가구 분포	신규	인구총조사 자료
	다문화 가구 인식	타영역 이동	사회통합 영역
가족 생애주기	혼인 건수(조 혼인율)	유지	
	이혼 건수(조 이혼율)	유지	
	초혼연령	신규	
	외국인 배우자 부부 혼인 및 이혼 건수	신규	
	결혼에 대한 태도 및 인식	신규	신규항목 개발
	출산에 대한 태도	신규	신규항목 개발
가족생활 및 돌봄	삶에 대한 만족도	타영역 이동	주관적 웰빙 영역
	가족관계 만족도	유지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 및 현황	유지	
	부모님 생활비 주 제공자	삭제	
	가족안전유형	삭제	
	미취학아동 유무, 나이, 보육방법, 만족도	유지	하위영역 이동
	부모님 부양에 대한 견해 및 동거자	유지	

가구·가족 영역에서 신규로 포함된 지표는 모두 5개로 타 지역의 사회지표 및 전문가 검토의견을 고려하였다(<표 3-12>). 최근 다문화 가구나 국제결혼 등이 증가 추세로 가족구성에서 다문화 가구 분포를 보여주는 지표를, 가족생애주기에서는 국적별 혼인과 이혼 지표(외국인 배우자의 혼인 및 이혼 건수)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변화되는 가족 가치관이나 규범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북사회조사를 통해 산출해야 하는 결혼에 대한 태도나 인식, 비혼 출산이나 무자녀 등 출산에 대한 태도 관련 지표를 추가하였다. 돌봄과 관련해서는 미취학 아동이나 고령자뿐 아니라 장애가족 등

택에서 위협을 느꼈던 일은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보기항목: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 가족 건강 이상, 실직 또는 파산, 직업 불안정, 산업재해, 범죄피해, 투자손실, 해당사항 없음)

가족 안에서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최근 영케어러, 노노케어 등 가족 내 돌봄노동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자녀돌봄의 문제는 저출산과도 연관되어 있어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사회조사를 통해서 산출되어야 하는 지표이나 아직 작성하고 있는 사례가 드물고, 응답결과에 대한 대표성이 낮을 수 있어 지표로 포함 여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표 3-12> 가구가족 영역 신규 지표

지표명	출처	정의
다문화 가구 분포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귀화자 등이 있는 가구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과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구 또는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수와 가구원수(평균)
초혼연령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초혼자의 평균 초혼연령(성별)
외국인 배우자 부부 혼인 및 이혼 건수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및 이혼 건수
결혼에 대한 태도 및 인식	전북 사회조사(신규항목)	결혼이나 동거에 대한 인식 정도
출산에 대한 태도	전북 사회조사(신규항목)	비혼출산이나 무자녀에 대한 인식 정도

### 3. 건강

#### 가. 한국의 사회지표 및 타 시도 지표체계

건강 영역은 영역 명칭에서의 일부 차이가 있지만 모든 사회지표에서 별도의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건강 영역은 전반적인 건강상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그리고 건강이 안 좋을 때 이용하게 되는 의료서비스 체계로 구성되며, 다른 해외사례에서는 일부 더 세분화되는 특징을 보이긴 하지만, 이 세 개의 하위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다(한준 외, 2019). 다만 개별 지표에서는 사회변화에서 따라서 중요하지 않는 질병이나 건강요인 등이 반영되어 차이가 있다.

한국의 사회지표에서는 건강 영역의 하위영역을 건강상태, 건강영향요인, 보건의료체계로 구성하고 있다. 영역 명칭은 기존에 ‘보건’에서 2012년 4차 개편 시 ‘건강’으로 변경되었으며(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 5차 개편에서는 전체적인 틀은 유지하되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투입지표보다 성과지표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이루어졌다(한준 외, 2019). 건강과 관련된 영역은 모든 시도에서 다 포함하고 있지만, 영역 명칭에서는 차이를 보여 ‘건강(7개 지역)’, ‘보건(5개 지역)’, ‘보건·의료’, ‘보건과 건강’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영역은 <표 3-13>에서 보여주듯이 대부분 유사하며 건강결정요인과 건강영향요인, 보건의료서비스와 보건의료체계와 같이 명칭

에서의 차이만 있다. 한국의 사회지표의 경우 5차 개편 시 하위영역의 명칭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건강결정인자에서 건강영향요인으로 보건의료시스템에서 보건의료체계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개별 지표들 또한 건강상태와 건강영향요인을 보여주는 지표는 거의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 정신건강과 신체건강, 주관적 건강평가 등으로 건강상태를 구성하고, 흡연, 음주, 규칙적 운동 등을 통해서 건강영향요인을 구성하고 있다. 반면 보건의료체계의 경우 지역에 따라서 세분화하여 구성하는 경우가 있고, 간단히 제시되는 경우가 있어 일부 차이를 보인다.

<표 3-13> 건강 영역의 하위 영역 구성 사례

지표명		하위 영역 구성
국가데이터처(사회지표)		건강상태, 건강영향요인, 보건의료체계
지역 사회지표	대구	건강상태, 건강영향요인, 보건의료체계
	강원, 경북, 충남	건강상태, 건강결정요인, 보건의료서비스
	대전	보건의료자원, 건강행태
	세종	의료여건, 보건여건, 건강행태
	인천	의료시설, 의료서비스, 건강결정요인, 건강상태
	부산	의료, 질병 및 사망, 보건의식, 개인건강

### 나. 기존 지표체계 검토

전북 사회지표에서는 ‘보건’ 영역으로 작성되어 있고, 하위영역은 건강과 보건의료이용 두 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건강에서 건강결정요인과 건강상태를 구분하고 있다. 건강결정요인에서는 운동과 관련된 부분을 매우 세분화해서 구성하고 있어서 건강보다는 여가와 관련되는 지표로 보여 검토가 필요하고, 전염병 예방접종실적 지표의 경우 전염병 하위항목별로 접종한 사람 수로 작성되어 있어 인구수 대비나 접종률이 아니어서 실제 수치의 증감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지표이다. 또한 타 지역의 사회지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지표이다. 건강결정요인 중 흡연율과 함께 많이 작성되는 지표인 음주율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건강상태에서는 유병률과 비만도로 신체건강을, 스트레스인지율과 자살률로 정신건강을 파악하고 있다. 유병률의 경우 특정 질병으로 한정하지 않고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전북 내 시군을 비교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며, 당뇨병이나 고혈압<sup>15)</sup>, 치매유병률<sup>16)</sup> 등을 주로 활용하는 타 시도와는 차이를 보인다.

15) 당뇨병과 고혈압 유병률 지표의 경우 신체건강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타 지역에서는 질병관

보건의료이용은 의료서비스 만족도와 인구당 병상수와 의료인력수로 구성되어 의료시설 접근성, 미충족의료이용, 건강검진이나 암검진 등 의료서비스 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 다. 지표 중요도 전문가 조사 결과

건강 영역의 지표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결과 모두 28명의 응답을 받았고, 결과는 <표 3-14>와 같다. 대부분 5점 이상으로 중요성이 높다고 평가하였으나, 운동실천 정도 및 장소, 주로 하는 운동, 향후 해보고 싶은 운동, 전염병 예방접종실적은 5점 미만으로 중요도가 다소 낮았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삭제지표에 대한 문항에서도 향후 해보고 싶은 운동, 전염병 예방접종실적의 삭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운동실천 정도 및 장소는 삭제 의견과 수정하여 유지하자는 의견이 비등하였다. 이외에도 흡연률, 자살충동 여부 및 느낀 이유, 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불만사유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추가 의견으로는 의료시설 유형별 접근성, 음주율, 식이형태 또는 영양상태, 건강검진 또는 암검진 수검율, 우울 또는 번아웃 여부가 있었다.

하위영역 구성에 대해 모두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으며, 건강결정요인 영역의 명칭을 건강관리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표 3-14> 타 시도 비교 및 전문가 지표 중요도 조사 결과

하위영역	지표	타 시도 반영 사례	전문가 조사결과	
			평균	표준편차
건강결정 요인	흡연율	10	5.21	1.45
	운동실천 정도 및 장소	1	3.96	2.19
	주로 하는 운동	0	4.36	1.62
	향후 해보고 싶은 운동	0	3.32	1.95
	하루 평균 수면 시간	0	5.89	0.92
	전염병 예방접종실적	0	3.16	1.96
건강상태	비만도	9	5.43	1.20
	스트레스 인식도	8	5.75	1.29
	유병률	11	5.43	1.43
	자살률	9	5.93	1.25
	자살 충동여부 및 느낀 이유	6	5.61	1.31
보건의료이용	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불만사유	8	6.33	1.40
	인구 천명당 병상 수	12	5.32	1.39
	인구 천명당 인력 수	12	5.43	1.29

리청의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한다.

- 16) 치매유병률은 인천, 대구, 대전, 강원, 충남에서 지표로 포함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의 대한민국 치매현황 자료를 활용한다.

### 라. 개편(안)

영역 명칭은 기존의 ‘보건’ 영역에서 실제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것인 만큼 ‘건강’으로 변경하고, 하위영역은 건강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체계인 건강상태, 건강영향요인, 보건의료체계로 구성하였다. 기존에 2개 하위영역의 14개 지표에서 3개 하위영역의 19개 지표로 변경하였다.

<표 3-15> 건강 영역 개편(안)

하위영역	지표	개편내용	비고
건강상태	비만도	유지	
	스트레스 인식도	유지	
	유병률	삭제	
	자살률	유지	
	자살 충동여부 및 느낀 이유	유지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률	신규	지역사회건강조사
	우울감 경험률	신규	지역사회건강조사
	치매유병률	신규	대한민국치매현황/행정자료
건강영향요인	주관적 건강평가	신규	지역사회건강조사
	흡연율	유지	
	운동실천 정도 및 장소	변경	장소 삭제
	주로 하는 운동	삭제	
	향후 해보고 싶은 운동	삭제	
	하루 평균 수면 시간	유지	
	전염병 예방접종실적	삭제	
보건의료체계	음주율	신규	지역사회건강조사
	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불만사유	유지	
	인구 천명당 병상 수	유지	
	인구 천명당 의료인력 수	유지	
	의료기관수	신규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1인당 의료보험 가입자 수	삭제	영역이동(복지)
	의료기관 접근성	신규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미충족 의료이용률	신규	신규 조사항목 필요
건강검진 수검률	신규	건강검진통계	

하위영역별 세부 내용을 보면 ‘건강상태’에서는 크게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으로 구분된다. 기존의 지표에서 신체건강을 보여주는 지표로는 유병률과 비만도가 있다. 비만율은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지표이나 유병률(국

가데이터처, 사회조사)의 경우 특정 질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지표를 설명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현재 자료가 전북의 시군 자료까지 작성되지 않고 있다. 이에 신체건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률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므로 유병률 지표를 대체하고자 한다. 정신건강 관련해서는 우울이나 번아웃 경험을 관련 지표의 추가 의견도 있었다. 현재도 자살률과 스트레스인지율 지표를 포함하고 있지만, 정신건강이 중요해짐에 따라 번아웃 경험보다는 우울감 경험을 항목을 추가하고자 한다. 우울감 경험을 지표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주관적 건강평가 항목도 추가하였다.

<표 3-16> 건강 영역 신규 지표

지표명	출처	정의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률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대상자 중 고혈압과 당뇨병 비율
우울감 경험률	지역사회건강조사	최근 1년 동안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
치매유병률	대한민국치매현황	치매유병률 자료를 통한 지역 노인인구 대비 추정치
	전북 행정자료	치매등록 환자수
주관적 건강평가	지역사회건강조사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
음주율	지역사회건강조사	음주율(한 달에 한 번 이상)과 고위험 음주율(주2회 이상, 1회 남자 7잔, 여자 5잔 이상)로 제시
의료기관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시군별 의료기관수(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 한방병원, 보건소, 조산원, 약국)
의료기관 접근성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의 평균거리와 최대거리
미충족 의료이용률	전북 사회조사 (신규)	최근 1년 동안 병원진료가 필요하였으나, 받지 못한 비율
건강검진 수검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대상인원 중 건강검진(암검진)을 받은 사람의 비율

치매유병률의 경우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모니터링이 필요한 중요한 지표이나 통계 출처의 검토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치매현황’에서 제시된 자료는 치매유병률 자료를 활용해서 추정하는 통계자료로 통계수치에 매년 큰 변화가 없다.<sup>17)</sup> 전북

17) 건강보험통계 자료인 진료실 인원에서 산출할 수 있는 치매 관련 상병의 경우는 치매가 아닌 경우도 관련 약제로 처방하는 경우 또는 치매임에도 진료를 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도 차원에서 치매등록환자수로 관리하는 자료가 있다면 추정치보다 더 적절할 듯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건강영향요인’에서는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동이나 활동 등을 측정하는데, 기존의 지표들이 운동 장소, 종류, 희망하는 운동 등 여가 쪽에 오히려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기존의 운동 관련 지표를 운동실천 정도<sup>18)</sup>만 남기고 삭제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강영향요인에서 흡연율과 같이 자주 활용하는 지표인 음주율(고위험 음주율) 지표를 추가하였다.

보건의료체계에서 기존에 해당되는 지표인 천 명당 병상 수와 의료인력 수 지표는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에 실제 의료기관 이용이 얼마나 편리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인 의료기관 수와 의료기관 접근성 지표를 신규로 추가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의료이용의 사각지대 있는 비율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의료이용이 필요하나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인 미충족 의료이용률 지표를 신규로 포함하였다. 이 지표는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의료이용이 필요한데도 이용할 수 없었던 이유 등을 추가항목으로 구성하여 포함할 수 있다. 여기에서 건강검진 수검률을 대표적인 예방보건행동 지표로 추가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존에 복지 영역에 있던 지표인 1인당 의료보험 가입자 수 지표의 경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수를 시군별로 보여주고 있으나, 가입자 수의 증감은 복지나 정책적인 대응과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이 지표는 삭제하였다.

## 4. 교육

### 가. 한국의 사회지표 및 타 시도 지표체계

사회지표에서 교육은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역량과 자질을 함양함으로써 개인에게 도움이 되면서 동시에 사회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박종효 외, 2017). 한국의 사회지표에서는 교육·훈련 영역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정규교육 외에도 평생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에서 교육과 훈련으로 같이 다루고 있다. 교육 영역도 대부분의 타 시도 사회지표에서 포함하고 있는 영역으로, 영역의 명칭은 대부분 교육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대구만 ‘교육·훈련’으로 작성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교육·훈련 영역의 하위영역은 기회 및 자원, 과정 및 활동, 결과 및 성과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교육 영역의 하위영역은 대부분 기회와 자원, 과정, 교육의 성과로 나뉘어서 큰 틀에서는 거의 동일하며, 5차 개편에서도 하

18) 규칙적인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 지를 측정하는 항목(매일, 일주일 6번, 일주일 5번, 일주일 4번, 일주일 3번, 일주일 2번, 일주일 1번, 한 달에 2~3번)으로 시계열 비교를 위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자 한다.

위영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훈련과 관련된 개별 지표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졌다.

타 시도에서 작성하고 있는 교육 영역 또한 명칭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크게는 교육기회나 자원, 교육과정, 효과나 성과로 구성된다. 지역별 포함되는 지표에 따라 영역을 축소하거나 교육기회와 자원, 교육과정 등을 하위영역과 지표로 적절하게 구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교육기회와 자원은 교육기회가 얼마나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영역으로 취원율, 사교육참여율, 공교육비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과정 및 활동은 적절한 내용으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지, 교육과 훈련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역으로 학교생활이나, 학생당 교원수, 학급당 학생수, 학습동기 등 교육과정에서의 질을 보여주는 영역이다. 그러나 타 시도 작성사례들에서 보면 교육과정보다는 교육자원이나 교육기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급당 교사수나 학생수를 교육자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개별 지표에서는 학급당 학생수, 취학률, 진학률, 학업중단을 지표는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사교육 관련 지표, 학교폭력, 교육비 부담정도, 평생교육 관련 지표를 포함하여 구성하는 사례들이 있다. 교육효과 영역의 경우 별도의 영역을 구성하지 않는 지역도 있지만 별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포함되는 지표들이 학교교육의 효과, 졸업생취업률, 석박사학위 취득자수 정도로 실제 활용 가능한 지표가 많지 않다.

<표 3-17> 교육 영역의 하위 영역 구성 사례

지표명		하위 영역 구성
국가데이터처(사회지표)		기회 및 자원, 과정 및 활동, 결과 및 성과
지역 사회지표	충남, 인천, 강원, 부산	교육기회, 교육조건과 과정(교육자원, 교육환경), 교육효과
	대구	교육기회, 교육과정, 교육자원, 교육성과
	대전, 세종	교육자원(교육여건), 교육기회
	경북	교육기회, 교육환경 및 효과

### 나. 기존 지표체계 검토

전북 사회지표에서 교육 영역은 교육자원, 교육기회, 교육효과의 세 개 하위영역의 12개 지표로 구성된다. 기존의 하위영역을 보면 교육자원과 기회가 비슷한 내용을 측정하는 것이라 교육기회 및 자원으로 하여 하나의 영역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

으며, 교육자원 영역에 포함된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교육과정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교육과정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지표의 신규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 지표 중에서 학교현황이나 학생 및 교원 현황, 사설학원 수 지표는 관련 현황을 보여주고 있어 수치의 증감을 해석하거나 모니터링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교도서관 장서 수는 교육 영역에서 필요한 지표라기보다는 공공도서관 좌석 수나 장서 수와 유사한 지표로 여가 영역에 더 적합하다. ‘사교육 분야, 지출액 및 적정수준’ 지표는 하나의 지표 안에 참여 분야<sup>19)</sup>와 분야별 지출액, 지출규모의 적정 여부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지표로써 요약된 수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교육의 중요성이나 이슈 등을 고려하더라도 기존에 월평균 사교육비 지표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야별 참여율이나 분야별 지출규모는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항목들은 전북사회조사 항목으로 응답자들의 응답부담 또한 매우 큰 항목일 수 있어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지표의 경우 한 개 지표 안에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이용자가 지표명만 보고는 이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 지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교육효과에서 학교교육의 효과보다는 실제 교육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신규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활용 가능한 지표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기존에 포함된 교육환경 만족도와 교육기회 충분성 등의 지표는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에 해당하는 지표로 하위영역의 이동이 필요한 지표이다. 보육환경과 공교육 환경 만족도의 경우 교육과정 영역으로,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 충분도, 평생교육 충분도는 교육기회 및 자원 영역으로 이동이 필요하다.

#### 다. 지표 중요도 전문가 조사 결과

교육 영역의 지표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결과 모두 27명의 응답을 받았고, 결과는 <표 3-18>과 같다. 대다수 지표가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으나 학교현황, 사설학원 수, 학교도서관이나 좌석 및 장서 수, 평생교육 희망 강좌는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였다. 특히, 사설학원 수와 학교도서관 좌석 및 장서 수는 2~3점대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 2023년 조사 기준 분야별 참여율: 학원수강(72.9%), 과외(8.8%), 유치원 및 어린이집(10.8%), 방문학습지(16.1%),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10.1%), 기타(1.9%)

<표 3-18> 타 시도 비교 및 전문가 지표 중요도 조사 결과

하위영역	지표	타 시도 반영 사례	전문가 조사결과	
			평균	표준편차
교육자원	학생 및 교원 현황	5	5.48	1.01
	교사 1인당 학생 수	7	5.59	1.08
	학교현황	8	4.93	1.27
	사설학원 수	2	3.28	1.79
	학교도서관 좌석 및 장서 수	1	2.83	1.60
	가구당 월평균교육비	8	5.96	0.90
	사교육 분야, 지출액 및 적정수준	6	5.04	1.70
교육기회	평생교육 이용실태	7	5.26	1.10
	평생교육 희망 강좌	1	4.70	1.35
	평생교육 기회 충분성	4	5.07	1.17
교육효과	교육·보육환경 만족도, 교육기회 충분성	13	5.44	1.19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	9	5.11	1.45

교육 영역 내 하위영역 구성은 적절하며 보육환경 만족도를 가족·가구 영역의 돌봄에 재배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삭제지표에 대해서는 사설학원 수, 학교도서관 좌석 및 장서 수의 삭제에 동의하였으나 사교육 분야 및 지출액은 유지 의견이 다수 있었다.

추가 지표 의견으로는 교육활동 영역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교육 만족도 및 효과, 보육환경, 장애인·외국인 대상 교육환경, 학교안전, 디지털 교육환경 대응 관련 지표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었다.

### 라. 개편(안)

교육 영역은 기존의 하위영역 구성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이 없고 교육기회와 교육자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내용에 맞도록 교육기회와 교육자원을 하나의 영역으로 구성하고 교육과정 영역을 신규로 구분하였다. 최종적으로 교육기회 및 자원, 교육과정, 교육효과 세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기존 3개 하위영역의 12개 지표에서 3개 하위영역의 15개 지표로 변경하였다(<표 3-19>).

&lt;표 3-19&gt; 교육영역 개편(안)

하위영역	지표	개편내용	비고
교육기회 및 자원	학생 및 교원 현황	삭제	
	학교현황	삭제	
	사설학원 수	삭제	
	학교도서관 좌석 및 장서 수	삭제	
	가구당 월평균 공교육비	지표분리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표분리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사교육 분야, 지출액 및 적정수준	삭제	사교육 참여율로 대체
	사교육 참여율	신규	전북사회조사
	취학률	신규	
	학업중단율	신규	
	교육기회 충분성	유지	하위영역 이동
	평생교육 기회 충분성	유지	하위영역 이동
	평생교육 이용실태	변경	분야별 교육 삭제
	평생교육 희망 강좌	유지	
교육과정	교사 1인당 학생 수	유지	하위영역 이동
	보육환경 만족도	유지	복지영역에서 이동
	공교육 환경 만족도	변경	하위영역 이동
	학교생활 만족도	신규	신규 항목 개발
교육효과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	유지	
	졸업생 취업률	신규	

교육기회 및 자원에서는 기존 지표 중 현황과 관련된 지표인 학생 및 교원 현황, 학교현황, 사설학원 수, 학교도서관 및 장서 수 지표를 삭제하였다. 이 지표들은 수치 변화를 설명하기 쉽게 변경한 것이 아닌 학교 수나 교원 수로만 제시되고 있어 수치의 증감을 해석하는 것이 어렵다. 교육과정 영역으로 이동한 교사 1인당 학생수와도 중복되는 지표이다. 사설학원 수 또한 사설학원의 범위가 다양할 뿐 아니라 정책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부분으로 수치의 증감이 의미하는 바를 찾기 어려워 삭제하였다. 학교도서관 좌석 및 장서 수는 학교에만 한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 장서 수로 하여 여가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지표로 교육 영역에서는 삭제하였다.

신규지표로는 일반적으로 교육기회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인 취학률과 학업중단율 지표를 포함하고자 하며, 기존 지표인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는 지표를 명확화하기 위해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지표를 분리하였다. 또한 응답부담이나 지표

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사교육분야, 지출액 및 적정수준 지표는 삭제하고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지표로 대체하고자 한다. 기존 지표 중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 중 하나인 교육기회 충분성과 평생교육기회 충분성은 해당 영역으로 이동하였다.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이용경험과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추가하여 구성하고, 어디서 교육을 받았는지는 제외하고자 한다. 이 영역에서는 디지털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신규지표가 필요하나, 이와 관련해서 현재 한국의 사회지표나 타 시도에서 작성하고 있는 지표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교육과정에서는 기존 지표 중 교육과정의 질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이동하여 구성하였다.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보육환경 및 공교육 환경 만족도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체감하는 학교생활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학교생활 만족도를 신규로 추가하였다.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타 시도에서도 별도 영역으로 구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별도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여도 학교생활 만족도 지표만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효과는 교육이 얼마나 잘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영역으로 교육의 성과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 영역에서는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 지표를 대부분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졸업생 취업률 지표를 활용한다.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 지표로 많이 사용되는 지표로 자문회의 시 활용도가 낮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지표 중요도 점수가 낮은 편은 아니고, 시계열 변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교육효과를 보여주는 지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지표는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 신규지표로는 졸업생 취업률 지표를 추가하고자 하며, 이 지표는 교육이 실제 취업에 얼마나 연계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전문가 의견으로 제시된 학업성취도, 기초학력미달자 비율 등이 교육효과를 보여주기 적절한 지표이나 현재 시도 단위까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지역사회지표에서 반영하기는 어렵다.

<표 3-20> 교육 영역 신규 지표

지표명	출처	정의
사교육 참여율	전북사회조사 (기존 조사항목)	지난 1년간 학교급별 사교육에 참여한 비율
취학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학교급별 취학적령인구 중 해당 학교급에 취학해 있는 인구의 비율
학업중단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전체 학생 중 학업중단을 한 학생의 비율
학교생활 만족도	전북사회조사(신규)	재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항목별 만족 정도
졸업생 취업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취업통계연보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졸업자 중 취업대상자 대비 취업자의 비율

## 5. 노동(기준: 고용·노사)

### 가. 한국의 사회지표 및 타 시도 지표체계

노동 영역은 우리가 일을 통해 소득을 획득하고, 삶의 기반을 형성하는 것을 보여주는 영역이다. 우리가 어떤 일자리에서 어떻게 일하고, 얼마를 버는지에 따라 삶의 전반적인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통계교육원<sup>20)</sup>, 2018). 타 시도에서도 모두 독립된 영역으로 다루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노동·고용(울산), 일자리와 노동(경기, 경남)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노동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노동 영역은 지표개발 당시 ‘고용·인력’ 영역으로 구분되었으며, 2차 개편 시부터 ‘노동’으로 변경되었다. 5차 개편 시의 주요 방향은 노동 영역의 하위영역 개편과 고령자 노동, 일생활균형, 기술변화에 따른 새로운 고용형태 등 노동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지표개발이다(한준 외, 2019). 노동 영역의 경우 개편 시 하위영역의 변화가 다른 영역에 비해 큰 폭으로 진행되었다(<표 3-21>). 5차 개편 이후 하위영역을 크게 일자리와 근로소득으로 단순화되고, 일자리에 노동력, 일자리분포, 노동시장 이행, 고용의 질, 노사관계가 포함되고, 근로소득에는 임금근로자 소득, 근로시간, 노동비용 및 생산성으로 구분되어 다른 영역에 비해 하위 영역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한국의 사회지표의 노동 영역이 개편 시 마다 하위영역의 변화가 컸던 것처럼 타 시도 사회지표에서 작성하고 있는 노동 영역 또한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고용이나 근로여건 또는 산업과 고용 및 경제활동 등 크게 두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세분화된 지역에서도 하위 영역의 구성을 보면 고용 또는 일자리와 근로여건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표 3-21>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노동 영역 하위 영역의 변화

시기	영역명	하위영역
지표개발('78)	고용·인력	고용구조, 근로시간, 직업선택과 이동, 근로자 자기개발, 안전보호, 노사관계, 비차별대우
1차 개편('87)	고용·노사	동일
2차 개편('95)	노동	고용인력개발, 근로조건, 안전보호, 노사관계, 차별대우
3차 개편('04)	노동	고용인력개발, 근로조건, 안전보호, 노사관계, 취업 관련 주관적의식
4차 개편('12)	노동	인적자원, 취약계층 취업현황, 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 노사관계
5차 개편('19)	노동	노동력, 일자리 분포, 노동시장 이행, 고용의 질, 노사관계, 임금근로자 소득, 근로시간, 노동비용 및 생산성

20) 현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개별 지표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인구, 고용률, 취업률, 실업률 등과 함께 산업 및 직업별 취업자 등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 중 하나인 근로여건 만족도와 일자리 충분도 지표와 함께 구직활동 어려움, 일가정 양립, 지역 내 일자리 확대 분야 등의 지표가,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많은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표 3-22> 노동 영역의 하위 영역 구성 사례

지표명		하위 영역 구성
지역 사회지표	대전	산업현황, 경제활동
	인천	고용, 근로
	부산	경제활동, 고용정책
	강원, 경북, 인천	고용현황, 근로여건
	세종	산업(산업현황), 고용(경제활동, 근로여건, 구직여건, 고용상황)
	충남	인적자원, 고용현황, 임금근로자 근로여건, 비임금근로자 근로여건
	전남	일과 직장, 경제활동, 근로여건
	대구	노동력(경제활동인구, 취업및고용, 사회적 경제), 고용(일자리 질, 근로조건)

### 나. 기존 지표체계 검토

전북 사회지표에서는 고용·노사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노동공급, 노동수요, 근로여건의 3개 하위영역에 10개 개별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공급 영역에는 경제활동인구, 고용률, 실업률 지표가 포함되어 있고, 노동수요에는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과 산업별 구인, 채용, 미충원, 부족, 채용계획 인원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지표는 사업체 기준으로 종사자를 작성한 것으로 노동력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수요 공급으로 구분하기보다는 고용현황으로 하여 하나의 하위영역으로 같이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여건 영역에 해당하는 5개 지표에는 직업선택과 구직 관련 지표, 일가정 양립 관련 인식, 근로여건 만족도가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임금, 근로시간 등의 지표가 현재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다. 지표 중요도 전문가 조사 결과

고용·노사 영역의 지표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결과 모두 25명의 응답을 받았고, 결과는 <표 3-23>과 같다. 산업별 구인·채용·미충원·부족, 채용계획 인원의 모두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영역 구성은 적절하다고 하였으나 임금, 산업재해, 조직노동 지표에 대한 추가 의견도 있었다. 산업별 구인·채용·미충원·부족, 채용계획 인원 삭제에 대해 대부분이 삭제에 동의하였으나 일부는 수정하여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신규지표에 대한 의견으로는 세분화된 근로여건 만족도, 노인·여성 등 특정 계층 대상 노동참여, 일·가정 양립, 고용형태별 비율, 산업안전 또는 재해, 권역 외부지역으로의 출퇴근 여부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표 3-23> 타 시도 비교 및 전문가 지표 중요도 조사 결과

하위영역	지표	타 시도 반영 사례	전문가 조사결과	
			평균	표준편차
노동 공급	(비)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12	6.04	0.84
	고용률 및 취업자 수	11	6.00	0.82
	실업자 및 실업률	10	5.88	0.83
노동 수요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8	5.40	1.29
	산업별 구인, 채용, 미충원, 부족, 채용계획 인원	0	3.88	2.01
근로여건	직업 선택 요인	4	5.32	1.11
	구직활동 유무 및 취업의 어려움	9	5.64	0.86
	일과 가정생활 병행 어려움	4	5.56	1.08
	선호하는 직장 및 취업지원사업	9	5.12	1.13
	직장에 대한 근로여건 만족도(하는 일, 임금, 복리후생, 안정성, 환경 등)	6	5.68	1.11

### 라. 개편(안)

고용·노사 영역은 노동공급, 노동수요, 근로여건의 3개 하위영역에 1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 영역은 개인 삶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지표의 성격에 적합하게 노동 영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하위영역과 지표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노동공급과 관련된 영역을 노동력으로, 지역 내 일자리 분포와 근로여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하나로 묶어서 근로여건 영역으로 구성하여 노동력과 근로여건 두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일자리분포와 근로여건(임금이나 근로시간이 등이 포함)으로 하위영역을 구분하고자 검토하였으나 근로여건에 포함될 근로시간이나 월평균 임금 등의 지표가 시군구 단위로 산출되는 통계가 없고, 별도의 조사항목 구성이 필요한 지표<sup>21)</sup>여서 일자리 분포와 근로여건을 하나의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

21) 한국의 사회지표에서는 노동 영역에서 월평균 임금이나 노동시간이 중요한 지표이나, 시도 단위의 사회지표에서는 작성하고 있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충남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시간 지표가 있으나

다. 기존의 3개 영역 10개 지표에서 2개 영역 12개 지표로 개편하였다.

<표 3-24> 노동 영역 개편(안)

하위영역	지표	개편내용	비고
노동력	(비)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유지	
	고용률 및 취업자 수	유지	
	실업자 및 실업률	유지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삭제	
	산업별 구인, 채용, 미충원, 부족, 채용계획 인원	삭제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	신규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	신규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비	신규	지역별 고용조사
근로여건	직업 선택 요인	유지	
	구직활동 유무 및 취업의 어려움	유지	
	선호하는 직장 및 취업지원사업	유지	
	일과 가정생활 병행 어려움	유지	
	직장에 대한 근로여건 만족도(하는 일, 임금, 복리후생, 안정성, 환경 등)	유지	
	일자리 충분도	신규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

‘노동력’에서는 지역주민의 경제활동 전반을 통해 지역 내 노동력 분포를 보여주고자 한다. 기존에 노동공급 하위영역 지표가 여기에 해당하며, 노동수요에 해당되는 기존 지표는 사업체 중심의 통계여서 이를 개인 중심의 통계로 바꾸고자 한다. 특히 ‘산업별 구인, 채용, 미충원, 부족, 채용계획 인원’ 지표는 전문가 지표 중요도 조사결과 평균이 4점 미만으로 낮을 뿐 아니라 수치의 시계열 변화가 크지 않고, 사회지표로써 수치의 변화가 가지는 의미가 낮다. 지역 내의 취업자의 특성별 분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비 지표를 신규로 포함하였다.

‘근로여건’에서는 지역 내 일자리 분포와 고용의 질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기존 지표들이 지역 내 구직활동이나 취업 관련 인식, 일가정 양립,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지표였으므로 기존 지표들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 중 하나인 지역 내 일자리 충분도 지표를 신규로 추가하였다. 근로여건에서는 저임금근로자 지표 등 노동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도 추가하고자 검토하였으나, 시도 단위로 세분화되는 통계자료가 없어서 신규지표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충남사회조사에서 조사하여 활용하고 있다.

&lt;표 3-25&gt; 노동 영역 신규 지표

지표명	출처	정의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 비율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 비율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비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 비율
일자리 충분도	전북사회조사(기준)	지역 내 일자리 기회가 얼마나 충분한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

## 6. 소득·소비

### 가. 한국의 사회지표 및 타 시도 지표체계

소득·소비 영역은 한국의 사회지표에서는 ‘소득·소비·자산’으로 구분된다. 개인과 가구의 경제적 자원의 크기를 보여주는 영역으로 개인과 가구의 소득을 기반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여 경제적 삶을 영위하며, 현재 또는 미래의 소비를 가능하도록 뒷받침하는 가용자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소득과 자산이다(한준 외, 2019). 경제적 수준은 개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지표의 독립된 영역으로 지속적으로 포함되어 왔다.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소득·소비·자산’의 하위영역은 소득, 자산, 소득분배, 소비와 물가, 저축과 투자, 조세와 재정 6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5차 개편 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에서의 변화 없이 자산을 별도의 하위영역으로 분리하였고, 사회변화를 반영한 개별 지표의 변경으로 개편이 이루어졌다. 타 시도 사회지표에서도 해당 영역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영역 명칭은 ‘소득과 소비’가 가장 많고, ‘소득’으로 작성하는 지역(대구, 광주), ‘소득/소비 및 경제’, ‘소득·소비·자산’으로 작성하는 지역이 각각 한 지역씩 있다. 가구나 개인의 소득, 소비, 자산을 중심으로 측정하고 있지만, 한국의 사회지표에서도 6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것처럼 지역별로 하위영역 구성이 다양하다. 소득과 소비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에 따라 자산, 재정, 투자, 조세, 물가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하위영역 구성에서 있어서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개별 지표로 보면 일부 특성지표를 제외하면 거의 비슷한 지표로 구성된다. 지역 내 총생산, 월평균 소득 및 지출, 부채 및 자산액, 소비자 물가지수, 소득 및 소비생활 만족도 지표가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지표이다. 이외에도 지방세부담이나 조세부담액 지표 등도 일부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 정도나 소득분배 공평성 정도의 지표도

작성하는 사례가 있다. 세종의 경우 ‘전통시장’을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여 지역특성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소득분배의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나 상대적 빈곤율 등의 지표는 시군구나 지역으로 세분화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서 해당 지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 전반적으로 지역 내 총생산과 소비자물가지수를 제외하면 활용하고 있는 통계의 출처가 대부분 지역사회조사이다.

<표 3-26> 소득·소비 영역의 하위 영역 구성 사례

지표명		하위 영역 구성
국가데이터처(사회지표)		소득, 자산, 소득분배, 소비와 물가, 저축과 투자, 조세와 재정
지역 사회지표	대구	소득, 소비와 물가, 자산 및 소득분배
	충남	소득, 지역산업, 조세, 소비와 물가
	세종	소득, 소비와 물가, 전통시장
	대전	소득, 재정, 소비
	인천	소득과 소비, 저축 및 투자, 지역산업
	강원	소득, 소비, 자산, 조세, 공적지원
	경북	소득, 소비, 자산
	전남	가구경제, 물가
	부산	경제활동, 고용정책

### 나. 기존 지표체계 검토

전북 사회지표에서 ‘소득·소비’ 영역은 소득, 소비, 자산, 경제적 행복 4개의 하위 영역에 11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소득은 1인당 지역소득, 월평균 가구소득, 소득여부 및 소득 만족도로 구성되며, 소비는 월평균 생활비,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 소비자물가지수, 소비 만족도로, 자산은 월평균 저축액, 가계의 부채규모, 지방세 부담이 포함된다.

소득수준과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행복한 수준의 월소득액’ 지표의 경우 주관적 지표이기도 하고, 자신의 소득이나 적정 수준의 생활비가 아닌 행복한 수준의 금액으로 지표의 정책적인 활용도가 낮고, 지표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오히려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 중 하나인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정도 지표를 포함하는 것이 전북지역 내에서 취약계층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이 영역의 지표는 아니나 복지 영역에 해당되는 지표인 ‘시군별 저소득층 인구’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지표도 이 영역에서 검토가 필요한 지표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과 소비 관련 지표는 많이 포함하고 있으나, 자산 쪽에 포함된 지표는 저축액과 부채 규모, 지방세 부담의 세 개 지표이다. 지방세 부담의 경우 자산에 포함되는 지표로는 적정하지 않아서 지표 유지 및 하위영역 이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소득분배 관련된 지표가 기존에는 없었으나, 현재는 시군구 저소득층 인구 비율 지표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다. 지표 중요도 전문가 조사 결과

소득·소비 영역의 지표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결과 모두 26명의 응답을 받았고, 결과는 <표 3-27>과 같다. 소득·소비 영역 지표의 대부분이 중요도가 높다고 평가되었으며 특히 월평균 가구 소득, 소득여부 및 소득(소비)에 대한 만족도, 가구당 월평균 생활비, 가구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 가계의 부채 규모 및 이유는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방세 부담, 경제적으로 행복한 수준의 월 소득액, 소비자 물가지수는 중요도가 낮았다.

하위영역은 대부분 적절하다는 의견이었으나 자산 영역을 재정여건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제적으로 행복한 수준의 월 소득액의 삭제와 관련하여 대부분 동의하였으며 이외에도 지방세 부담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신규추가 지표의견으로는 소득격차, 경제적 스트레스 또는 위기 여부, 채테크 또는 투자행태, 농가소득, 소비행태, 사회보험료 또는 세금 부담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었다.

<표 3-27> 타 시도 비교 및 전문가 지표 중요도 조사 결과

하위영역	지표	타 시도 반영 사례	전문가 조사결과	
			평균	표준편차
소득	지역소득 제도부문(개인)별 소득 계정	8	4.85	1.35
	월평균 가구 소득(임금, 이자, 임대료 포함)	14	6.08	1.02
	소득여부 및 소득(소비)에 대한 만족도	12	5.54	0.99
소비	가구당 월평균 생활비	12	5.92	1.09
	가구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가계 소비 중 가장 큰 지출항목)	6	5.50	1.14
	소비자 물가지수	9	3.96	1.94
	소비생활 만족도	10	5.15	1.26
자산	가계 월평균 저축액	3	5.27	1.25
	가계의 부채 규모 및 이유	11	5.73	0.78
	지방세 부담	8	4.12	1.48
경제적 행복	경제적으로 행복한 수준의 월 소득액	0	3.64	1.66

**라. 개편(안)**

소득·소비 영역은 기존의 영역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고, 소득, 소비, 자산 3개의 하위영역과 함께 소득·소비 영역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지방세 부담 등의 지표를 고려하여 하위영역으로 재정을 하나 더 추가하여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가구나 개인의 경제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소득, 소비, 자산, 부채 등에 대한 가구의 경제적 상황과 경제력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지역 내에서의 조세 부담정도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영역 또한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과 소비를 보여주는 영역에 ‘재정’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한국의 사회지표 및 일부 지역의 지역사회지표에서 조세나 재정 관련 하위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루고 있는 주제가 해당 영역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존의 4개의 하위영역 11개 지표에서 4개 영역 14개 지표로 개편하였다.

‘소득’에서는 기존의 1인당 지역소득, 월평균 가구소득, 소득 만족도 지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지역 내 소득분배를 보여주기 위한 지표로 기존의 복지 영역에 포함되었던 지표인 ‘시군별 저소득층 인구’ 지표를 해당 영역으로 이동하였다. 기존 지표인 ‘경제적으로 행복한 수준의 월 소득액’ 지표는 지표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삭제하고,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 중 하나인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지표를 추가하였다. ‘시군별 저소득층 인구’는 저소득층을 보여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와 중복될 수 있는 지표로 삭제하였다.

<표 3-28> 소득·소비 영역 개편(안)

하위영역	지표	개편내용	비고
소득	1인당 지역소득	유지	
	월평균 가구 소득(임금, 이자, 임대료 포함)	유지	
	소득 만족도	유지	하위영역 이동
	경제적으로 행복한 수준의 월 소득액	삭제	
	시군별 저소득층 인구	삭제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신규	전북사회조사 항목
소비	가구당 월평균 생활비	유지	
	가구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	유지	
	소비자 물가지수	유지	
	소비생활 만족도	유지	
자산	가계 월평균 저축액	유지	
	가계의 부채 규모 및 이유	유지	
	가계의 부채 부담도	신규	신규항목 개발
재정	지방세 부담	유지	
	재정자립도	신규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변경	영역이동(복지)

‘소비’에서는 기존 지표를 모두 유지하여 가구당 월평균 생활비, 가구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생활 만족도 4개의 지표로 구성하였다.

‘자산’에서는 기존의 지표인 가계 월평균 저축액과 가계의 부채 규모 및 이유 지표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순자산액 지표가 추가되면 좋으나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고, 가구의 소득과 관련된 조사항목의 응답부담과 정확도를 고려하여 신규로 항목을 추가하지는 않았다. 다만 부채의 경우 절대적인 금액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고, 부채의 이유에 따라 체감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의 부채 부담도 항목을 신규 사회조사 항목으로 추가하였다.

‘재정’에서는 기존의 자산에 포함되어 있던 지방세 부담 지표를 하위영역의 측정 목적에 맞도록 해당 하위영역으로 이동하고, 지역 내의 재정수준을 대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지표인 재정자립도 지표를 신규로 추가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복지 영역에 포함된 지표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표를 해당 영역으로 이동하여 구성하였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를 하나의 표로 구성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시군별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표 3-29> 소득소비 영역 신규 지표

지표명	출처	정의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전북사회조사(기존)	지난 1년간 생계유지를 위해 어려움을 겪은 경험 여부
가계의 부채 부담도	전북사회조사(신규)	부채가 있는 가구에서 부채로 인한 생계에 부담을 느끼는 정도
재정자립도	전북도 행정자료	재정수입의 자체 총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비율

## 7. 주거·교통

### 가. 한국의 사회지표 및 타 시도 지표체계

주거는 개인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인간의 생존요건이자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한 준 외, 2019). 사회지표에서 다루는 주거는 주택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거면적이나 공간뿐 아니라 가격, 입지, 주변환경, 교통수단 등을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주거와 교통을 하나의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한국의 사회지표에서는 주거 관련 영역이 초기에는 ‘주택·환경’ 영역에서 2차 개편(’95년)부터 ‘주거와 교통’으로 변경되었다. 과거에는 교통수단의 발달과 함께 개인들의 삶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반영된 것이나 사회지표에서 다루는 교통은 주거지에서의 교통이용 편리성으로도 충분하기 때문<sup>22)</sup>에 5차 개편(’19년)부터 ‘주거’ 영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주거’ 영역의 하위영역은 주택수급, 주택시장, 주거지불 가능성, 주거적절성의 4개로 구성된다. 주거 영역에서는 주거와 관련된 사회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을 둘러싼 공급과 수요, 가격과 거래량, 점유형태, 주거수준 변화 등 전반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며(한 준 외, 2019), 교통과 관련해서는 주거적절성에 통근시간과 대중교통 만족도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타 시도 사회지표에서 ‘주거’ 영역은 모든 시도에서 ‘주거·교통’으로 작성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 교통 관련 지표들은 거시지표라기보다는 주민들의 편리성이나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편의, 교통의 질, 교통체계 등이 별도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얼마나 세분화하여 구성하는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표 3-30> 주거·교통 영역의 하위 영역 구성 사례

지표명		하위 영역 구성
국가데이터처(사회지표)		주택수급, 주택시장, 주거지불 가능성, 주거적절성
지역 사회지표	강원, 경북	주택공급 및 관리, 주거상황, 주거의 질, 교통시설, 교통체계
	전남, 인천, 부산	주거와 환경(주거상태), 교통자원(대중교통)
	대전	주택수급, 주거상황, 교통편의
	세종	주택수급, 정주여건, 교통편의, 교통수단
	충남	주택공급 및 관리, 주택시장, 교통시설, 역능성, 주거의 질, 교통체계
	대구	주택수급, 주택시장, 주거지불 가능성, 주거적절성, 거주자의 질, 교통의 질

개별 지표로 보면,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인 주거환경 만족도(주택, 기반시설, 주차장 이용), 교통수단 만족도, 지역거주기간 및 정주의사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 주거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는 주택보급률, 주택점유형태, 주택가격지수 등이 주로 많이 활용되는 지표이다. 교통과 관련해서는 통근통학 시간, 주차장 이용(확보), 자동차 등록 현황 등의 지표가 많이 활용된

22) 기존의 교통 영역 지표들은 주로 교통의 투입지표로 도로연장, 이동수단 등 사회지표보다는 경제지표에 가깝게 구성되어 있었다.

다. 지역별로 해당 영역에서 특성지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종시의 경우 공유자전거와 전동킥보드 관련 지표를 자세히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교통문제 해결, 지역 내 주택정책방향 등과 정책 관련 지표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 나. 기존 지표체계 검토

전북 사회지표에서 ‘주거·교통’ 영역은 주거에 해당되는 주택수급, 주거상황, 주택의 질, 교통과 관련된 교통편의인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며, 16개 지표를 포함한다. 주거에 해당되는 하위영역은 모두 3개로 9개 지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교통편의에 해당되는 지표는 7개로 주거와 교통 관련 지표가 비슷한 수준으로 포함된다.

하위영역 구성은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하나 하위영역의 명칭과 지표가 일치하도록 맞출 필요가 있으며, 개별 지표들 중 일부는 사회지표에서 다룰 필요가 없거나 현재의 사회변화에 맞지 않는 지표들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연간 주택 준공 실적 및 분양 실적은 전국과 비교해서 제시하고 있어서 시계열 변화나 수치가 가지는 의미를 해석하기 어렵다. 실제로 연간 주택 준공 실적 및 분양 실적보다는 주택의 노후도나 빈집비율 등이 최근에는 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주거지불 가능성, 주거적절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부족한 편이나, 이를 보여주는 지표는 소득대비 주택가격(PIR),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1인당 주거면적 등의 지표가 주로 활용되나 이 지표들이 공식통계인 주거실태조사에서 시도 단위로만 작성되고 있어 타 시도의 지역사회지표에서도 대부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교통편의에 포함된 지표인 자동차 등록대수나 가구의 교통수단 보유현황 지표의 경우 과거에는 중요한 지표였을 수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사회지표로서 갖는 의미가 없는 지표이다. 최근에는 주차장 확보율이나 통근시간, 대중교통 이용 등이 더 중요한 지표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이용 여부 지표 또한 과거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던 시기에는 정책과 연계하여 변화 추세를 보기 위한 지표로써 의미가 있었겠지만 현재는 자전거 이용 비율의 변화도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수치의 변화가 가지는 의미가 중요하지 않은 지표이다.

### 다. 지표 중요도 전문가 조사 결과

주거·교통 영역의 지표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결과 모두 30명의 응답을 받았고, 결과는 <표 3-31>과 같다. 연간 주택 준공 실적 및 분양 실적, 도로 현황, 자동차 등록대수, 교통수단 보유현황, 승용차 보유대수, 자전거 이용 만족도 및 미이용 이유가 중요도가 낮았다. 대체적으로 교통 편의 영역에서 지표 중요도가 낮았다.

<표 3-31> 타 시도 비교 및 전문가 지표 중요도 조사 결과

하위영역	지표	타 시도 반영 사례	전문가 조사결과	
			평균	표준편차
주택수급	주택보급률	9	5.13	1.48
	주택 유형별 가구 분포	3	5.23	1.10
	현거주지 선택이유	2	5.43	0.97
	현거주지 거주 연수 및 거주 의향	12	5.52	1.45
	주택 소유여부 및 소유 기대기간	0	5.52	1.58
	연간 주택 준공 실적 및 분양 실적	7	4.50	1.31
주거 상황	주택의 점유 형태	5	5.57	0.90
	도시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지수	8	5.13	1.41
주택의 질	주거 환경 만족도	13	6.10	0.84
교통편의	도로 현황	0	4.77	1.50
	자동차 등록대수	8	4.37	1.59
	통학, 통근 시간	6	5.67	0.84
	통학, 통근 주요 이용 교통수단	7	5.66	1.43
	교통수단 보유현황, 승용차 보유대수	1	4.17	1.79
	대중교통 만족도	11	6.07	0.74
	자전거 이용 만족도 및 미이용 이유	1	3.56	2.06

교통수단 보유현황, 자전거 이용 만족도 및 미이용 이유 대해서는 지표의 저조한 이용과 다른 통계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삭제에 동의하는 의견과 최근 자전거 이용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친환경 교통정책 기조와 관련하여 유지하자는 의견이 혼재하였다. 이외 주택 소유여부, 도시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지수, 연간 주택 준공 실적 및 분양 실적에 대한 삭제 의견이 있었다.

추가 지표 의견으로 주택만족도, 개인 이동장치의 이용경험·만족도·안전인식, 주거 기준미달 주택, 빈집 현황, 자가취득 소모기간, 주차시설 만족도, 선호하는 주택유형, 대중교통 이용률 및 만족도가 있다.

### 라. 개편(안)

‘주거·교통’ 영역은 한국의 사회지표에서는 ‘주거’로만 명명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지표에서 교통 관련 지표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주거·교통’으로 영역의 명칭은 유지하고자 한다. 하위영역은 기존 영역을 일부 조정하여 주택수급, 주택시장, 주거의 질, 교통편의 4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여 기존의 4개 영역 16개 지표에서 4개 영역 15개 지표로 개편하였다.

‘주택수급’은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보여주는 영역으로 기존 지표 중 주택보급률과 주택 유형별 가구 분포는 유지하고, 주택 소유여부 및 소유 기대기간과 연간 주택 준공 실적 및 분양 실적 지표는 삭제하였다. 주택 소유여부 및 소유 기대기간은 주택의 점유형태와 유사한 지표이다. 연간 주택 준공 실적 및 분양 실적보다는 최근에 노후주택비율이나 빈집비율 등의 지표가 더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공공 임대주택 재고 수 등의 지표는 공공이 제공하는 주택수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주택시장’은 기존의 하위영역인 주거상황 영역에서 포함하고 있던 지표에 적절하도록 명칭을 주택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기존 지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표 3-32> 주거.교통 영역 개편(안)

하위영역	지표	개편내용	비고
주택수급	주택보급률	유지	
	주택 유형별 가구 분포	유지	
	주택 소유여부 및 소유 기대기간	삭제	
	연간 주택 준공 실적 및 분양 실적	삭제	
	빈집 및 노후주택 비율	신규	주택총조사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신규	국토부 임대주택통계
주택시장	주택의 점유 형태	유지	
	도시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지수	유지	
주거의 질	현거주지 선택이유	유지	
	현거주지 거주 연수 및 거주 의향	유지	
	주택만족도	변경	지표명 변경/지표분리
	주거환경 만족도	변경	기존 지표에서 분리
교통편의	도로 현황	유지	
	자동차 등록대수	삭제	
	통학, 통근 시간	유지	
	통학, 통근 주요 이용 교통수단	유지	
	교통수단 보유현황, 승용차 보유대수	삭제	
	대중교통 만족도	유지	
	자전거 이용 만족도 및 미이용 이유	삭제	
	주차장 이용 만족도	변경	기존 지표에서 분리

‘주거의 질’은 기존에 주택의 질로 작성되던 영역이었으나 주택으로 한정하기보다

는 주거환경까지 모두 포함하는 측면에서 주거의 질로 변경하였다. 기존 지표인 현 거주지 거주 연수 및 거주지역, 주택수급보다는 주거환경의 적절성과 관련될 수 있어 해당 영역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주거환경 만족도 지표에서는 주택 만족도부터 다양한 주거환경 만족도<sup>23)</sup>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지표명만으로는 측정하는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기존의 지표를 주택만족도와 주거환경 만족도로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주거적절성에서 중요한 지표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1인당 주거면적 등이 대표적이거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과 1인당 주거면적은 전북 전체 값은 있으나 시군자료까지 공표되지 않아 전북 내에서 활용도가 낮다. 또한 1인당 주거면적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중요할 수 있으나 시도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을 수 있는 지표이므로 별도로 추가하지 않았다.

‘교통편의’는 기존의 하위영역과 동일하나 기존 지표 중 현재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어 일부 지표를 삭제하였다. 해당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은 거주지역의 교통 편의성이다. 따라서 자동차 등록현황이나 교통수단 보유현황 등의 지표는 교통이용의 편리성과는 관련이 없고, 지표 중요도 조사에서도 평균이 낮게 나타난 지표로 삭제하였다. 자전거 이용 또한 중요하지만 자전거 이용이 얼마나 용이하고 안전한 지역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용 여부만을 측정하여 개인의 선호를 보여주는 지표에 가깝기 때문에 삭제하였다. 그리고 대중교통 만족도와 함께 교통과 관련된 편의성을 보여주는 위한 지표로 기존에 주거환경 만족도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 내 주차장 이용 만족도 지표를 별도로 분리하여 개별 지표로 포함하였다.

<표 3-33> 주거·교통 영역 신규 및 변경 지표

지표명	출처	정의
빈집 및 노후주택 비율	국가데이터처, 주택총조사	재고주택 중 미거주 주택 및 30년 이상된 노후주택 비율
공공임대주택 재고수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	공공부문에서 공급한 임대주택 유형별 재고수(시도자료)
주택 만족도	전북사회조사(기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
주거환경 만족도	전북사회조사(기존)	주거환경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 (녹지공간, 편의시설 접근, 교통편의성, 기반시설)
주차장 이용 만족도	전북사회조사(기존)	주거지역 내 주차장 이용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

23) 녹지공간, 편의시설 접근성, 문화여가시설, 교통편리성, 기반시설, 주거지역 내 주차장 이용

## 8. 여가(기존 여가·문화)

### 가. 한국의 사회지표 및 타 시도 지표체계

여가는 개인이 가정, 노동 및 기타 사회적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휴식, 기분 전환, 개인적 발전,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위한 삶의 영역이다(통계교육원, 2018).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여가’ 영역은 1차 개편(’87년)부터 ‘문화와 여가’라는 개별 영역을 차지했으며, 5차 개편(’19년) 시 ‘여가’ 영역으로 변경되었다. 문화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일 수 있으며, 문화산업이나 문화유산 등과 관련되어 있어 개인이나 가구에 초점을 맞춘 사회지표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한준 외, 2019). 개인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지만 개인을 중심으로 보면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문화향유보다는 여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여가 영역은 여가자원, 여가활동, 여가결과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 실제로 어떠한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가활동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개별 지표로 보면 여가활동에 많은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타 시도에서도 여가 영역은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시도에서 ‘문화와 여가’로 같이 포함하여 명명하고 있으며, 대구는 ‘여가’ 영역으로 강원도의 경우는 ‘주관적 웰빙과 여가’로 영역을 같이 구성하고 있다. 문화와 여가 영역에서 하위영역의 구성을 보면, 인천과 전남의 경우 하위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명칭에서의 일부 차이는 있으나 크게는 여가자원 및 기반과 여가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3-34> 여가 영역의 하위 영역 구성 사례

지표명		하위 영역 구성
국가데이터처(사회지표)		여가자원, 여가활동, 여가결과
지역 사회지표	대구	여가자원, 여가활동, 여가결과
	세종, 대전, 부산, 경북, 강원	여가생활의 기반(문화예술/문화시설), 여가활동 및 활용
	충남	문화여가생활의 기반, 여가활동 및 활용, 문화예술 및 스포츠관람

개별 지표로 보면 ‘여가’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지표가 한정되어 있어 자원에서는 문화재나, 공공체육시설, 문화예술시설 수 등의 지표가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여가 활동에서는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 문화예술 관람 경험, 여가시간, 여가비용 등의 지표가 있으며, 여가생활 만족도나 시간 사용과 관련된 지표도 많이 활용되는 지표이다. 여가 영역에서의 특성지표를 보면, 지역문화예술행사나 축제, 지역 내 관광지 관련 지표 등이 주로 활용되며, 인터넷 이용 관련 지표도 많이 활용된다.

여가 영역의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은 여가활동 만족도와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 항목으로 구성되고, 여가활동은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전반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각각의 만족도로 구성된다.

## 나. 기존 지표체계 검토

전북 사회지표에서는 ‘여가·문화’ 영역으로 구성되며, 인프라, 여건, 참여의 3개 하위영역의 13개 개별지표로 구성된다. 인프라는 문화재 수와 문화예술시설 수로 구성되고, 여건은 여가활용 방법, 평균 여가시간, 문화예술분야 지출로 구성되어 개인들의 여가여건 관련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에서는 다시 활동과 만족도로 나누어져 문화예술 관람 경험, 동호회 활동 관련 지표, 독서 유무, 생활시간 압박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여건’에 포함된 지표와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다. 또한 동호회 관련 지표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 타 지역과 차이를 보인다. 만족도에서는 여가활동 만족도와 함께 지역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참여여부에 대한 지표로 구성된다.

여건과 활동에 해당하는 지표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어 하위영역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여가활동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활동으로 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동호회보다는 여가활동으로 더 관심이 높은 여행경험률, 생활체육 등의 지표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이나 스마트 기기의 활용이 일상화되고, 여가시간에서 활용도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지표의 추가도 필요하다.

## 다. 지표 중요도 전문가 조사 결과

여가 영역의 지표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결과 모두 28명의 응답을 받았고, 결과는 <표 3-35>와 같다. 지표 중요도가 전반적으로 다른 영역보다 낮으며 문화재 수, 문화예술분야 지출, 동호회 활동 경험, 동호회 활동 횟수, 독서 유무 및 분야별 독서량, 지역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대한 견해 등의 지표가 중요도가 낮았다.

관심영역은 적정하며 추가적으로 여가·문화로 영역 명칭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의견과 평균 여가시간 지표를 여가결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문화예술분야 지출 삭제와 관련하여 유지의견이 많았으며 동호회 활동 경험·횟수, 독서 유무 및 분야별 독서량 삭제에 대해 일부 유지 의견이 있었으나 대체로 삭제에 동의하였다. 이외 문화재 수, 생활시간 압박의 삭제 의견도 있었다.

추가로 필요한 지표는 문화예술시설의 접근성·만족도, 타 지역 문화예술 이용실태, 온라인 여가활동, 지역 여가자원 활용도, 여가이용의 경제적 제약, 반려동물 또는 친환경적 여가 등의 의견이 있었다.

&lt;표 3-35&gt; 타 시도 비교 및 전문가 지표 중요도 조사 결과

하위영역	지표	타 시도 반영 사례	전문가 조사결과	
			평균	표준편차
인프라	문화재 수	2	4.14	1.51
	문화예술시설 수	0	5.07	1.46
여건	여가활용 방법	13	5.36	0.99
	평균 여가시간	4	5.86	0.85
	문화예술분야 지출	3	4.64	1.57
참여	문화예술관람 경험	12	5.07	1.12
	동호회 활동 경험	1	3.46	1.71
	동호회 활동 횟수	1	3.08	1.48
	독서 유무 및 분야별 독서량	2	3.62	1.83
	생활시간 압박	11	5.00	1.52
	지역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대한 견해	1	4.79	1.23
	지역 문화예술행사 참석여부, 불만족 이유	3	5.04	1.07
	여가활동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13	5.43	1.29

## 라. 개편(안)

‘여가·문화’ 영역의 영역 명칭은 ‘여가’로 변경하고, 하위영역은 인프라, 여가자원, 여가활동 3개로 구성하여 영역은 동일하나 해당되는 지표만 변경하였다. 여가에 해당되는 지표 중 문화재 수를 제외하면 개인들의 여가활동과 관련된 지표들이어서 영역 명칭에 문화를 추가로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여가활동 만족도는 여가결과에 해당하는 지표이나 이외에 해당되는 지표가 없어서 여가활동 영역에 포함하여 구성하고,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인프라에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기존의 3개 영역 13개 지표에서 3개 영역 15개 지표로 개편되었다(<표 3-36>).

‘인프라’는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및 기반을 보여주는 영역으로, 여가환경이나 제도적인 자원이 포함되고, ‘여가자원’에는 개인적인 자원이나 시간, 제약요인이 포함된다(한준 외, 2019). 기존 지표 중 문화재 수의 경우 문화유산과 관련된 부분으로 개인의 여가향유와 관련이 없으며, 수치의 증감이 지역 내 문화와 여가 관련 정책과도 관련이 낮은 부분이라 할 수 있어 삭제하였다. 그리고 지역에서 공공으로 제공하는 대표적인 여가시설에 해당하는 공공체육시설 수와 공공도서관 수를 포함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인 문화여가시설의 접근성과 충분 정도와 관련된 만족도 지표를 여기에 포함하였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여가자원’에는 여가시간과 문화예술분야 지출 지표가 포함된다. 생활시간 압박 지표 또한 개인들의 가진 여가시간과 관련된 자원에 해당됨으로 여기에 포함하였다.

<표 3-36> 여가 영역 개편(안)

하위영역	지표	개편내용	비고
인프라	문화재 수	삭제	
	문화예술시설 수	유지	
	공공체육시설 수	신규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
	공공도서관 수 및 장서 수	신규	전국도서관통계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신규	전북사회조사
여가자원	평균 여가시간	유지	
	문화예술분야 지출	유지	
	생활시간 압박	유지	하위영역 이동
여가활동	여가활용 방법	유지	하위영역 이동
	문화예술관람 경험	유지	
	동호회 활동 경험*	삭제	
	동호회 활동 횟수*	삭제	
	독서 유무 및 독서량	변경	분야별 삭제
	지역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대한 견해	삭제	
	지역 문화예술행사 참석여부, 불만족 이유	유지	
	여행경험률	신규	신규 조사항목 개발
	스마트기기 사용시간 및 용도	신규	신규 조사항목 개발
	디지털 역량 접근성	신규	신규 조사항목 개발
여가활동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유지	하위 영역 이동	

‘여가활동’은 개인들의 여가생활 향유와 관련된 영역으로 어떠한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용 방법 지표를 해당 영역으로 이동하고 문화예술 관람 경험, 독서유무 및 독서량, 지역문화행사 관련 지표로 구성하였다. 독서유무 및 분야별 독서량 지표의 경우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독서 경험 여부와 전체 독서량만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기존의 지표인 동호회 활동 경험과 횟수의 경우 문화예술 종류별로 각각을 다 조사하고 있어 조사 시 응답부담뿐 아니라 실제로 분야별 동호회 활동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지표는 삭제하고자 한다. 동호회 관련 지표의 경우 여가활동보다는 관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보통은 사회단체 참여율의 하위항목으로 동호회 참여 등이 포함되고 있다.

가장 희망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이나 주말과 휴일의 여가활동에서는 포착하기 어려운 여행경험률(국내와 국외 포함) 지표를 신규로 추가하여 얼마나 많이 여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가시간 활용 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온라인 여가활동과 관련해서 스마트기기 활용시간과 활용 내용을 보여주는 스마트기기 사용시간 및 용도를 신규 지표로 추가하였다.<sup>24)</sup> 또한 여가결과에 해

당하는 지표이나 여가활동의 전반적인 만족도 지표를 이 영역에 포함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표 3-37> 여가 영역 신규 지표

지표명	출처	정의
공공체육시설 수	문화체육관광부 전국공공체육시설현황	간이운동장, 육상경기장, 축구장, 야구장, 수영장 등을 포함하는 주요 공공체육시설의 수
공공도서관 수 및 장서 수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도서관통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민간이 설립한 공공도서관 수 및 보유장서 수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전북사회조사(기존)	문화여가시설의 접근성과 충분 정도에 대한 만족 비율
여행경험률	전북사회조사(신규)	지난1년간 국내여행과 해외여행 경험비율과 일수
스마트기기 사용시간 및 용도	전북사회조사(신규)	하루평균 스마트기기 사용시간 및 이용 콘텐츠
디지털 역량 접근성	전북사회조사(신규)	디지털 활용 역량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상변화에 대한 인식 정도

## 9. 환경

### 가. 한국의 사회지표 및 타 시도 지표체계

인간은 환경에 의존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통계교육원, 2018). 환경은 자연자원뿐 아니라 건강과도 관련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등의 이슈와 관련한 지속가능성의 차원에서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환경’ 영역은 초기에는 ‘주택·환경’으로 하여 주택과 같이 묶여 있었으나, 2차 개편(‘95년)부터 개별 영역인 ‘환경’으로 분리되었다가, 5차 개편(‘19년) 시에 ‘생활환경’ 영역으로 변경되었다.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자연환경이나 자연자원보다는 개인을 중심으로 한 사회통계로 범위를 한정하면서 생활환경으로 영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생활환경’은 오염물질배출, 환경상태, 환경관리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오염물질배출은 폐기물이나 오염물질배출량 관련 지표가 포함되고, 환경상태는 분야별 오염도와 체감만족도로 구성되고, 환경관

24) 한국의 사회지표에는 스마트기기 사용시간 지표가 있으며, 부산/인천/충남(인터넷 이용시간, 인터넷 이용률), 대구(스마트기기 사용시간 및 용도,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 여부)에서도 관련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리에는 상하수도 보급률이나 환경 관련 예산 등의 지표가 포함된다.

타 시도 사회지표에서도 모든 지역에서 ‘환경’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구에서만 ‘생활환경’이라고 명칭하고 있다. 환경 영역에서 다루는 지표들이 환경오염과 체감도, 배출량, 환경보호노력 등으로 유사하지만, 지역에서 따라서 영역을 세분화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에너지 등 자연자원 이용과 환경보호 등의 지표를 포함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다. 지역별로 자연환경이나 오염정도 등이 차이가 크고 이에 따라 중점을 두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도시지역의 경우 1인당 공원면적 지표를 많이 활용하는 반면, 전남의 경우 환경 영역의 지표가 5개로 구성되며, 환경오염 관련 지표는 환경체감도만 있고, 월평균 기온, 강수량 등의 지표가 활용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하위영역으로 자연자원 이용을 별도로 포함하고 있으며, 전남과 마찬가지로 환경오염 관련 지표는 환경체감도만 포함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하위영역도 세분화될 뿐 아니라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이용 관련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노력 관련 지표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개별 지표로 보면, 폐수발생량, 전력소비량, 폐기물 재활용률, 환경오염 방지노력, 대기오염도, 상하수도 보급률 등의 지표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인 분야별 체감환경도 지표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지역특성지표로 주로 환경보호나 관리 측면에서 세분화된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표 3-38> 환경 영역의 하위 영역 구성 사례

지표명		하위 영역 구성
국가데이터처(사회지표)		오염물질배출, 환경상태, 환경관리
지역 사회지표	대구	오염물질배출, 환경상태, 환경관리
	대전	환경압력, 환경상태
	전남	생활환경, 생태환경
	세종, 부산	환경조건(환경자원), 환경압력(환경상태), 환경관리
	인천	환경오염, 환경관리, 에너지, 체감환경
	강원, 경북	자연자원이용, 체감환경 및 환경의식, 오염물질배출, 환경관리
	충남	생태환경, 환경관리, 자연자원 이용, 오염물질배출, 생활환경, 환경오염

### 나. 기존 지표체계 검토

전북 사회지표에서 ‘환경’ 영역은 환경현황, 환경상태, 환경관리의 3개 하위영역에 11개의 개별지표로 구성된다. 환경현황에 자원이용과 환경오염 물질배출 관련 지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환경상태에 대기 오염도와 환경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

의 사회지표나 타 시도의 지표구성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환경현황에서는 폐수 발생량,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지정폐기물 발생량, 전력 소비량, 폐기물 재활용량, 상하수도 보급률 및 급수량, 에너지 소비량 지표가 포함되어 있어 대부분의 지표가 여기에 해당한다. 타 시도의 지표와 비교해 보면 상하수도 보급률은 대부분 환경관리 하위영역에서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많은 지표들이 시군 단위로 작성되고 있지 않아서 세분화 가능 여부와 지표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하수도 보급률의 경우도 전복 수치로만 작성되고 있어 90% 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는데 시군으로 세분화하거나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을 추가하면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 지역 내 현황을 더 정확히 보여줄 수 있다.

환경상태에서는 대기 오염도와 대기, 소음진동, 토양, 수질, 녹지환경의 5개 분야별 환경 만족도만 포함된다. 환경상태를 볼 때 일반적으로 대기, 수질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고 있으나 수질 오염도의 경우 지역사회지표에서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환경 만족도의 경우 현재의 지표명으로는 분야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며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대기 만족도, 수질 만족도 등으로 환경 만족도의 체감 분야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가 강조되고 있어 기후변화 불안에 대한 지표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환경관리 영역에서는 환경문제 해결방안과 환경오염 방지노력의 지표가 활용되고 있다. 환경오염 방지노력은 많이 활용되는 지표이나 환경문제 해결방안은 개인의 노력보다 정책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항목으로 실제 사회지표의 성격과 일치하는 지표가 아니며, 수치의 변화가 가지는 의미가 크지 않으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다. 지표 중요도 전문가 조사 결과

환경 영역의 지표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결과 모두 29명의 응답을 받았고, 결과는 <표 3-39>와 같다. 폐수 발생량, 지정폐기물 발생량, 환경문제 해결방안, 환경오염 방지노력, 전력 소비량은 중요도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

관심영역은 자연환경-탄소배출-기후위기대응으로 분류하는 의견과 전력 소비량, 에너지 소비량을 오염물질 배출로 재배치하는 의견, 환경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층간소음, 오염노출의 신설 의견이 제기되었다. 환경문제 해결방안 삭제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였으나, 환경문제 방지노력 삭제에 대해서는 설문응답을 통한 인식개선 효과 등의 이유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일부 있었다. 추가할 지표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활용, 기후위기, 식품사막화, 소음공해, 수질·토양 오염, 녹지환경 조성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표 3-39> 타 시도 비교 및 전문가 지표 중요도 조사 결과

하위영역	지표	타 시도 반영 사례	전문가 조사결과	
			평균	표준편차
환경현황	폐수 발생량	1	4.79	1.45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6	5.48	1.18
	지정폐기물 발생량	1	4.62	1.35
	전력 소비량	8	4.79	1.24
	폐기물 재활용량	3	5.03	1.27
	상하수도 보급률 및 급수량	8	4.62	1.29
	에너지 소비량	2	5.14	1.09
환경상태	대기 오염도	6	5.76	1.02
	환경 만족도	11	6.03	0.91
환경관리	환경문제 해결방안	3	3.36	1.72
	환경오염 방지노력	11	3.92	1.98

### 라. 개편(안)

환경 영역은 영역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고, 하위영역은 한국의 사회지표나 최근 개편 등의 추세를 반영하여 환경상태, 체감환경, 환경관리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기존의 3개 영역 11개 지표에서 3개 영역 14개 지표로 개편하였다.

‘환경상태’에서는 기존의 오염물질배출과 환경자원이용 관련 영역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주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지표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대부분 지표들이 시군 단위로 세분화되지 않아서 개인이나 가구 중심의 지표가 아닌 거시지표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다. 기존 지표 중 폐수 발생량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포함하고 지정폐기물 발생량 지표는 삭제하였다. 그리고 자원이용과 관련된 지표 중 전력 소비량 지표는 해당 영역에 포함하고 에너지 소비량 지표는 삭제하였다. 기존의 2023년 전북 사회조사에서도 지표 목록은 있으나 실제 통계표로 작성되지 않았고, 타 시도에서도 전력 사용량 지표는 많이 활용되는 지표이나 에너지 소비량은 활용하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 삭제하고자 한다. 환경오염 정도를 보여주는 기존 지표인 대기 오염도를 유지하되, 현재 NO<sub>2</sub>와 PM<sub>10</sub>만 작성되고 있어, 초미세먼지, 오존 등으로 하위항목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지표를 신규로 포함하였다. 도시공원 면적의 경우 매년 큰 변화가 있는 지표는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이다.

&lt;표 3-40&gt; 환경 영역 개편(안)

하위영역	지표	개편내용	비고
환경상태	폐수 발생량	유지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유지	
	지정폐기물 발생량	삭제	
	전력 소비량	유지	
	에너지 소비량	삭제	23년 보고서 미작성
	대기 오염도	유지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신규	도시계획현황
체감환경	대기질 만족도	변경	기존지표 세분화
	수질 만족도	신규(변경)	기존지표 세분화
	토양환경 만족도	신규(변경)	기존지표 세분화
	소음·진동 만족도	신규(변경)	기존지표 세분화
	녹지환경 만족도	신규(변경)	기존지표 세분화
	기후변화 불안도	신규	신규 조사항목 개발
환경관리	환경문제 해결방안	삭제	
	환경오염 방지노력	유지	
	폐기물 재활용량	유지	
	상하수도 보급률 및 급수량	변경	통계표 구성 변경

‘체감환경’은 체감환경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으나, 기존 지표인 환경 만족도는 실제 작성되는 통계표와 일치하도록 분야별 만족도(대기질, 수질, 토양환경, 소음·진동, 녹지환경)로 지표를 세분화하여 작성하여 지표명과 통계표를 일치시켰다. 최근의 환경 관련 주요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불안’ 관련 신규지표를 추가하였다.

‘환경관리’에서는 상하수도 보급률을 해당 영역으로 이동하였고, 전북 전체 값만 보면 90% 이상이기 때문에 시군별 값으로 세분화하여 보여줌으로써 시군별 편차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 지표인 환경문제 해결방안 지표는 정책과 관련된 부분으로 일반인의 인식보다 전문가 의견이나 실제 정책적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지표를 삭제하였다.

<표 3-41> 환경 영역 신규 및 변경 지표

지표명	출처	정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도시공원의 시민 1인당 면적
대기질 만족도	전북사회조사(기존)	거주지역의 대기질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수질 만족도	전북사회조사(기존)	거주지역의 수질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토양환경 만족도	전북사회조사(기존)	거주지역의 토양환경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소음·진동 만족도	전북사회조사(기존)	거주지역의 소음·진동 수준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녹지환경 만족도	전북사회조사(기존)	거주지역의 녹지환경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기후변화 불안도	전북사회조사(신규)	기후변화로 인해 체감하는 불안 정도(심각 정도)
상하수도 보급률	환경부 상하수도 통계	기존 통계표에 놓여촌 지역의 상하수도 보급률 추가

## 10. 안전

### 가. 한국의 사회지표 및 타 시도 지표체계

안전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로 전쟁, 자연재해, 산업재해, 사고, 범죄 등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은 다양하다(한 준 외, 2019).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초기에는 ‘공안’이라는 명칭으로 범죄와 관련된 내용으로만 구성되었으나 ’87년 1차 개편 시 범죄 이외의 사고 관련 지표들이 포함되었으며, 2차 개편(’95년)부터는 영역의 명칭도 ‘안전’으로 변경되었다. 안전 영역의 경우 범죄를 제외하면 환경, 노동, 교통 등 다른 주제 영역과 연관되는 크로스커팅 이슈가 많다. 한국의 사회지표에서는 범죄와 형사사법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자연재해, 안전사고 등을 다루고 있으며 영역의 명칭 또한 5차 개편 시 ‘범죄·안전’으로 변경되었다.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범죄·안전’ 영역의 하위영역은 범죄, 형사사법활동, 사법정의, 재해와 사고, 안전인식 및 평가의 5개로 구성된다. 하위영역 중 형사사법활동이나 사법정의는 지역사회보다는 국가 차원의 지표로 구성된다. 타 시도 사회지표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안전’ 영역을 동일한 명칭으로 다루고 있고, 하위영역의 경우는 좀 더 다양하고 명칭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안전 영역에서 다루는 내용은 대부분 안전의 위협요인인 재난과 재해, 사고, 범죄와 이에 대한 사람들의 안전의식이나 평가가 포함된다.

개별 지표로 보면 재난/재해와 안전사고는 자연재해와 피해, 교통사고, 화재발생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시도 단위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태풍, 호우, 대설, 폭염 등으로 세분화된 경우가 많다. 범죄와 관련해서는 주요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이 주로 활용된다. 안전의식에서는 개인들이 느끼는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와 범죄피해 두려움, 야간보행 두려움 등이 많이 활용된다.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으로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 안전에 대한 평가 지표가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도의 소방안전 현황을 보여주는 경찰 및 소방인력과 장비, 구조/구급 처리 건수 등의 지표가 주로 많이 활용된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산불발생, 가축전염병 등의 지표가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표 3-42> 안전 영역의 하위 영역 구성 사례

지표명		하위 영역 구성
국가데이터처(사회지표)		범죄, 형사사법활동, 사법정의, 재해와 사고, 안전인식 및 평가
지역 사회지표	부산	안전사고, 안전의식
	대전	방법, 방재, 공공행정
	세종	방법, 방재, 안전인식
	강원, 경북, 전남	재난/재해, 안전사고, 범죄, 안전의식(소방안전)
	대구	범죄, 재난, 범죄 및 재난대응, 안전인식 및 평가
	인천	안전사고, 범죄, 안전대응, 안전인식, 사회안전망, 방법
	충남	소방안전, 안전사고, 자연재해, 범죄, 형사사법활동, 안전의식과 평가

## 나. 기존 지표체계 검토

전북 사회지표에서 안전 영역은 범죄, 사건·사고, 사고예방, 안전에 대한 인식의 4개 하위영역에 15개 지표로 구성된다.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재난/재해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는 점 등에서만 차이를 보이고, 필요한 하위영역을 거의 포함하고 있다.

범죄에서는 유형별 범죄발생건수, 소년범죄 발생 비율, 범죄발생 신고건수가 포함된다. 모두 경찰청 통계자료로 시군 단위로 세분화는 되지 않지만, 전국과 대비해서 전북 지역의 범죄 발생을 비교해 본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다만 범죄발생 신고건수는 112 접수 건수로, 범죄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고 건수를 포괄<sup>25)</sup>하고 있어 지역 내 안전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없다.

사건·사고에서는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수, 화재발생 현황, 자연재해 현황이 포함되어 있다. 안전 영역에는 범죄를 제외한 안전사고의 항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자연재해 현황에서는 자연재해 유형별(호우, 대설, 태풍, 강풍, 한파, 폭염)로 이재민과 인명피해, 피해액을 제시하고 있다.

25) 중요범죄, 기타범죄, 질서유지, 교통, 기타경찰업무, 타 기관 항목으로 세분화됨

사고예방에서는 지역 내에서의 소방안전 대응을 보여주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관 및 순찰차량 현황, 소방관 및 소방차량 현황, 화재현장 7분 이내 도착률 지표를 포함한다. 지역사회지표에서 경찰 및 소방인력 장비 수를 포함하는 지역이 많긴 하지만, 인구 수나 지역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어 경찰관이나 소방관 수의 증감으로만 지표를 평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소방관 1인당 인구 수 등으로 변환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

안전에 대한 인식에서는 야간보행 안전도, 범죄피해 두려움, 사회안전 인식도 및 중요도, 공동체 안전, 긴급상황 대처 수준 등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야간보행 안전도와 범죄피해 두려움의 경우 범죄 건수와 연관되는 지표로 ‘범죄’ 하위영역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

### 다. 지표 중요도 전문가 조사 결과

안전 영역의 지표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결과 모두 29명의 응답을 받았고, 결과는 <표 3-43>과 같다. 안전 영역의 지표는 전반적으로 중요도가 높았으나 범죄발생 신고건수, 경찰관 및 순찰차량 현황은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3-43> 타 시도 비교 및 전문가 지표 중요도 조사 결과

하위영역	지표	타 시도 반영 사례	전문가 조사결과	
			평균	표준편차
범죄	유형별 범죄 발생건수	9	5.55	1.09
	소년범죄 발생 비율	6	5.00	1.25
	범죄발생 신고건수	1	3.59	1.91
사건·사고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수	7	5.41	1.12
	화재발생 현황	9	5.24	1.12
	자연재해 현황	4	5.10	1.05
사고예방	경찰관 및 순찰차량 현황	3	4.86	1.22
	소방관 및 소방차량 현황	6	5.00	1.25
	화재현황 7분 이내 도착률	0	5.48	1.24
안전에 대한 인식	야간보행 안전도	4	5.75	1.53
	사회 안전 인식도 및 중요도	10	5.90	0.82
	범죄 피해 두려움	10	5.69	0.93
	본인·가족 범죄피해 두려움	3	5.41	1.18
	동네 사람 및 환경에 대한 느낌	4	5.55	1.15
	긴급상황 대처 수준(재난 등)	7	5.72	1.13

영역 구성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사고예방을 안전서비스로 명칭 변경, 범죄와 사건·사고 통합, 사건·사고와 사고예방 통합, 생활안전 및 자연재해 추가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관심영역의 전체 구성으로 안전위협요인-예방-인식으로 재편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범죄발생 신고건수 삭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삭제 동의하였으며 자연재해 현황, 화재발생 후 7분 이내 도착률 지표를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추가 지표로는 생활안전 여부 및 대응 만족도, 시설안전도, 디지털 범죄 안전의식, 구급/구조/화재 5분 이내 도착률 등의 의견이 있었다.

## 라. 개편(안)

안전 영역은 기존의 4개 영역에서 개별 지표에 적절하도록 하위영역 명칭의 변경과 삭제를 고려하였다. ‘사건사고’는 개별지표와 일치하도록 ‘재해 및 사고’로 변경하였고, ‘사고예방’은 개별 지표와 영역 명칭이 일치하지 않고, 경찰관 수나 소방관 수 지표를 삭제할 예정이어서 하위영역을 삭제하고 지표를 ‘재해 및 사고’로 이동하고자 한다. 안전 영역은 기존의 4개 하위영역 15개 지표에서 범죄, 재해 및 사고, 안전에 대한 인식 3개 하위영역의 13개 지표로 개편하였다.

<표 3-44> 안전 영역 개편(안)

하위영역	지표	개편내용	비고
범죄	유형별 범죄발생 건수	변경	산식변경
	소년범죄 발생 비율	유지	
	범죄발생 신고건수	삭제	
	야간보행 안전도	삭제	조사항목 중복
	범죄피해 두려움	유지	하위영역 이동
	본인·가족 범죄피해 두려움	유지	하위영역 이동
재해 및 사고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상자 수	유지	
	화재발생 현황	유지	
	자연재해 인명 및 재산 피해액	유지	지표명 변경
	화재현황 7분 이내 도착률	유지	하위영역 이동
	산불발생 현황	신규	산림청 산불통계
사고예방	경찰관 및 순찰차량 현황	삭제	
	소방관 및 소방차량 현황	삭제	
안전에 대한 인식	사회안전 인식도	유지	기존지표 분리
	사회안전 중요 분야	변경	기존지표 분리
	지역 내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유지	기존지표 분리
	긴급상황 대처 수준(재난 등)	유지	

‘범죄’에 포함되는 지표는 기존의 유형별 범죄발생 건수, 소년범죄 발생 비율 지

표로 구성된다. 유형별 범죄발생 건수에서는 강력범, 절도, 폭력, 기타 범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기존의 발생건수에서 인구수 대비 발생건수로 수정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범죄발생 신고건수 지표는 119 신고 건수로 여기에는 범죄 이외의 모든 신고가 포함되어 수치 변화의 의미 파악이 어려우므로 삭제한다. 기존에 ‘안전에 대한 인식’에 포함되었던 범죄와 관련된 주관적인 지표인 야간보행 안전도, 범죄피해 두려움, 본인·가족 범죄피해 두려움 지표를 해당 영역으로 이동하였다. 범죄발생 건수에 따라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나 범죄피해 두려움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 같은 영역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다만 야간보행 안전도와 범죄피해 두려움 중 ‘밤에 혼자 골목길을 걸을 때’는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하였다.

‘재해 및 사고’에 포함되는 지표는 기존 지표인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수와 화재발생 현황, 자연재해 현황 지표와 함께 기존에 사고예방에 포함되어 있던 화재현황 7분 이내 도착률 지표를 이동하였다. 자연재해 현황의 경우 하위항목으로 세부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어 더 추가할 필요는 없으며 전북의 경우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자연재해 발생이나 피해가 큰 편은 아니다. 다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발생이 잦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지표를 추가하였다.

‘안전에 대한 인식’ 지표의 경우 기존 지표를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지표의 경우 지표를 분리하였다. 사회안전 인식도 및 중요도는 각 항목별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와 각 항목별 중요도가 모두 한 지표에 포함되어 있어 두 개의 지표로 분리하였다. 동네 사람 및 환경에 대한 인식 또한 지역사람들<sup>26)</sup>과 지역 내 주위환경<sup>27)</sup> 두 개로 나누어서 측정되는 내용이 한 지표에 포함되어 있어 지역 내 주위환경 부분만 지역 내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로 분리하였다. 지역사람들에 대한 내용은 사회통합 영역의 공동체 의식 항목과 일부 중복되는 항목이고,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회통합 영역에 가까워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표 3-45> 안전 영역 신규 지표

지표명	출처	정의
산불발생 현황	산림청 산불통계	산불발생 건수 및 면적 피해 현황

26)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동네 아이가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줄 것이다.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을 해야 한다면 이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27)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주변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지저분하다. 주변에 방치된 차나 빈 건물이 많다. 무리지어 다니는 불량 청소년이 많다.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다. 큰 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본다.

## 11. 사회통합

### 가. 한국의 사회지표 및 타 시도 지표체계

사회통합 영역은 다루고 있는 내용이 포괄적이기도 하고 사회지표의 영역 중 가장 지역 간 차이가 많은 영역이다.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해당 영역의 변화를 보면 2차 개편 이후인 1996년부터 ‘정부와 사회참여’ 영역이 포함되었다가 2012년 개편 시 ‘사회통합’ 영역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영역 이름의 변화 때문에 타 시도의 사회지표에서도 해당 영역의 명칭이 ‘정부와 사회참여’, ‘공동체’, ‘사회참여’, ‘사회통합’ 등으로 다양하나, 최근 작성 기준으로 보면 ‘사회통합’으로 명명하는 지역이 8개 지역으로 가장 일반적이다.

사회통합 영역은 넓은 의미에서 불평등과 차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사회적 관계, 공유된 가치, 공동체 정체성과 결속감,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노력으로 정의된다(한준 외, 2019). 주로 사람들과의 관계와 정치 및 사회참여, 신뢰 및 포용성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한국의 사회지표에서는 5차 지표 개편 시 사회통합 영역의 하위영역을 시민성과 거버넌스, 연대, 포용으로 변경하였으며, 공정성이나 차별 관련 지표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시민성과 거버넌스는 시민사회에서의 의사결정과 합의, 문제해결 과정이 중심이 되며, 연대는 사회적 자본이나 사회참여, 사회적 관계, 신뢰 등이 포함되고, 포용은 사회적 배제와 차별 및 불평등을 측정하는 내용이다.

<표 3-46> 사회통합 영역의 하위영역 구성 사례

지표명		하위영역 구성
국가데이터처(사회지표)		시민성과 거버넌스, 연대, 포용
지역 사회지표	대구	시민성과 거버넌스, 연대, 포용
	강원, 경북	시민성과 거버넌스, 사회적 연대, 포용
	대전	사회적 자본(사회적 경제, 사회참여, 지역사회인식 및 이미지, 공동체 의식 등)
	인천	사회참여, 개인가치, 사회보장, 행정, 지역사회, 사회신뢰, 소통, 공동체, 복지서비스
	충남	사회보장, 역능성, 지역사회, 자원봉사, 기부현황
부산	사회참여, 사회복지, 사회적 소통	

타 시도의 관련 사례를 보면, 사회통합이라는 영역 명칭을 쓰는 지역만을 비교했을 때도 하위영역 구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대구, 강원, 경북 지역에서는 국가데이터처와 거의 유사한 세 개의 하위 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하위영역 중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영역에는 기존의 복지 영역에 해당되는 사회복지 시설, 공적연금 수급 등

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하위영역 구성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지표는 봉사과 기부, 신뢰, 공동체 의식, 지역정체성, 사회적 관계망 등의 지표이다. 이 중 신뢰, 공동체 의식, 사회적 지원은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으로 모든 지역에서 포함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사회통합 영역에 자살률을 포함하는 지역도 있으며, 정치참여 중 하나로 투표율을 포함하는 지역(5개 지역)도 있다. 외국인 비율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관련 지표들을 사회통합에서 다루고 있으며, 사회갈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부패인식, 도정 만족도 관련 지표도 사회통합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 나. 기존 지표체계 검토

전북 사회지표에서 해당 영역은 ‘사회참여’ 영역으로 시민사회, 정부통합과 시민사회 통합 2개의 하위영역의 7개 개별지표로 구성된다. 전문가 조사 시에는 기존에 ‘복지’ 영역에 해당되는 지표 일부를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기존의 하위영역이 정확히 무엇을 측정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지 않아 측정하는 내용에 맞게 하위영역의 명칭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지’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들이 이동하면 사회보장이나 복지 관련 하위영역을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과 포용 하위영역에서 이들 지표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기존의 ‘사회참여’ 영역에 포함된 7개 지표 중 공무원 1인당 도민 수, 기부 여부, 유형, 기부금액, 자원봉사 연간 참여 횟수, 1회당 평균 시간 지표를 제외하면 나머지 지표들은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에 포함된 지표들이다. 타 지역에 비해서 해당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지표 수가 적은 반면, 기부나 자원봉사는 횟수, 유형, 시간, 금액 등 매우 세분화하여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사회통합 영역에서 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회단체 참여나 정치참여 등의 지표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이나 공정성, 차별 등을 보여주는 지표의 추가가 필요하다.

전문가 조사 시 기존의 ‘복지’ 영역의 지표 일부(9개)는 ‘가구·가족’ 영역에 포함하여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지표검토 과정에서 ‘가구·가족’ 영역보다는 사회통합 영역에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여 사회통합 영역에서 검토하였다. 다문화 가구 인식과 성차별 여부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보호, 차별 등의 측면에서 사회통합 영역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 나머지 지표는 사회서비스 만족도와 노인복지와 관련된 부분이다. 기존에 복지 영역에서 다루고 있던 지표들이 취약계층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노인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노인인구 비율이 많기 때문에 노인 관련 복지서비스나 삶에서의 문제점 등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나 전북도의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사회통합 영역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와 같이 포함하여 구성하고자 한다.

#### 다. 지표 중요도 전문가 조사 결과

사회통합 영역의 지표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결과 모두 26명의 응답을 받았고, 결과는 <표 3-47>과 같다. 공무원 1인당 도민 수, 자원봉사 연간 참여 횟수 및 1회당 평균 시간, 기부 여부·유형·기부금액,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현황, 사회복지 생활시설 수 및 평균 생활 인원, 국민연금 가입자, 장애인 거주시설 수 및 생활자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았다. 이는 사회통합 영역의 지표 13개 중 7개에 해당하여 해당 영역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표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과 관련하여 사회통합 분야와 포용 간 연계성이 부족하며, 복지 영역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역사회 또는 시민성과 참여 및 연대 영역 내 지표들의 재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자원봉사 횟수 시간, 기부 여부·유형·기부금액의 삭제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삭제에 동의하였으나 일부는 사회참여와 연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지표를 간결히 정비하여 유지하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이외 일반인에 대한 신뢰, 국민연금 가입자, 지자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율, 사회복지 생활시설 수 및 평균 생활 인원의 삭제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추가 지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영역에 행정서비스 만족도, 지역사회 소속감, 이웃 간 신뢰 지표의 추가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 참여 및 연대 영역에는 사회적 외로움, 지역 문제해결 참여경험 또는 의향, 지역현안 인식수준 지표의 추가를, 포용 영역에는 외국인 수용성,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자 대비 공무원 수 지표의 추가를 제안하였다.

<표 3-47> 타 시도 비교 및 전문가 지표 중요도 조사 결과

하위영역	지표	타 시도 반영 사례	전문가 조사결과	
			평균	표준편차
시민사회-정부통합	공무원 1인당 도민 수	5	4.32	1.87
시민사회통합	지역민으로서의 지역정체성	10	5.77	0.95
	일반인에 대한 신뢰	14	5.50	1.27
	공동체 의식	13	5.65	0.94
	자원봉사 연간 참여 횟수, 1회당 평균 시간	11	3.96	1.88
	기부 여부, 유형, 기부금액	11	3.60	1.82
	사회적 지원	12	5.46	1.65
공적부조 (기존 복지 영역)	지자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율	3	5.31	1.52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현황	1	4.85	1.52
	사회복지 생활시설 수, 평균 생활 인원	6	4.50	1.45
	국민연금 가입자	3	4.73	1.61
	장애유형별 장애인 수	5	5.00	1.52
	장애인 거주시설 수 및 생활자	2	4.69	1.49

## 라. 개편(안)

사회통합 영역에서는 영역 명칭과 하위영역 구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있었다. 사회참여에서 사회통합으로 영역 명칭을 변경하면서 기존의 복지 영역에서 다루지던 취약계층 복지 관련 지표를 포함하였다.

기존의 2개 하위영역에서 최근 사회통합 영역의 개편 내용을 고려하여 지역 복지여건, 포용, 시민참여, 연대의 4개 하위영역으로 변경하였다. 지역 복지여건 지표의 경우 지역 내 복지정책과 관련된 지표로 투입지표의 성격을 띠고 있어 국가데이터처의 사회지표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전북 지역의 경우 기존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 결과를 비교해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취약계층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또한 전북도 도정 현안 여론조사 결과 가장 관심이 많은 정책분야는 보건복지 정책이며, 우선 추진과제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여 현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복지 영역에 포함된 일부 지표를 이동하여 모두 4개 영역의 18개 지표로 개편하였다.

기존 복지 영역의 돌봄 관련 일부 지표들의 경우 지표 중요도 조사는 ‘가구·가족’ 영역에서 이뤄졌지만 실제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지표 등 사회통합 영역으로 이동이 필요한 지표가 많이 있었다. 사회서비스 만족도, 성차별 여부, 노인이 겪는 가장 어려운 점, 노인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는 사회통합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하였다. 보육시설 이동 수는 유치원이 제외된 수치로 시설 수가 가지는 의미가 없어서 삭제하였고, 여성경제활동 참여율 관련 지표는 고용 영역에 포함되어 있어 삭제하였다.

‘지역 복지여건’ 하위영역에서는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를 다루고 있어 주로 기존의 ‘복지’ 영역의 지표가 대부분 포함되었다. 사회복지 예산이나 담당 공무원과 함께 사회복지 서비스 지표를 포함하였으며, 노인과 관련된 지표가 포함되었다.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 지표는 소득·소비 영역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표이나 조사연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사회통합 영역에 우선 포함하였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지표는 실제 사회지표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표라기보다는 관련 정책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도가 낮아 삭제하였다.

‘포용’ 하위영역은 소수집단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사회의 포용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장애유형별 장애인 수, 다문화 가구 인식 정도, 성차별 여부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고자 한다. 사회조사 항목 개발 시 외국인뿐 아니라 전북 내에서 관심 있는 소수집단에 대한 항목을 같이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시민참여’ 하위영역에서는 기존의 사회참여와 함께 정치참여를 보여줄 수 있도록 기존의 자원봉사 참여율과 기부 참여율 지표와 함께 정치참여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투표율 지표를 신규로 추가하였다.

<표 3-48> 사회통합 영역 지표 개편(안)

하위영역	지표	개편내용	비고
지역 복지여건	공무원 1인당 도민 수	삭제	
	지자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율	유지	
	사회복지 공무원 1인당 수급자 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현황)	변경	지표산식, 지표명 변경
	국민연금 가입자	삭제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유지	영역 이동(복지)
	노후의 생활비 마련 방법	유지	영역 이동(복지)
	노인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유지	영역 이동(복지)
	노인이 겪는 가장 어려운 점	유지	영역 이동(복지)
	노인복지시설 확충	삭제	
포용	장애유형별 장애인 수	유지	
	장애인 거주시설 수 및 생활자	삭제	
	다문화 가구 인식 정도	유지	영역 이동(가구가족)
	성차별 여부	유지	영역 이동(복지)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신규	신규 조사항목 개발
시민참여	투표율	신규	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자원봉사 참여율	변경	유형별 참여여부 /지표명 변경
	기부(후원) 참여율	변경	기부유형/ 지표명 변경
연대	지역민으로서의 지역정체성	유지	
	일반인에 대한 신뢰	유지	
	공동체 의식	유지	
	사회적 관계망	유지	지표명 변경
	외로움 경험률	신규	신규 조사항목 개발
기존 복지 영역	선호 장례방법	삭제	
	보육시설 수 및 아동 수	삭제	
	여성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삭제	

‘연대’ 하위영역에는 지역사회 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와 공동체를 보여주는 지표를 포함하였으며, 기존 지표인 지역정체성, 일반인에 대한 신뢰, 공동체 의식과 함께 사회적 관계망(기존 지표명: 사회적 지원) 지표가 포함된다.

<표 3-49> 사회통합 영역 신규 지표

지표명	출처	정의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전북사회조사(신규)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장애인 등과의 사회적 거리감
투표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율 분석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의 투표율
외로움 경험률	전북사회조사(신규)	평소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

## 12. 주관적 웰빙

### 가. 한국의 사회지표 및 타 시도 지표체계

주관적 웰빙 영역은 개인들의 주관적인 만족도 관련 항목으로 기존에는 별도의 독립된 영역으로 구성되기보다는 삶의 만족도 관련 항목만 사회통합이나 사회참여 영역에 포함되었다. 2010년 이후 주관적 웰빙 측정에 대한 중요도가 부각됨에 따라 OECD에서 주관적 웰빙 측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보고서(OECD, 2013)를 발간하였고, 한국의 사회지표에서는 2019년 지표 개편 시 별도의 독립된 영역으로 포함되었다. 국가데이터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인 ‘한국의 사회동향’에서도 2021년부터 별도의 독립된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타 시도에서는 5개 지역(대구, 광주, 울산, 충북, 제주)에서 주관적 웰빙이나 삶의 만족도를 독립된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주관적 웰빙 영역에 포함하는 지표는 5개로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 부정정서, 삶에 대한 가치, 삶의 자유로 구성된다.

### 나. 개편(안)

기존의 삶의 만족도 항목은 2024년에는 가구·가족 영역에 포함하여 조사되었고, 2023년에는 특성항목에 포함되어 조사되었다. 지표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은 가구·가족 영역과 함께 이루어졌고, 응답결과 평균 6.44점으로 중요도는 높게 나타났다. 전북사회조사에서 측정되는 조사항목은 삶의 만족도, 지역생활 만족도, 긍정정서, 부정정서 4개 항목이나 현재는 ‘삶에 대한 만족도’에 4개 지표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지표명과 통계표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변경된 개편 내용에서는 기존의 조사항목을 활용하여 4개의 지표 각각에 대해 작성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한국의 사회지표와 비슷하게 삶의 가치나 삶에서 선택의 자율성 등의 지표가 포함되면 좋을 듯하나 신규 조사항목이 추가되어야 하고 주관적 인식과 관련된 부분이라 노인 집단에서의 응답이 실제로 어려울 수 있어 이번 개편에서는 신규 지표로 포함하지는 않았다.

<표 3-50> 주관적 웰빙 영역 지표 개편(안)

지표	개편내용	비고
삶에 대한 만족도	유지	
지역생활 만족도	유지	기존 지표 분리
긍정정서 경험	유지	기존 지표 분리
부정정서 경험	유지	기존 지표 분리

## 제 4 장

# 사회조사 작성체계 개편

### 제1절 사회조사 항목 변경 사항

#### 1.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 영역 반영

전북의 사회조사는 앞서 검토하였듯이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공통항목 조사영역과 현재 불일치하여 일부 항목의 경우 매년 조사가 진행되면서 응답항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23년과 2024년의 사회조사 항목 수를 비교해 보면 2023년의 조사항목이 모두 94개 정도이다. 홀수연도에는 고용이나 소득 관련 영역의 조사항목이 없어도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에 해당하는 일자리 충분도, 소득 만족도, 생계유지 어려움 정도 항목을 추가로 조사한다. 짝수연도에는 기존의 홀수연도 조사 항목인 야간안전 두려움과 지역안전도 인식, 환경체감도, 의료기관 만족도 항목을 반복해서 조사한다.

관련된 주제 및 영역과 함께 조사항목을 구성하고, 조사항목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북사회조사의 연도별 조사영역 구성을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 영역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 중 주관적 웰빙과 월평균 가구소득은 매년 조사하는 항목으로 이 항목은 별도의 영역으로 구성하지 않고, 일반사항에 포함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교육 정도, 근로 여부, 직업, 종사상지위 등의 항목은 기본적으로 하위집단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항목이다. 따라서 관련된 하위영역에 포함하는 것보다 매년 조사되는 일반사항에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기존의 전북사회조사 항목 안에서 매년 조사하는 항목들은 일반사항으로 구분하고 이외에 영역들은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에서 제시하는 영역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복지, 가구·가족 영역은 최종적으로 항목 수와 관련 주제를 고려하여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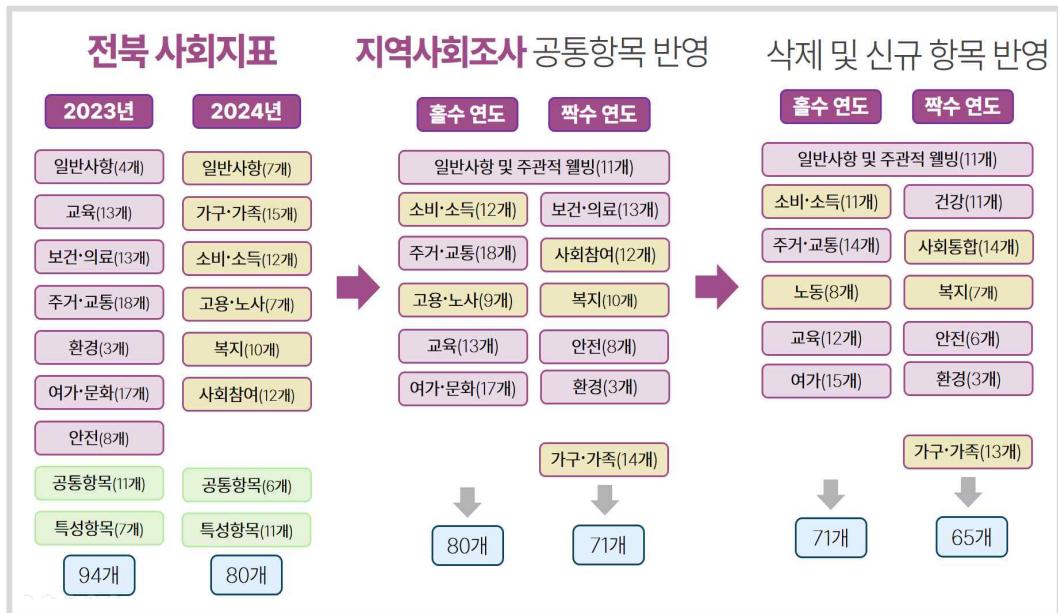
이렇게 하여 구성된 변경된 영역 구성을 보면 <그림 4-1>과 같다.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 영역을 고려하면 짝수연도에 해당되는 영역은 건강, 사회통합(사회참여 및

복지에 해당), 안전, 환경 영역이다. 기존 전북사회조사에서 짝수연도 조사영역인 사회참여와 복지 영역은 기존과 동일하고, 홀수연도 조사영역인 보건의료, 안전, 환경 영역이 짝수연도로 이동해야 한다.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의 홀수연도 항목은 소득·소비, 주거·교통, 노동, 교육, 여가 영역으로 모두 다섯 개 영역이다. 기존의 전북사회조사에서 홀수연도 영역인 주거·교통, 교육, 여가·문화 3개 영역이 기존과 동일하고, 소득·소비와 고용·노사 영역이 짝수연도에서 홀수연도로 이동해야 한다.

이렇게 이동하고 나면 기존의 ‘가족·가구’ 영역만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 영역에 해당되지 않아 남게 되어 해당 영역은 기존에 조사되던 짝수연도에 남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을 기준으로 배치했을 때 영역별 조사항목 수도 홀수연도보다는 짝수연도의 항목이 더 적게 나타나 전체 항목수도 고려하였다. 항목수를 고려할 때 일반사항에 반영된 항목인 경제활동이나 소득 관련 항목은 해당 영역 항목 수에서는 제외하였다.

기존의 사회조사를 재배치 한 이후 특성항목을 구성하기 전의 조사항목을 보면 홀수연도는 80개 항목, 짝수연도는 71개 항목으로 특성항목을 제외했을 때 짝수연도의 경우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홀수연도의 항목 수는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장의 영역별 지표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삭제항목과 신규항목을 구성한 영역별 조사항목 수는 홀수연도 71개, 짝수연도는 65개이다.



<그림 4-1>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 및 지표개편 결과를 반영한 전북사회조사 변경안

## 2. 일반사항 관련 항목

전북사회조사에 매년 포함되는 조사항목인 일반사항을 보면, 조사표 앞 부분에는 생년월일, 혼인상태 및 맞벌이 여부, 교육수준과 짝수연도에는 경제활동과 직업, 종사상지위 및 근로형태를 묻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짝수연도 조사 시 일반항목에 포함되는 고용 관련 조사항목은 홀수연도에는 고용·노동 영역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이외에도 조사표 앞쪽 조사원 작성 항목에는 성별, 가구주와의 관계, 거처종류, 점유형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조사에서 최소한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배경항목은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28)</sup>

다만, 현재 홀수연도에만 조사되고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이유’ 항목은 기본배경변수로 매년 경제활동 관련 변수들과 같이 조사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소득 영역에서가 아니라 가구주 응답항목으로 일반항목과 같이 구성하여 매년 조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에 표지에 포함된 가구원 사항과 가구주 항목을 제외하고, 기존 일반사항과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의 매년 조사항목을 모두 합치면 11개 항목이다. 조사표상 항목 배치에 있어서는 주관적 웰빙 항목만 조사표의 맨 앞에 위치하고 나머지 항목들은 조사표의 맨 뒤에 배치하는 것을 권고한다. 주관적 웰빙 항목은 주관적인 부분으로 다른 항목이나 측정 내용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항목이다.<sup>29)</sup> 조사원과의 라포 형성 없이 바로 질문하는 방식이 가장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경제활동이나 소득수준, 혼인상태 조사항목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처음에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을 질문하는 것이 적절하다. 조사표 표지에 가구현황과 함께 조사되는 거처종류와 점유형태 항목도 뒤쪽으로 배치하여 다른 일반사항 항목과 같이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배치하면 매년 조사되는 일반항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될 수 있다. 조사표 표지에서 제시되는 조사원 기입사항과, 조사표 맨 앞의 주관적 웰빙, 조사표 맨 뒤쪽의 배경항목이다.

조사표 표지에는 조사대상을 선별할 수 있도록 성,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등이 포함된 가구현황과 조사원이 이 과정에서 입력할 수 있는 거처종류와 세대구분이 포함될 수 있으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당 조사표의 조사방법(면접, 자기기입, 인터넷)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모두 조사원 기입 사항이다.

28) 2023년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회조사를 검토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배경항목 표준화 안을 제시하였다. 세부항목은 <부록> 4.에 제시되어 있다.

29) OECD에서 발간된 주관적 웰빙 측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주관적 웰빙 항목은 다른 항목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조사표 위치가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중간에 배치할 때는 다른 항목과의 공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조사표 앞쪽에 위치는 것이 바람직하여,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여주는 소득수준, 결혼유무, 경제활동 등의 항목 다음에는 배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시한다(OECD, 2013).

조사표 가장 앞쪽 조사표 기입요령 다음에 제시될 항목은 주관적 웰빙의 4개 항목(삶의 만족도, 지역 생활 만족도, 행복, 걱정)으로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다. 주관적 웰빙 이후에는 영역별 조사항목, 시군 특성항목이 위치하고, 나머지 일반사항 항목은 모두 조사표의 맨 뒤에 위치한다. 일반항목은 가구원 항목과 가구주 항목으로 구분되고, 월평균 가구소득, 점유형태는 가구주 항목에 포함된다. 다만 조사표 구성상 경제활동 관련 항목은 고용·노사 영역의 항목들과 선행항목이 연관되기 때문에 고용·노사 영역이 조사되는 홀수연도에는 해당 영역으로 위치를 이동하여 조사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표 4-1> 일반사항 조사항목 구성안

조사표 상 위치	항목
표지	가구현황(성별,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조사 여부), 거처종류, 세대구분, 조사 방법(면접, 자기기입, 인터넷)
조사표 앞쪽	주관적 웰빙
조사표 뒤쪽	가구주 항목: 점유형태, 월평균 가구소득 개인 항목: 생년월일, 혼인상태, 맞벌이 여부, 교육정도, 경제활동, 직업, 종사 상지위, 근로형태, 일을 하지 않은 이유

### 3. 짝수연도 조사항목 변경사항

매년 조사되는 일반사항 조사항목을 제외하면 짝수연도에 조사되는 영역은 건강(보건의료), 사회통합(사회참여), 복지, 안전, 환경, 가구·가족 모두 6개 영역이다. 각 영역별로 4장에서 검토된 지표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항목을 삭제 또는 항목의 변경을 하였으며, 신규항목을 추가하였다.

기존 전북사회조사에서 포함하고 있었던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을 제외한 특성항목(청년층 부채, 생활비, 재테크 관련 항목)은 조사항목 검토에서는 제외하였다.

#### 가. 건강 영역

건강 영역은 기존의 보건의료 영역에서 변경된 영역명칭을 반영하였다. 기존의 전북사회조사에서 보건의료 영역의 조사항목은 모두 13개 항목이나 내용으로 보면 운동과 의료기관 이용 및 수면시간, 자살충동 관련 항목으로 구성된다. 특히 운동과 관련된 항목은 하위항목까지 포함하면 모두 6개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검토 결과, 건강 영역의 경우 운동 관련 세부항목이 삭제되고, 의료기관 이용 관련



### 나. 사회통합 영역

사회통합 영역은 기존의 사회참여 영역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사회참여 영역의 기존 조사항목 수는 모두 12개로 사회적 지원, 자원봉사와 기부, 지역소속감 및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인 일반인신뢰, 공동체의식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조사항목은 대부분의 사회조사 항목에서 일반적으로 조사되는 항목으로 추가로 삭제할 항목은 없으며, 다만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1년간 참여 여부를 묻고 난 이후에 세부항목을 묻는 방식으로 조사표 구성의 변경과 결과표 작성 시에도 전체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제시한 이후에 항목별 비율이 제시되어야 한다. 사회통합 영역은 삭제지표는 없으며, 신규항목 2개를 추가하여 기존의 12개 조사항목에서 14개로 조사항목이 증가하였다.

<표 4-4> 사회통합 영역 조사항목 변경안 (12개 → 14개)

구분	조사항목
유지(12개)	사회적 지원, 도움별 지원 3개, 자원봉사 횟수 및 시간 8개, 자원봉사 참여의사, 자원봉사 미참여 이유, 현물기부 여부, 기부유형, 기부경로 및 횟수, 미기부 이유, 지역소속감, 일반인신뢰, 공동체의식 4개
신규(2개)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외로움 경험률

주: 밑줄 친 지표는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임

사회통합 영역의 신규지표 중 조사로 작성하는 지표는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와 외로움 경험률이다.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는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 등을 포함한 소수집단에 대한 전북 지역의 포용성을 보여주는 항목으로 하위항목 구성은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 가족 등을 추가하여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외로움 경험률은 주관적인 측면의 사회적 연결이나 고립 정도를 보여주는 항목으로 객관적 측면과는 다를 수 있다. 최근에 외로움이나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에 대한 측정사례가 국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OECD, 2025). 외로움 측정 항목의 경우 기존에 개발된 척도 등이 있지만,<sup>30)</sup> 응답부담을 고려하여 단일항목으로만 추가하였다.

<표 4-5> 사회통합 영역 신규 조사항목 지표 정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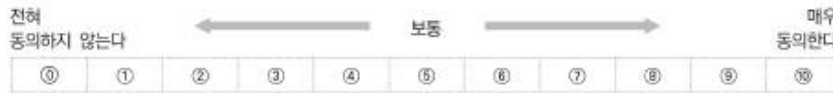
구분	조사대상 및 정의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가구원 대상)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 가족 등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의 포용 정도 (사회적 거리감 척도 활용,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정도 등을 활용할 수 있음)
외로움 측정	(가구원 대상) 개인이 평소 느끼는 외로움의 정도

30) 외로움 측정 척도는 UCLA 외로움 척도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20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를 활용하여 항목 수를 조정하여 활용되고 있다(우한수와 남상민, 2025)

<신규항목: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귀하는 외국인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항 목	받아들일 수 없음	나의 이웃이 되는 것	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1)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2) 조손/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	①	②	③	④	⑤
(3)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①	②	③	④	⑤

(제주사회조사)

다문화 관련 인식

41 아래 각 항목은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귀하는 아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항목별로 해당되는 번호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사회적 다양성(언종, 종교, 문화, 언어)이 제주도의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 외국인은 제주에 체류하는 동안 모국의 전통이나 생활습관을 버려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외국인 이주자나 소수민족 집단의 문화, 언어, 풍습을 보전하기 위해 제주도가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제주사회는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없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국내 근로자와 같은 노동법적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한국인의 임금이 낮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7) 외국인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외국인이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신규항목: 외로움 경험률>

귀하는 평소에 얼마나 자주 외롭다고 느끼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가끔 그렇다 ④ 자주 그렇다

### 다. 복지 영역

복지 영역은 개편과정에서 사회통합과 가족·가구 영역 등으로 재편되어 별도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기존 조사항목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별도로 구성하였다. 복지 영역의 기존 조사항목 수는 모두 10개 항목으로 성차별 인식과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노인과 관련된 항목이 대부분이다. 이 중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를 묻는 항목은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이다. 검토결과, 삭제항목은 3개로 조사항목 수는 10개에서 7개로 변경되었으며, 조사표 구성 시에는 사회통합 영역에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표 4-6> 복지영역 조사항목 변경안 (10개 → 7개)

구분	조사항목
유지(7개)	사회통합 영역 : 성차별 인식 정도_4개,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2개, 노인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노인이 체감하는 문제, 노후준비 여부, 노후준비방법, 노후준비계획
삭제(3개)	선호하는 장례방법, 우리시가 관심을 두어야 할 사회복지 대상, 노인복지시설 확충

주: 밑줄 친 지표는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임

복지 영역의 조사항목 중 삭제 검토 중인 지표는 모두 3개로 선호 장례방법, 사회복지 대상, 노인복지시설 확충 지표이다. 기존 지표들은 대부분 사회통합으로 포함될 수 있으며, 성차별 인식 정도는 포용 영역에 포함되며,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는 지역복지여건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이외에 나머지 지표는 노인 관련 지표로 희망하는 복지서비스와 노인의 체감하는 문제는 지역복지여건에 포함하였다.

노인의 노후준비와 관련된 부분은 경제적 측면에서 노후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묻는 항목으로 대상은 노인에 한정되어 있지만, 주제는 소득·소비 영역과 관련되어 소득·소비 영역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조사표 구성에서 흡수연도 조사인 소득·소비 영역으로 이동하여 조사가 이루어져서, 노인 대상 다른 조사항목(희망하는 복지서비스, 노인이 체감하는 문제)과의 연관 분석이 불가능하기 하기 때문에 노인이 겪는 문제와 서비스 등과 연관하여 본다는 측면에서 사회통합 영역에 포함하여 지역복지여건 하위영역에 포함하였다.

### 라. 안전 영역

안전 영역은 기존 흡수연도에 해당하며 조사항목은 모두 8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조사항목은 야간보행 등 범죄피해 관련 두려움과 전반적인 사회안전 인식, 지역안전환경 인식, 긴급상황 시 대처수준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은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항목 두 개이다. 검토결과 안전 영역에

서 삭제항목은 야간보행 불안 항목과 지역주민 평가 항목(또는 일부 하위항목)이며, 신규항목은 없어서 변경 이후 조사항목수는 기존 8개에서 6개로 축소되었다.

<표 4-7> 안전영역 조사항목 변경안 (8개 → 6개)

구분	조사항목
유지(6개)	야간보행 불안이유, 사회안전 인식도 및 중요 분야 11개, 범죄피해 두려움 2개, 범죄 피해 두려움 대상별 3개, 지역환경 인식 6개, 긴급상황 대처수준 4개
삭제(2개)	야간 집근처 혼자 걷기 두려운 곳 여부와 이유, 지역주민평가 7개(거주지역 사람들에 대해 평소 느낀 점)

주: 밑줄 친 지표는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임

안전 영역의 지표검토 시 별도로 삭제하거나 신규로 추가될 지표는 없지만, 기존 전북사회조사의 안전 영역 조사항목과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과의 내용상 중복으로 인해 유사한 항목이 조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삭제나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 4-8>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기존의 항목은 ‘밤에 집 근처 혼자 걷기 두려운 곳이 있는지와 그 이유’를 묻고 있고,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에서는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와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얼마나 두려운지를 5점 척도로 묻고 있다. 척도에서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동일한 내용을 묻는 항목으로 두 항목을 모두 조사할 필요는 없다. 두려움 원인은 필요시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에서 ‘두려운 편이다 또는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다. 기존 시계열 유지를 위해서는 기존의 항목을 그대로 가져가야 하지만, 두려움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CCTV나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현재 보기항목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sup>31)</sup>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항목은 ‘지역 사람들에 대한 느낌(7개 항목)’과 ‘지역 주위 환경에 대한 느낌(6개 항목)’ 두 개로 구성된다(<표 4-9>). ‘지역 사람들에 대한 느낌’의 7개 하위항목 중에는 범죄나 지역안전과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일부 항목은 지역공동체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1~4번 항목은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사회통합 영역의 공동체 항목)과 중복된다. 따라서 1~4번 항목은 안전 영역이 아닌 사회통합 영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며 내용적으로도 사회통합 쪽에 더 가까운 항목이다. 5~7번 항목 중 5~6번은 지역 사람들에 대한 인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7번은 본인의 태도를 묻고 있어서 묻고자 하는 것이 조사 대상인지 지역주민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

31)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에서 작성하고 있는 ‘밤에 혼자 걸을 때 불안하다고 느끼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보기항목은 ‘① 가로등, CCTV 등 야간보행 안전시설이 부족해서 ② 경찰서 등 치안시설이 부족해서 ③ 야간에 인적이 드물어서 ④ 우범지역이 있어서 ⑤ 신문, 뉴스 등에서 사건, 사고를 자주 접해서 ⑥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 마. 환경 영역

환경 영역은 안전과 함께 흡수연도에 조사된 영역으로 기존의 조사항목은 모두 3개로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인 환경체감도와 환경문제 해결방안, 환경오염 방지 노력으로 구성된다. 검토결과, 삭제항목 1개와 신규항목 1개를 추가하여 항목 수는 동일하다.

<표 4-10> 환경영역 조사항목 변경안(3개 → 3개)

구분	조사항목
유지(2개)	환경체감도_5개, 환경오염 방지 노력_9개
삭제(1개)	환경문제 해결방안
신규(1개)	기후변화 불안도

주: 밑줄 친 지표는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임

삭제항목은 전문가 자문이나 지표 중요도 조사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던 항목인 ‘환경문제 해결방안’이고, 신규항목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 정도를 묻는 항목을 추가로 구성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정도 항목은 기존의 조사항목들을 검토했을 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중 ‘기후변화’ 항목에 대한 불안 정도나 또는 기후변화를 세분화하여 구성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표 4-11> 환경 영역 신규 조사항목 지표 정의서

구분	조사대상 및 정의
기후변화 불안	(가구원 대상) 기후변화로 인해 체감하는 불안 정도 또는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로 측정

#### <신규항목: 기후변화 불안 또는 기후변화 영향>

(서울서베이 항목)

문8. 아래 현상들에 귀하가 체감한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1	2	3	4	5
1) 이상기온(폭염/한파 등)					
2) 태풍 및 집중호우					
3) 폭설					
4) 가뭄					

문9.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기후위기로 인한 여러 가지 현상이 귀하  
의 건강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다
- ② 직접적인 영향을 어느정도 미칠 것이다
- ③ 직접적인 영향은 별로 미치지 않을 것이다
- ④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미치지 않을 것이다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57 귀하는 환경 문제들에 어느 정도 불안을 느끼십니까? 다음 분야마다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① 전혀 불안하지 않다	② 별로 불안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안하다	⑤ 매우 불안하다
1. 기후 변화(폭염, 홍수 등)					
2. 유해 화학물질(가습기 살균제, 새집 증후군 등)					
3. 방사능					
4. 미세 먼지					
5. 농약, 화학 비료					
6. 수돗물					

### 바. 가구·가족 영역

가구·가족 영역은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에 해당하는 항목은 없고, 기존의 조사항목 15개 중 주관적 웰빙 관련 항목을 제외하면 1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sup>32)</sup> 조사항목은 가족관계 만족도와 가사분담과 미취학아동 및 부모 돌봄, 분거가족, 다문화 가구 인식 관련 항목으로 구성된다. 검토결과 삭제항목은 2개, 신규항목은 1개이다.

<표 4-12> 가족가구영역 조사항목 변경안(14개 → 13개)

구분	조사항목
유지(9개)	가족관계 만족도 7개, 가사분담의식, 평소 가사분담 실태, 부모님 노후돌봄, 부모님 동거자, 분거가족 여부, 분거지역/이유/기간, 미취학아동 여부, 미취학아동 보육방법/만족도
삭제(2개)	부모님의 생활비 부담 대상자, 지난 1년간 위험을 느꼈던 사건이나 상황
신규(1개)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
이동(3개)	다문화 가구 관심, 다문화 가구 증가현상 인식, 다문화 가구 지원사항 ⇒ 사회통합 이동

기존 항목 중에서 삭제 항목은 ‘부모님 생활비 부담’과 ‘가구의 위험요인’ 항목으로 전문가 의견이나 지표 중요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표의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였다. 이외의 다른 항목들은 유지하되, 다문화 가구 관련 항목 3개는 다문화 가구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항목으로 사회통합 영역의 포용에 적절한 항목으로 판단하여 사회통합 영역에서 지표로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다.

신규항목으로 추가된 항목은 결혼이나 출산에 관한 태도 항목이다. 최근 결혼과 출산 관련된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세대별 차이도 크게 나타나는 항목으로 변화 추세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항목이다. 결혼과 동거, 출산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물어보는 내용으로 조사항목을 구성할 수 있다. 기존 조사항목 사례를 검토해 보면 대부분 비슷한 방식으로 조사항목이 구성되고 있으며, 이들 사례를 참고하여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하는 것, 결혼을 하고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정도로 조사항목을 구성할 수 있다. 결혼이나 출산 대상 연령이 아닌 경우 본인의 경험이 아닌 현재 시점에서의 인식이나 태도를 묻는 것으로 구성할 수 있다.

32)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이 주관적 웰빙(4개) 항목이 2024년에는 가구·가족 영역에 포함하여 구성되었고, 2023년에는 특성항목에 포함되었으나, 일반사항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여서 가구·가족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연령별 가치관의 차이나 시계열 자료가 구축되면 가치관 변화를 관찰하는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표 4-13> 가족·가구 영역 신규 조사항목 지표 정의서

구분	조사대상 및 정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	(가구원 대상)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을 동의 정도로 측정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 동거, 비혼 출산, 무자녀 등)

<신규항목: 결혼 및 출산에 대한 태도>

(서울서베이)

문2. 귀하는 '살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다음 각각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동의한다	
2)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동의한다	
3)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에 동의한다	
4)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5)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한다	
6) 결혼생활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연구원 서베이 조사)

D7. 귀하께서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해야 한다      ② 하는 편이 낫다  
③ 안 해도 상관없다      ④ 하지 않는 것이 낫다

D8. 결혼을 하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있어야 한다      ② 있는 편이 낫다  
③ 없어도 상관없다

D9.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몇 명입니까?

명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의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① 전적으로 동의한다	② 약간 동의한다	③ 약간 반대한다	④ 전적으로 반대한다
1.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2. 결혼 생활은 부부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3.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다				
4.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5.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				

최종적으로 전북사회조사의 짝수연도 조사영역과 항목은 <표 4-14>와 같다. 기존의 조사표(80개)에서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의 영역 구성을 반영하여 수정하였고(71개), 지표 개편결과를 반영한 삭제와 신규 조사항목을 반영한 조사항목은 모두 65개이다.

<표 4-14> 짝수연도 조사영역별 조사항목 변경사항(71개 → 65개)

영역	조사항목
공통항목 (11개)	(성별,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거처종류, 점유형태, 세대구분 ) 생년월일(1), 혼인상태(2), 맞벌이 여부(2-1) 교육정도(3), 경제활동(4), 직업(4-1), 중사 상지위(4-2), 근로형태(4-2-1), 일을 하지 않은 이유(홀/38-1), 월평균가구소득(10), 주관적 웰빙(1-1~1-4)
사회통합 (12개→14개)	사회적 지원(28-1), 도움별 지원_3개(28-2), 자원봉사 횟수 및 시간_8개(29), 자원봉사 참여의사(30), 자원봉사 미참여 이유(30-1), 현물기부 여부(31), 기부유형(31-1), 기부경 로 및 횟수(31-2), 미기부 이유(31-3), 지역소속감(32), 일반인신뢰(33), 공동체의식_4개(34),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신규), 외로움 경험률(신규)
복지 (10개→7개)	성차별 인식 정도_4개(21), 선호장래방법(22), 사회서비스 만족도_2개(23), 사회복지대 상(23-1), 노후준비 여부(24), 노후준비방법(24-1), 노후준비계획(24-2), 희망하는 복지 서비스(25), 노인이 체감하는 문제(26), 노인복지시설 확충(27)
가족·가구 (14개→13개)	가족관계 만족도_7개(2), 가사분담 의식(3-1), 평소 가사분담 실태(3-2), 부모님 노후 돌봄(4-1), 부모님 동거자(4-2), 부모님 생활비 부담(5), 분거가족 여부(6), 분거지역/ 이유/기간(6-1), 미취학아동 여부(7), 미취학아동 보육방법/만족도(7-1), 가구의 위험요 인(8), 다문화 가구 관심(9-1), 다문화 가구 증가현상 인식(9-2), 다문화 가구 지원사항 (9-3),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신규)
건강* (13개→11개)	주간운동 횟수(6), 운동장소(6-1), 비운동 이유(6-2), 최근 1년 운동 여부(7-1), 운동종목 (7-1-1), 희망운동종목(7-2), 수면시간(8), 자살충동(9), 자살충동 이유(9-1), 의료기관 이 용여부(10), 이용의료기관(10-1), 의료기관 만족도(10-2), 의료기관 불만족 이유(10-3), 미충족 의료이용률(신규), 미충족의료 이유(신규)
안전* (8개→6개)	야간보행불안(31), 야간보행 불안이유(31-1), 사회안전인식_11개(32), 범죄피해 두려 움_2개(33-1), 범죄피해 두려움 대상별_3개(33-2), 지역주민평가_7개(34-1), 지역환 경인식_6개(34-2), 긴급상황 대처수준_4개(35)
환경* (3개→3개))	환경체감도_5개(19), 환경문제해결방안(20), 환경오염방지노력_9개(21), 기후변화 불안도(신규)

주: 1) 영역에서 \* 표시 영역은 기존 전북사회조사에서 홀수연도에 조사되었던 영역임  
 2) ( ) 안의 번호는 기존 조사표상의 번호임  
 3) 가운데 줄은 삭제지표, 파란색 글씨는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 빨간색 글씨는 신규 추가 항목임

#### 4. 홀수연도 조사항목 변경사항

홀수연도에 조사되는 영역은 소득·소비, 주거교통, 노동(고용·노사), 교육, 여가(문화·여가) 5개 영역이다. 짝수연도에 비해 해당되는 영역은 적지만 조사항목은 더 많아서 특성항목을 제외하고 기존 조사항목 기준으로 모두 80개 항목이 포함된다.

##### 가. 교육 영역

교육 영역의 사회조사 항목은 모두 13개 항목이다. 사교육비, 평생교육 관련 항목으로 구성되며,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은 평생교육 기회 충분도와 공교육 만족도와 사교육 기회 충분도, 보육환경 만족도 항목으로 구성된다.

교육환경과 관련된 중요성과 정책적인 관심도 때문에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에서도 지역 내 교육환경 만족도나 충분 정도를 묻고 있으며, 전북사회조사에서도 교육비나 평생교육 관련 부분은 매우 세분화되어 구성된다. 해당 영역에서는 전체적인 항목의 삭제보다 세분화된 하위항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조사표를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삭제지표는 2개, 신규지표 1개로 모두 12개 지표이다.

<표 4-15> 교육영역 조사항목 변경안(13개 → 12개)

구분	조사항목
유지(11개)	월평균교육비, 사교육비적정 여부, 적정사교육비, 평생교육 여부, 평생교육 미참여 이유, 희망하는 평생교육, 평생교육 기회 충분도, 공교육 만족도, 보육환경 만족도, 사교육 기회 충분도, 학교교육 효과_4
삭제(2개)	사교육 분야별(학원, 과외, 유치원, 학습지, 인터넷 등) 지출금액, 평생교육 종류(직장, 평생교육원, 사설학원, 지역문화센터, 인터넷 등)
신규(1개)	학교생활 만족도

주: 밑줄 친 지표는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임

교육비 관련해서는 자녀별로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질문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분야별<sup>33)</sup>로 다시 월평균 금액을 묻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전문가 의견에서는 세부적인 항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금액과 관련된 부분은 응답부담도 크고 교육 관련 전문조사가 아닌 만큼 정확하게 조사될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 또한 분야별 사교육 금액 조사결과의 정책적 활용 여부를 검토하여 이 부분은 제외하거나, 필요하다면 금액이 아닌 어떤 사교육에 지출하고 있는지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조사표 설계를 변경할 수 있을 듯하다(<표 4-16>).

33) 해당 분야: 학원수강, 과외, 유치원/어린이집, 방문학습지, 유료 인터넷 및 통신강좌, 기타

<표 4-16> 월평균 사교육비 조사항목 변경 예

구분	조사항목																											
기존 조사항목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2px; margin-bottom: 5px;"> <p><b>1</b> 귀 다편에서는 지난 1년간(2022년 4월 11일 ~ 2023년 4월 10일) 교육비로 월평균 얼마를 지출 하셨습니까? 해당 되는 사항에 각각의 자녀 수와 월평균 지출액을 기입해 주십시오. ※ 자녀가 없거나 교육비 지출이 없는 경우 다음 문항으로 이동합니다.</p>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e1f2;"> <th>구분</th> <th>자녀수</th> <th>월평균 공교육비</th> <th>월평균 사교육비</th> </tr> </thead> <tbody> <tr> <td>1. 미취학</td> <td>_____명</td> <td>_____만원</td> <td>_____만원</td> </tr> <tr> <td>2. 초등학생</td> <td>_____명</td> <td>_____만원</td> <td>_____만원</td> </tr> <tr> <td>3. 중학생</td> <td>_____명</td> <td>_____만원</td> <td>_____만원</td> </tr> <tr> <td>4. 고등학생</td> <td>_____명</td> <td>_____만원</td> <td>_____만원</td> </tr> <tr> <td>5. 대학교 및 대학원</td> <td>_____명</td> <td>_____만원</td> <td>_____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자녀수	월평균 공교육비	월평균 사교육비	1. 미취학	_____명	_____만원	_____만원	2. 초등학생	_____명	_____만원	_____만원	3. 중학생	_____명	_____만원	_____만원	4. 고등학생	_____명	_____만원	_____만원	5. 대학교 및 대학원	_____명	_____만원	_____만원
	구분	자녀수	월평균 공교육비	월평균 사교육비																								
1. 미취학	_____명	_____만원	_____만원																									
2. 초등학생	_____명	_____만원	_____만원																									
3. 중학생	_____명	_____만원	_____만원																									
4. 고등학생	_____명	_____만원	_____만원																									
5. 대학교 및 대학원	_____명	_____만원	_____만원																									
변경 안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th> <th>자녀 수</th> <th>월평균 공교육비</th> <th>월평균 사교육비</th> <th>분야</th> </tr> </thead> <tbody> <tr> <td>미취학</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초등학생</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분야는 아래 번호로 제시하여 모두 체크할 수 있도록 구성</p>					자녀 수	월평균 공교육비	월평균 사교육비	분야	미취학					초등학생					⋮								
	자녀 수	월평균 공교육비	월평균 사교육비	분야																								
미취학																												
초등학생																												
⋮																												

평생학습의 경우 지난 1년간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를 추가로 질문하고 있으나 보기항목은 직장, 공공기관, 사설학원, 문화센터 등 장소를 제시하고 있어 질문과 보기항목이 일치하지 않고, 각자 다른 항목을 묶어서 제시한 항목들<sup>34)</sup>도 있어서 결과의 활용도가 낮을 수 있어 삭제하는 것을 제안한다.

교육 영역에서 신규항목은 ‘학교생활 만족도’로 교육과정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이다. 교육 영역의 대부분의 지표들이 교육기회에 집중되어 있고, 실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이를 신규항목으로 추가하였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국가데이터처의 사회조사뿐 아니라 타 지역의 사회조사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조사항목이다(9개 지역). 학교생활 만족도는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에서는 13세 이상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나, 다른 지역의 경우 대학 재학생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많다. 하위항목의 경우 지역별 차이가 있긴 하나 대부분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와 유사하고 여기에 일부 항목(소질이나 적성, 전공)이 더 추가되어 구성된다.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를 기준으로 하여 신규항목을 반영하고 조사대상은 대학 재학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구성할 수 있다.

34) 보기항목 중 4번의 ‘지역문화센터,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에서 백화점 문화센터는 사설학원에 더 가까울 수 있으며, 6번의 ‘개인과의, 스터디클럽, 동호회 등’도 각자 다른 항목이다.

<표 4-17> 교육 영역 신규 조사항목 지표 정의서

구분	조사대상 및 정의
학교생활 만족도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대상) 현재 다니는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정도를 5점 척도 측정 - 하위항목: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시설, 주변환경 등

<신규항목: 학교생활 만족도>

16 귀하는 학교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다음 분야마다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
1. 교육 내용(교육 수준)					
2. 교육 방법(수업 및 평가 방법)					
3. 교우 관계					
4. 교사와의 관계					
5. 학교 시설					
6. 학교 주변 환경					
7. 전반적인 학교생활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나. 주거·교통 영역

주거·교통 영역에서 포함하고 있는 조사항목은 모두 18개 항목으로 지역거주의향과 주택소유, 교통수단과 이용 관련 항목으로 구성된다. 주거와 교통이용 환경은 지역 정책과 관련성이 밀접하여 정책적으로도 관심이 높은 주제이다. 주거·교통 영역에 포함된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은 전북 거주연수와 거주의향, 주거환경 만족도와 대중교통 만족도이다. 검토결과 주거 교통 영역의 삭제항목은 4개로 기존의 18개 항목에서 14개 항목으로 변경되었다.

<표 4-18> 주거·교통 영역 조사항목 변경안(18개→14개)

구분	조사항목
유지(14개)	전북 거주연수, 전북 거주의향, 시군 거주의향, 거주지 선택이유, 주택소유 여부, 소유주택 거주예정기간, 과거 주택소유 여부, 주거환경 만족도_7개, 대중교통 만족도_3개, 이용교통수단, 통근통학 여부, 통근통학 소요시간, 교통시간 적정여부, 교통시간단축 필요요소
삭제(4개)	교통수단 보유현황(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트럭 등) 자전거 이용 여부, 자전거 이용만족도, 자전거 미이용 이유

주: 밑줄 친 지표는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임

주거·교통 영역에서 삭제 검토된 지표 중 조사항목은 교통수단 보유현황과 승용차 보유대, 그리고 자전거 이용 관련 항목이다. 두 항목 모두 과거에는 정책적인 필요성에 의해 조사된 항목이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교통수단 보유현황이나 자전거 이용은 여부 개인의 선호와 관련된 부분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정책적인 활용도를 고려한다면 ‘보행환경 만족도<sup>35)</sup>’ 관련 항목의 추가를 검토할 수 있다.

기존의 조사항목 중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거환경 만족도 관련 항목으로 7개 하위항목으로 구성<sup>36)</sup>되며, 기존의 조사항목에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의 세부항목 3개를 추가한 항목이다. 7개 항목 중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문화·여가 영역에 포함된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인 ‘문화여가시설(접근성과 충분정도)’ 만족도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여기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

주거·교통 영역에서 신규 추가 지표로 검토된 ‘주거비 부담도’로 주거비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이다. 그러나 전북 지역 내에서 주거비 부담은 수도권에 비해 주요 관심사항은 아니며, 소득·소비 영역의 부채 부담도와 중복될 수 있어 신규항목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 다. 여가 영역

여가 영역은 기존 문화·여가 영역에서 영역 명칭이 변경되었고, 모두 17개 조사항목이 포함되어 주거·교통 영역과 함께 항목 수가 많은 영역이다. 기존 조사항목은 여가 활용과 시간 및 지출액, 문화예술 관람 및 동호회, 지역 문화예술 행사, 독서 여부, 여가활동 만족도, 생활시간 압박으로 구성되었다. 다양하고 세분화된 조사항목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여가생활을 반영하는 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검토결과 삭제항목은 6개, 신규항목은 4개로 전체 조사항목은 모두 15개이다.

여가 영역 지표 개편 시 검토된 내용에서 삭제항목은 여가비용과 동호회, 독서 관련한 세분화된 질문 항목과 함께 지역 문화예술 축제 개최에 대한 찬반 항목이다. 여가 비용의 경우 전체 금액으로 묻는 항목이 있어서 항목별(관람비, 구매비, 교육비, 기타)로 구분한 추가 질문은 응답부담 대비 결과 활용도는 낮을 수 있다. 동호회 관련해서는 문화예술 행사별로 동호회 참여 경험을 묻고 있으나, 현재 보고서 결과에서 문화예술 행사별 경험률은 따로 제시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항목별 참여 비율도 낮은 편이다. 따라서 개별 문화예술 행사별로 동호회 활동 여부를 묻는 것은 응

35) 지역 내 보행환경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 매우 만족)

36) 각 항목별 만족도: 주택(시설, 면적, 구조 등), 녹지공간, 편의시설 접근성, 문화여가시설, 교통편의성, 상하수도/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주거지역에 주차장 이용

답 결과의 대표성과 활용도가 낮을 수 있어 필요하다면 항목별이 아닌 전체 동호회 참여 경험을 묻는 항목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지역 문화예술 축제는 개최 찬반과 그 이유, 참여 경험 및 만족도와 불만족 이유 등 여섯 개의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지역 문화예술 축제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은 지역축제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이지만, 찬성(71.6%) 및 반대(11.4%)와 그 이유보다는 참여 경험과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가 지역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에서 더 활용도가 높을 수 있다. 독서인구에 대한 항목은 최근에 독서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이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으나 읽은 책의 수를 분야별로 세분화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응답자 또한 응답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표 4-19> 여가 영역 조사항목 변경안(17개→15개)

구분	조사항목
유지(11개)	여가시간 활용, 평균 여가시간_2개, 최근 3개월문화예술 지출액, 문화예술 관람경험_8개, 지역 문화예술 행사 참석경험, 지역 문화예술 행사만족도, 지역 문화예술 행사 불만족 이유, 독서여부, 여가활동 만족도_2개,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 생활시간 압박_2개
삭제(6개)	항목별(관람비, 구매비, 교육비, 기타) 지출액, 문화예술별 동호회 경험 및 참여 횟수_8개(음악연주회, 연극, 무용, 영화, 박물관 등), 지역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부, 찬성 이유, 반대 이유, 분야별(잡지류, 교양서적, 직업, 생활취미 등) 독서권 수_5개
신규(4개)	여행경험률, 스마트기기 사용시간, 스마트기기 활용, 디지털 역량 접근성

주: 밑줄 친 지표는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임

여가 영역의 신규지표 중 조사항목 추가가 필요한 지표는 여행경험률, 스마트기기 사용시간 및 활용, 디지털 역량 접근성이다. 여행경험률은 여가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이나 일상적이지 않은 여행은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에서는 포착하지 못할 수 있어 별도의 항목 구성이 필요하다.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을 별도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래 제시된 예시에서는 일수와 횟수까지 묻고 있지만 응답부담이 있다면, 경험 여부와 일수 정도로 구성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여행의 경우 다른 지역이나 타 통계와의 비교를 고려하여 관광여행뿐 아니라 친지방문, 업무 교육 관련 해외여행을 모두 포함한 경험률과 일수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기기 사용시간 및 활용과 관련해서는 평균 이용시간과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항목이 필요하다. 서울시와 대구, 경기연구원의 조사항목을 참고하여 전체 스마트기기 활용시간과 주로 하는 활동으로 조사표를 구성할 수 있다. 신규항목으로 반영하거나 또는 기존의 조사인 인터넷이용실태조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나 전북 지역 값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원자료 분석이 필요하다.

디지털 역량 접근성은 디지털 역량을 보여주는 항목과 이로 인한 생활의 불편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다.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등에서는 디지털 역량을 세분화하여 조사하고 있지만 서울서베이 사례처럼 본인이 평가하여 응답하는 정도로 디지털 역량을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기기나 키오스크 사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에서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를 묻는 항목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표 4-20> 여가 영역 신규항목 지표 정의서

구분	조사대상 및 정의
여행경험률	(가구원 대상) 지난 1년 동안 국내 및 해외 여행 경험 여부와 일부 - 국내여행은 관광여행 포함, 해외여행은 관광 및 친지방문, 업무, 교육 포함
스마트기기 사용시간	(가구원 대상) 평소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하루 평균 시간(평일/주말 구분)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주로 하는 활동, 또는 항목별 참여비율
스마트기기 활용	(스마트기기 이용자 대상)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주로 하는 활동, 또는 항목별 참여비율 (자료검색, SNS, 동영상 시청, 게임, 온라인쇼핑, 음악감상, 메신저 등)
디지털 역량 접근성	(가구원 대상) 본인의 스마트기기 활용 역량 디지털 변화와 관련한 사회변화 경험에 대한 인식

<신규항목: 디지털 역량 접근성>

(서울서베이)

문63. 귀하는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사용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혼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전혀 하지 못한다	잘하지 못하는 편이다	잘 하는 편이다	매우 잘한다
1	2	3	4

스마트폰	1)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2) 카카오톡 등 메신저	
	3) 뉴스 및 정보(유튜브 등) 검색	
	4) 교통정보/지도검색	
	5) 예매/예약서비스	
	6) 결제수단 이용(상품구매, 배달주문 등)	
키오스크 (무인정보 단말기)	7) 음식주문	
	8) 티켓, 등호본 등 민원서류 발급 등	

문5.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해 귀하는 각 항목에 대해 어떤 편이신지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이용하지 않음
1	2	3	4	9
1)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2)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 친구 혹은 동료 등 주변 사람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3) 스마트폰 때문에 업무(학업 혹은 작업 등)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문6. 귀하는 디지털전환을 겪으면서 아래 항목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디지털 능력이 부족하면 앞으로의 일상생활이 어려워 질까 걱정된다				
2)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능력이 앞으로의 내 삶을 결정할 것이다				
3) 원격근무나 모바일 학습 등으로 인해 업무나 학업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4)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나의 일자리나 경력이 위협받을 것이다				

<신규항목: 여행경험률>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국내여행이나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며칠이나 다녀오셨습니까?

- ① 있다 : 국내여행 일수 \_\_\_일 (관광여행 숙박 및 당일여행 포함)
- ② 있다 : 해외여행 일수 \_\_\_일 (관광 및 친지방문, 업무, 교육 포함)
- ③ 없다

국내 관광 여행	해외여행 경험
<p><b>39</b> 귀하는 지난 1년 동안(2022. 5. 17.~2023. 5. 16.) 관광을 목적으로 국내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p> <p><small>※ 여행은 숙박 기준이 아니라 총 여행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 3박 4일 여행은 '4일'로 작성)</small></p> <p>① 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 5px 0;"> <p>① 숙박 여행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번 (1회당 평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일)</p> <p>② 당일 여행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번</p> </div> <p>③ 없다</p>	<p><b>40</b> 귀하는 지난 1년 동안(2022. 5. 17.~2023. 5. 16.) 해외에 다녀온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떤 목적으로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p> <p>① 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 5px 0;"> <p>① 관광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번</p> <p>② 가족·친지 방문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번</p> <p>③ 업무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번</p> <p>④ 교육(어학연수 포함)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번</p> </div> <p>② 없다</p>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참고)

<신규항목 : 스마트기기 사용시간 및 활용>

H6-1. 귀하는 스마트기기(스마트폰/태블릿PC 등)를 이용하여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경기연구원 조사)

H6. 귀하는 평소 스마트기기(스마트폰/태블릿PC 등)를 활용하여 여가를 즐기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항목	하루 평균 이용 시간
1)	평일	( )시간 ( )분
2)	주말(공휴일 포함)	( )시간 ( )분
3)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않음(H7로 이동)	

- ① 웹서핑
- ② 동영상 콘텐츠 시청(유튜브, OTT 등)
- ③ SNS 활동
- ④ 게임
- ⑤ 웹툰/전자책 이용
- ⑥ 온라인 쇼핑
- ⑦ 음악감상
- ⑧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
- ⑨ 기타( )

(대구사회조사)

**47** 귀하는 휴대용 스마트기기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휴대용 스마트기기 :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등 휴대가 간편하며 기능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상당부분 기능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제품을 가리킴

- ① 보유하고 있다 → 47-1번으로
- ② 보유하고 있지 않다 → 48번으로

**47-1** (문47에서 ①번 응답자만 해당) 귀하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 및 용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1일평균 사용시간	사 용 비 중						
	계	자료검색	영상시청	SNS 등 커뮤니티 활동	게임	업무	기타
( )시간	100%	%	%	%	%	%	%

### 라. 노동 영역

노동 영역의 기존 조사항목은 모두 8개 항목으로 매년 조사되는 기본항목인 경제활동, 직업, 종사상지위, 근로형태, 일을 하지 않는 이유 항목은 여기에서 포함하지 않았다. 노동 영역의 조사항목은 구직활동, 직장선택요인, 취업관련 정책 등으로 구성되며, 근로환경 만족도와 일자리 충분도는 지역사회지표 공통항목에 포함된다. 기존 조사항목에서 삭제가 필요한 항목은 별도로 없으며, 신규로 제시된 지표의 경우 지역별 고용조사를 활용할 수 있어서 별도의 신규항목 추가는 없다(<표 4-21>참고).

다만 조사표 구성상 취업자 대상 항목과 청년층 대상 항목 등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표상에서의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배경항목으로 포함되는 항목이 흡수연도에는 노동 영역에 포함하여 구성되어야 하고, 경제활동 여부와 종사상 지위 다음에 근로여건 만족도 항목을 배치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구직 여부와 직업선택요인, 근무하고 싶은 직장, 취업관련 사업 항목이 연결되어 배치될 필요가 있다.

<표 4-21> 노동 영역 조사항목안 (8개)

구분	조사항목
유지(8개)	(배경항목: 경제활동, 직업, 종사상지위, 근로형태, 일을 하지 않는 이유)
	구직 여부, 구직 어려움 이유, 직업선택요인, 일가정 병행 어려움, 선호직장, 선호취업 지원사업, 근로환경 만족도 5개, 일자리 충분도

주: 밑줄 친 지표는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임

### 마. 소득·소비 영역

소득·소비 영역의 기존 조사항목은 모두 12개 항목으로 매년 조사되는 기본항목인 월평균 가구소득 항목은 여기에서 포함하지 않았다. 소득·소비 영역의 조사항목은 생활비 지출금액, 저축액, 부채 여부와 이유, 소득과 소비생활 만족도 항목으로 구성되며,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은 소득 만족도와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항목이다. 검토 결과 삭제항목은 모두 2개, 신규항목 1개로 조사항목은 12개 항목에서 11개 항목으로 변경된다.

소득·소비 영역의 개편 과정에서 삭제검토 지표는 경제적으로 행복한 수준의 월소득액 항목이다. 소득금액에 대한 주관적인 측정을 객관적인 수치로 묻고 있어서 결과값의 해석이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가구원 수 응답항목도 별도의 조사항목으

로 묻지 않아도 확인 가능한 사항으로 조사항목에서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인 검토사항은 응답부담을 고려하여 조사항목을 조정한다면 가구소비금액의 세부항목별 금액 항목은 응답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실제 금액이 아닌 대략적인 비율을 묻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4-22> 소득·소비 영역 조사항목 변경안(12개→11개 )

구분	조사항목
유지(10개)	생활비지출, 항목별 생활비 지출금액_10개, 월평균 저축액, 가구부채 여부, 부채액, 부채 이유, 개인소득 여부, 소득 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삭제(2개)	가구원수, 경제적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월평균 소득금액
신규(1개)	가계의 부채 부담도

주: 밑줄 친 지표는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임

<표 4-23> 소득·소비 영역 신규항목 지표 정의서

구분	조사대상 및 정의
가계의 부채부담도	(가구주, 부채가 있는 가구 대상: 기존 부채 여부 항목에서 있다고 응답한 사람) 부채 원금과 이자 상환으로 인해서 가계에서 느끼는 부담 정도

**<신규 항목: 가계의 부채 부담도>**

(부채 이유 다음 항목으로 추가)

부채 원금과 이자 상환으로 인해서 가계 생계에 주는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전혀 부담이 없다
- ② 부담이 없는 편이다
- ③ 약간 부담스럽다
- ④ 매우 부담스럽다

최종적으로 전북 사회조사의 흡수연도 조사영역과 항목은 <표 4-25>와 같다. 기존의 조사표(93개)에서 특성항목 7개를 제외하고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의 영역 구성을 반영하여 수정하였고(80개), 지표 개편결과를 반영한 삭제와 신규 조사항목을 포함한 조사항목은 모두 71개이다.

<표 4-24> 홀수연도 조사영역별 조사항목 변경사항(80개 → 71개)

영역	조사항목
공통항목 (11개)	(성별,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거쳐종류, 점유형태, 세대구분 ) 생년월일(1), 혼인상태(2), 맞벌이 여부(2-1) 교육정도(3), 경제활동(4), 직업(4-1), 종사상지위(4-2), 근로형태(4-2-1), 일을 하지 않은 이유(홀/38-1), 월평균가구소득, 주관적 웰빙
교육 (13개→12개)	월평균 교육비(1), 사교육분야별지출(2-1), 사교육비 걱정 여부(2-2), 걱정 사교육비(2-2-1), 평생교육 여부(3-1), 평생교육종류(3-1-1), 평생교육 미참여 이유(3-1-2), 희망하는 평생교육(3-2), 평생교육 기회 충분도(3-3), 공교육 만족도(4-1), 보육환경 만족도(4-2), 사교육 기회 충분도(4-3), 학교교육 효과_4개(5), <b>학교생활 만족도(신규)</b>
주거·교통 (18개→14개)	전북 거주연수(11), 전북 거주의향(11-1), 시군 거주의향(11-2), 거주지 선택이유(12), 주택소유 여부(13), 소유주택 거주 예정기간(13-1), 과거 주택소유 여부(13-2), <b>주거환경 만족도_7개(14)</b> , 대중교통 만족도_3개(15), 이용교통수단(16-1), 통근통학 여부(16-2), 통근통학 소요시간(16-3), 교통시간 걱정 여부(16-3-1), 교통시간 단축 필요요소(16-3-2), 교통수단 보유현황(17), 자전거이용 여부(18), 자전거이용 만족도(18-1), 자전거미이용 이유(18-2);
여가 (17개→15개)	여가시간활용(22), 평균여가시간_2개(23), 최근 3개월 문화예술 지출액(24-1), 항목별 지출액(24-2), 문화예술 관람경험 횟수_8개(25), 문화예술별 동호회 경험 횟수_8개(25), 지역 문화예술행사 인식(26), 지역 문화예술행사 찬성 이유(26-1), 지역 문화예술행사 반대 이유(26-2), 지역 문화예술행사 참석경험(27), 지역 문화예술행사 만족도(27-1), 지역 문화예술행사 불만족 이유(27-2), 독서 여부(28), 분야별 독서관수_5개(28-1), <b>여가활동 만족도_2개(29)</b> ,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29-1), <b>생활시간 압박_2개(30)</b> , <b>여행경험률(신규)</b> , <b>스마트기기 사용시간(신규)</b> , <b>스마트 기기활용(신규)</b> , <b>디지털 역량 접근성(신규)</b>
노동* (8개)	(배경항목: 경제활동, 직업, 종사상지위, 근로형태, 일을 하지 않은 이유), 구직 여부(16), 구직 어려움 이유(16-1), 직업선택요인(17), <b>직장 근로여건 만족도_7개(18)</b> , 일가정 병행 어려움(19), 선호직장(20-1), 선호취업 지원사업(20-2), <b>일자리 충분도(홀수, 39)</b>
소득·소비* (12개→11개)	생활비지출(11-1), 항목별 생활비 지출금액_10개(11-2), 가구원 수(12-1), 경제적으로 행복한 소득액(12-2), 월평균 저축액(13), 가구부채 여부(14), 부채액(14-1), 부채 이유(14-2), 개인소득 여부(15-1), <b>소득 만족도(15-1-1)</b> , 소비생활 만족도(15-2), <b>생계유지 어려움 경험(홀수, 42)</b> , <b>가계의 부채 부담도(신규)</b>

주: 1) 영역에서 \* 표시 영역은 기존 전북사회조사에서 짝수연도에 조사되었던 영역임  
 2) ( ) 안의 번호는 기존 조사표상의 번호임  
 3) 가운데 줄은 삭제지표, 파란색 글씨는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 빨간색 글씨는 신규 추가 항목임



매년 정책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특성항목이나 시군 특성항목의 추가를 고려한다면, 116개 항목에서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을 포함한 핵심항목을 60개여 개 정도로 구성하고, 이외의 항목은 3~4년 주기 정도로 조사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표 4-25>는 개편이 반영된 전북사회조사 영역별 항목을 토대로 하여 각 영역별 조사항목을 핵심항목과 모듈항목으로 구분하고(<표 4-26>), 영역별 항목 수와 주제를 고려하여 모듈항목의 조사주기를 3년으로 하여 반영한 예시이다. 핵심항목은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과 지속적인 시계열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선정하였고, 모듈항목의 주제별 묶음은 항목 간 비교분석 가능성과 전체 항목 수를 고려해서 선정하였다. 이렇게 했을 경우 전체 조사항목이 약 87개로 구성되어 시군 특성항목이나 정책적 대응을 위한 특성항목을 10개 내외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항목의 선정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어 조사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책부서에서 응답결과 활용성 검토와 응답결과의 시계열 변화 등을 고려해서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매년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조사되는 특성항목과 시군 특성항목의 경우도 모듈항목의 영역에 맞춰서 추가될 경우 좀 더 심층적인 내용도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4-25>에서 제시된 예시는 기존의 조사항목을 모두 유지한 사례이고,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면, 3년 주기의 모듈항목보다는 특성항목의 비율이 점차 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모듈항목을 3년 주기로 조사하는 대신 핵심항목을 늘리고 매년 이슈 주제를 선정하여 사회변화를 보여주는 항목을 좀 더 많이 포함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영역별 2년 주기 조사에서 모듈형 조사로 변경했을 때 기존에 2년 주기로 작성되던 항목들이 3년 주기로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전북사회조사 이용자들의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 4-25> 전북사회조사 1년 주기 변경 예시(모듈은 3년 주기)

	공통 항목	사회 통합	복지	가구 가족	환경	건강	안전	교육	주거 교통	노동	여가	소득 소비	
항목수 (125)	11	14	7	13	3	11	6	12	14	8	15	11	
핵심 (68)	11	9	1	7	1	7	4	5	8	3	8	4	
모듈		5	6	6	2	4	2	7	6	5	7	7	
조사 주기	1년차 항목(68+19)					2년차 항목(68+19)				3년차 항목(68+19)			

<표 4-26> 영역별 핵심 및 모듈항목

영역	조사항목	
공통항목 (11)	생년월일, 혼인상태, 맞벌이 여부, 교육정도, 경제활동, 직업, 종사상지위, 근로형태, 일을 하지 않은 이유, 월평균 가구소득, 주관적 웰빙	
사회통합 (9/5)	핵심	사회적지원, 도움별 지원 3개, 자원봉사 횟수 및 시간 8개, 현물기부 여부, 기부유형, 지역소속감, 일반인신뢰, 공동체의식 4개, 외로움 경험률
	모듈	자원봉사 참여의사, 자원봉사 미참여 이유, 기부경로 및 횟수, 미기부 이유,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복지 (1/6)	핵심	사회서비스 만족도 2개
	모듈	성차별 인식정도 4개, 노후준비 여부, 노후준비방법, 노후준비계획,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노인이 체감하는 문제
가족가구 (7/6)	핵심	가족관계 만족도 7개, 가사분담의식, 평소 가사분담 실태, 미취학아동 여부, 미취학아동 보육방법/만족도, 분거가족 여부, 분거지역/이유/기간
	모듈	부모님 노후돌봄, 부모님동거자, 다문화 가구 관심, 다문화 가구 증가현상 인식, 다문화 가구 지원사항,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
건강 (7/4)	핵심	주간운동 횟수, 비운동 이유, 수면시간, 의료기관 이용 여부, 이용의료기관, 의료기관 만족도, 의료기관 불만족 이유
	모듈	자살충동, 자살충동 이유, 미충족 의료이용률, 미충족의료 이유
안전 (4/2)	핵심	야간보행 불안 이유, 사회안전인식 11개, 범죄피해 두려움 2개, 범죄피해 두려움 대상별 3개
	모듈	지역환경인식 6개, 긴급상황 대처수준 4개
환경 (1/2)	핵심	환경체감도 5개
	모듈	환경오염 방지 노력 9개, 기후변화 불안도
교육 (5/7)	핵심	월평균 교육비, 평생교육 기회 충분도, 공교육 만족도, 보육환경 만족도, 사교육 기회 충분도
	모듈	사교육비 적정 여부, 적정 사교육비, 평생교육 여부, 평생교육 미참여 이유, 희망하는 평생교육, 학교교육 효과 4개, 학교생활 만족도
주거교통 (8/6)	핵심	전북 거주연수, 전북 거주의향, 시군 거주의향, 주거환경 만족도 7개, 대중교통 만족도 3개, 이용교통수단, 통근통학 여부, 통근통학 소요시간
	모듈	거주지 선택이유, 주택소유 여부, 소유주택 거주예정 기간, 과거 주택소유 여부, 교통시간 적정 여부, 교통시간단축 필요요소
여가 (8/7)	핵심	여가시간활용, 평균여가시간 2개, 여가활동 만족도 2개,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 생활시간 압박 2개, 여행경험률, 스마트기기 사용시간, 스마트 기기활용
	모듈	최근 3개월 문화예술 지출액, 문화예술 관람경험 횟수 8개, 지역 문화예술행사 참석경험, 지역 문화예술행사 만족도, 지역 문화예술행사 불만족 이유, 독서 여부, 디지털 역량 접근성
노동 (3/5)	핵심	근로여건 만족도 7개, 일자리 충분도, 일가정병행 어려움
	모듈	구직 여부, 구직어려움 이유, 직업선택요인, 선호직장, 선호취업 지원사업
소득소비 (4/7)	핵심	개인소득 여부, 소득 만족도,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생활비지출
	모듈	소비생활 만족도, 항목별 생활비 지출금액 10개, 월평균 저축액, 가구부채 여부, 부채액, 부채 이유, 가계의 부채 부담도

주: 기술표본은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임

## 제 5 장

### 결론 및 시사점

#### 제1절 지역사회지표 활용 방안

지역사회지표는 17개 시도에서 모두 작성하고 있지만, 결과보고서 작성방식, 결과에 대한 활용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지역사회지표는 지역의 삶의 질과 사회 전반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인 만큼 결과보고서 발간에서 더 나아가 다양하게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지역사회지표의 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결과보고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과 작성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눠서 제시하고자 한다.

##### 1. 결과보고서 작성 시 개선 사항

사회지표 결과보고서의 가독성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첫째, 보고서의 명칭을 ‘전북 사회조사 보고서’에서 ‘전북 사회지표’로 변경하는 것이다. 사회조사뿐 아니라 다양한 출처의 행정통계와 조사통계를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지표를 작성하고 있는 만큼 보고서의 명칭도 변경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보고서의 명칭과 일치하도록 다루고 있는 사회지표의 모든 영역이 매년 보고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사회조사를 기준으로 해당 영역만을 포함하고 있어 보고서 전체의 완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전북 사회지표’로 변경할 경우 전체 영역을 매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고서 작성 시 전체 개요에서 영역별 전체 지표를 한 번에 보여주는 표와 함께 지표에 대한 설명과 통계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기존 전북 사회지표에서는 개별 지표의 설명과 그래프, 통계표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통계표가 작은 경우는 상관없지만 하위항목이 많아서 통계표가 길어지는 경우 가독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지표별로 그래프를 중심으로 시계열 변화 또는 하위집단 비교를 통해 간단한 결과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하고, 해당 통계표는 별도의 장이나 부록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셋째, 통계표 작성과 관련해서 요약된 정보와 수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5점 척

도 만족도 항목을 제시할 경우 만족 비율과 불만족 비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용자들이 보기 편리하다. 또한 만족 비율이나 관람 횟수 등을 제시할 때 해당 없음을 제외하여 정확한 수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 만족도 중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의 경우 ‘해당없음’을 제외한 사례를 100%로 하여 만족비율이 제시되어야 다른 항목들과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가 가능하다. ‘문화예술관람 횟수’의 경우도 현재 1년 동안의 관람 횟수만 제시하고 있는데, 경험한 응답자의 비율과 평균 참여 횟수로 제시하는 것이 더 정확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다. 가구의 부채금액을 보여주는 지표도 ‘부채있음’을 100%으로 하여 부채금액의 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작성 결과를 정확한 방식으로 요약하여 제시하여야 이용자들이 별도의 분석 없이 보고서만으로도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개별 지표에 대한 메타정보가 필요하다. 현재 별도의 지표정의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통계출처만 통계표 아래 제시되어 있다. 사회지표와 관련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지표명이나 출처만 봐도 대략적으로 어떤 통계인지를 알 수 있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지표명이나 통계표에서 제시하는 항목만으로는 수치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의 사회지표의 사례처럼 통계표에 지표의 간략한 정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지표별 통계출처도 KOSIS와 같은 통계자료 서비스 출처가 아닌 원출처로 작성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여야 한다.

## 2. 작성결과 활용도 제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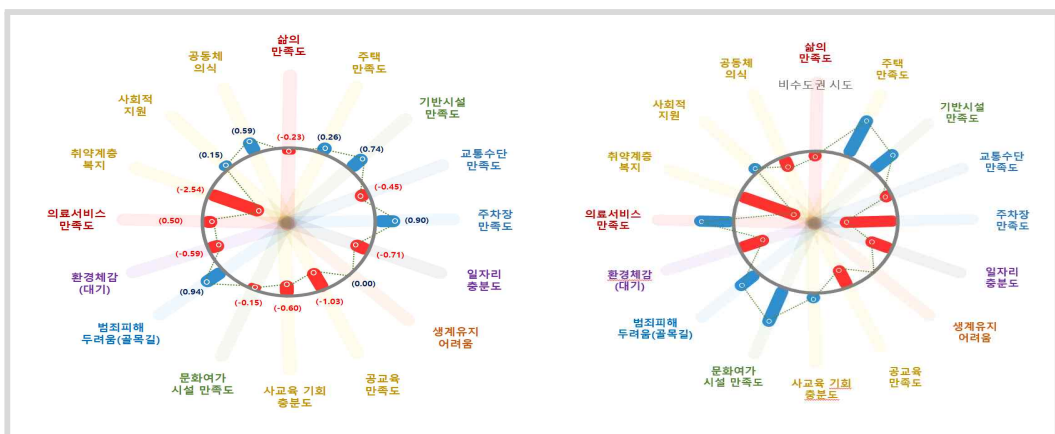
지역사회지표 작성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용자의 수요에 맞춰서 다양한 형태로 지표를 제공하여 지표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지표의 작성에 있어 방법론적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존 통계를 활용하는 만큼 어떻게 제시하여 보여주는지도 중요한 부분이다. 지표작성 과정의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에서도 결과물 작성(communication)을 하나의 챕터로 다루고 있는 이유이다(Eurostat, 2017; 변준석 외, 2019).

결과물 제시 방법은 결과 보고서 작성이 일반적이며, 최근에는 온라인에 지표 서비스, 인포그래픽 등을 작성하여 이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 결과물은 이용자의 지식수준이나 활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할 때는 요약된 자료보다는 통계표나 메타정보, 원자료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간략한 요약보고서나 인포그래픽 등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지표에서 작성하고 있는 지표의 수가 100개 이상이고, 종합지수를 작성하지 않고 있어 일반인들은 전체 지표를 모두 파악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영역별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요약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핵심지표를 활용하여 인포그래픽이나 보도자료 등을 작성하거나, 포켓북과 같이 핵심지표를 그래프로 간단히 보여주는 요약보고서를 작성해 결과를 홍보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일반인들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도 있지만 전북도 내 타 부서에서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작성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하여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지역 사회지표와 지역사회조사는 10여 개 이상의 주제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개별 지표의 작성결과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와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다. 지역사회조사에 다루고 있는 공통항목의 경우 타 시도 및 시군구와 비교가 가능한 항목이다.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 지역의 순위를 확인하는 목적보다는 비교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약점과 강점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림 5-1>은 2021~2022년에 조사된 지역사회지표 공통항목(16개)을 활용하여 분석한 사례로 타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전북 지역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개별 지표들의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서 항목별 값을 전국 평균과의 표준화, 비수도권 도지역 평균과의 표준화를 통해 비교한 결과이다. 우선 전국 평균과 비교한 값(<그림 5-1>의 왼쪽)을 보면 각 항목별로 회색으로 되어 있는 원이 전국 평균이고, 각 항목별 빨간색과 파란색 막대가 전북의 평균을 보여준다.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회색선 안쪽으로 길어질수록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파란색의 회색선 밖으로 길어질수록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전북 지역은 범죄피해 두려움, 주차장, 기반시설 등의 만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취약계층 복지, 공교육 환경 만족, 일자리 충분도 등은 낮게 나타났다. 비수도권 도지역과 비교해 보면(<그림 5-1>의 오른쪽),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와는 달리 전북 지역은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주택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 주차장 만족도는 취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 왼쪽 그래프는 전국 시도와 비교했을 때 오른쪽은 비수도권 도지역과 비교했을 때 전북의 위치를 보여줌  
출처: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을 활용하여 작성

<그림 5-1>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을 활용한 전북 측정결과

이 외에도 결과보고서 작성 시 매년 이슈를 정해서 심층분석을 진행하면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서울과 충남지역에서는 지역사회지표 작성과 함께 매년 심층분석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으며, 두 지역 모두 심층분석 작성은 지역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표 5-1>). 이슈분석은 지역의 현황과 정책 및 사회지표에 대한 지식을 두루 갖춘 전문가를 통해 심도 있는 내용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매년 수치가 업데이트되는 개별 지표들의 작성결과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내용을 접할 수 있으며 정책적인 활용도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1> 지역사회지표를 활용한 심층분석 작성 사례

지역	연도	심층분석 주제
서울	2019-2021	코로나19 사회현황, 청년세대와 중장년 세대
	2022	공동체 역량과 매력역량, 서울의 양육환경
	2023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X세대 재조명, 서울 청년의 결혼과 출산 가치관 변화 서울의 공원/하천과 삶의 질
	2024	장·고령 가구의 라이프스타일, 서울 보통 신혼부부 프로파일링 서울 핏가구
충남	2021	충남도민의 근로여건 만족도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함의 충남도민의 역외 소비 현황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함의 코로나19와 도민의 삶의 변화 그리고 정책제언
	2022	충남도민의 결혼과 출산 인식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함의 이주의향 결정요인: 주거환경의 역할
	2023	충남도민의 환경권,건강권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함의 안전 취약분야 도출에 따른 안전관리방향 충남지역의 여가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충남도민의 다문화사회 인식과 태도

출처: 서울시(각 연도), 서울시 서울서베이; 충청도청(각 연도), 충남 사회조사를 활용한 도민의 삶과 정책

## 제2절 요약 및 시사점

이 연구는 전북의 사회지표와 사회조사를 사회변화에 맞춰 개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전북 사회지표는 지표작성 이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변화에 맞춰 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었으며, 2020년부터 조사되기 시작한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에 맞춰 기존 사회조사 체계를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지표의 최근 개편 사례와 작성현황, 최근의 사회변화 이슈,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의 반영을 중점으로 하여 전북 사회지표와 사회조사 체계를 검토하였다.

지역사회지표는 지역의 삶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 만큼 해당 지역의 산업이나 인구구조, 정책적 관심사, 지리적 위치 등의 특성이 반영된 특성지표가 일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정책방향에만 초점이 맞춰진 특성지표가 많이 포함될수록 사회지표가 아닌 성과지표나 정책평가 지표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정책성과를 보여주는 투입지표보다는 정책의 투입으로 인해 지역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결과나 성과 중심의 지표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지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북 지역과 정책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기간이나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전북 정책이나 특성을 분석하여 반영하는 부분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사회지표의 개편 결과에서 지역 특성지표는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전북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북 사회지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역 특성지표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북도청 내의 관련 부서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사회지표 보고서 작성을 담당하는 외부 연구진을 통해서 특성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사회조사의 영역 주기를 변경하고 지표체계 개편과정에서 도출된 신규지표를 작성하기 위해 신규조사 항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가 지표개편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신규항목 개발 시 검토 가능한 예시 항목들은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조사표 항목까지는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최종적으로 조사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조사표 확정 전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자문회의를 거쳐 조사항목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4장에서는 전북사회조사의 조사 주기를 기존 영역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조사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모든 영역을 1년 주기로 변경할 경우 한 번의 조사에 모든 영역이 포함되어 영역 간 비교 가능성이나 시의성 확보에는 장점이 있으나, 한 번에 조사 가능한 항목에 제한이 있으므로 기존의 조사항목을 핵심항목과 삭제 또는 주기가 길어지는 모듈항목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4장에서는 이를 가정하고 조사항목 구성방식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존 조사항목의 시계열이 단절되고, 조사

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작성체계 변경을 위해서는 시군 담당자나 사회조사 이용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특성지표의 추가 개발이나 사회조사 신규항목의 최종 확정 필요 등 내년도 전북 사회지표 작성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있긴 하지만, 17개 시도 지역사회지표를 검토하고 최근 지역사회지표의 작성 현황을 반영하여 영역을 개편하고, 통계작성 현황에 맞춰 개별지표들을 검토하고 결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진행된 전문가들의 지표 중요도 평가 결과와 다양한 검토 의견들은 전북에서 향후 사회지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남상민, 심수진, 유성렬. (2022). 강원도 사회지표 체계 개편 연구. 통계개발원(현 국가데이터 연구원) 연구보고서.
- 남상민, 심수진, 유성렬. (2024).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 분석: 지역 삶의 질 및 균형발전 주관 지표를 중심으로.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 박승규, 김도형. (2013). 부산의 사회지표 체계 개편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 보고서.
- 박종효 외. (2017). 교육·훈련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및 국가주요지표 체계 진단연구. 통계개발원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 변준석, 심수진, 황선재. (2019). 지표작성 방법론: 정책지표 설계와 활용. 통계개발원.
- 송다영. (2018). “공표기관별 외국인·다문화 통계 비교 연구”. 통계개발원 2018년 상반기 연구 보고서 제1권.
- 유성렬, 염미경, 남상민. (2019). 환경변화에 대응한 제주 사회지표 개편.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용역 보고서.
- 유성렬, 이지연, 우한수, 남상민. (2023). 경상북도 사회지표 개편 연구. 경상북도 연구용역 보고서.
- 전북특별자치도. (2024). 민선8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공약사업 실천계획서. 전북특별자치도.
- 정종석, 김찬준, 이상호, 최준석, 김송년, 오정현, 이동규. (2022). 균형발전지표 보완 및 활용 확대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 지방시대위원회. (2025). 2025년 균형발전지표 동향분석 보고서. 지방시대위원회.
- 통계교육원. (2018). “사회통계의 이해”. 통계교육원 교재.
- 한준 외. (2019). 지표체계 통합 관리 및 활용도 제고방안. 통계개발원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 Eurostat. (2017). *Towards a harmonised methodology for statistical indicators, Part 2: Communicating through indicators*. Eurostat.
- OECD. (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 OECD. (2025). *Social connections across OECD counties*. OECD Publishing(Forthcoming).

## 부 록

1. 전북 사회지표 기존체계 .....	113
2. 전북 사회지표 개편안 .....	118
3. 전북 사회조사 기존 조사항목 .....	124
4. 배경항목 표준항목 .....	126
5. 전북 사회지표 정의서 (신규 및 변경 지표 대상) .....	127
6. 지표 중요도 전문가 조사표 .....	148

## 부록 1. 전북 사회지표 기존체계

### 1.1 2023년 전북 사회지표

분야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명	행정/조사	
교육	교육자원	인적 자원	학생 및 교원 현황	행정	
			교사 1인당 학생 수	행정	
		물적 자원	학교현황	행정	
			사설학원 수	행정	
			학교도서관 좌석 및 장서 수	행정	
		교육 재정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행정	
	사교육 분야, 지출액 및 적정수준		조사		
	교육기회	교육 참여	평생교육 이용실태	조사	
			평생교육 희망 강좌	조사	
			평생교육 기회 충분성	조사	
교육효과	교육 만족도	교육·보육환경 만족도 및 교육기회 충분성	조사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	조사		
보건·의료	건강	건강결정요인	흡연율	행정	
			운동실천 정도 및 장소	조사	
			주로 하는 운동	조사	
			향후 해보고 싶은 운동	조사	
			하루 평균 수면 시간	조사	
			전염병 예방접종실적	행정	
		건강상태	비만도	행정	
			스트레스 인식도	행정	
			유병률	행정	
			자살률	행정	
	보건·의료 이용	의료이용	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불만사유	조사	
			보건·의료 인력 및 시설	인구 천명당 병상 수	행정
				인구 천명당 인력 수	행정
안전	안전현황	범죄	유형별 범죄 발생건수	행정	
			소년범죄 발생 비율	행정	
			범죄발생 신고건수	행정	
		사건·사고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수	행정	
			화재발생 현황	행정	
			자연재해 현황	행정	
	사고예방	경찰관 및 순찰차량 현황	행정		
		소방관 및 소방차량 현황	행정		
		화재현황 7분 이내 도착률	행정		
	안전에 대한 인식	안전에 대한 인식	야간보행 안전도	조사	
사회 안전 인식도 및 중요도			조사		

분야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명	행정/조사	
			범죄피해 두려움	조사	
			본인·가족 범죄피해 두려움	조사	
			동네 사람 및 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	
			긴급상황 대처 수준(재난 등)	조사	
여가·문화	인프라	자원	문화재 수	행정	
			문화예술시설 수	행정	
	여건	환경	여가활용 방법	조사	
			평균 여가시간	조사	
			문화예술분야 지출	조사	
	참여	활동	문화예술 관람 경험	조사	
			동호회 활동 경험	조사	
			동호회 활동 횟수	조사	
			독서 유무 및 분야별 독서량	조사	
			생활시간 압박	조사	
		만족도	지역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대한 견해	조사	
			지역 문화예술행사 참석 여부 및 불만족 이유	조사	
주거·교통	주거	주택 수급	주택보급률	행정	
			주택 유형별 가구 분포	행정	
			현거주지 선택이유	조사	
			현거주지 거주년수 및 거주 의향	조사	
			주택 소유여부 및 소유 기대기간	조사	
			연간 주택 준공 실적 및 분양 실적	행정	
	주거 상황	주택의 질	주택의 점유 형태	행정	
			도시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지수	행정	
			주거 환경 만족도	조사	
	교통	교통 편의	도로 현황	행정	
			자동차 등록대수	행정	
			통학, 통근 시간	조사	
			통학, 통근 주요 이용 교통수단	조사	
			교통수단 보유현황 및 승용차 보유대수	행정	
			대중교통 만족도	조사	
			자전거 이용 만족도 및 미이용 이유	조사	
	환경	환경현황	환경오염물질배출	폐수 발생량	행정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행정
지정폐기물 발생량				행정	
환경자원 이용			전력 소비량	행정	
			폐기물 재활용량	행정	
			상하수도 보급률 및 급수량	행정	
환경상태		환경의 질	에너지 소비량	행정	
			대기 오염도	행정	
			환경 만족도	조사	

분야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명	행정/조사
	환경관리	환경 보전	환경문제 해결방안	조사
			환경오염 방지노력	조사
특성화 항목	특성화	삶의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	조사
			삶의 질	조사
		근로여건	근로여건 만족도	조사
			일자리 만족도	조사
			일자리 충분도	조사
			월평균 가구소득	조사
			소득 만족도	조사
			생계유지 어려움 정도	조사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 기부 경험/계획 경험	조사
			고향사랑 기부 경험/계획 금액	조사
			고향사랑 기부 경험/계획 지역	조사
			고향사랑 기부 경험/계획 시 고려하는 조건	조사

## 1.2 2024년 전북 사회지표

분야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명	행정/조사
가구·가족	가족구조	가족 구조	가구수	행정
			세대수별 가구분포	행정
		가족 형태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 비율	행정
			분거가족 거주지역, 이유, 기간(배우자, 자녀) 미취학아동 유무, 나이, 보육방법, 만족도	조사 조사
		다문화가족	다문화 가구 인식 (관심, 증가에 대한 견해, 지원항목)	조사
		가족변천	혼인	혼인 건수(조 혼인율)
	이혼		이혼 건수(조 이혼율)	행정
	가족기능	가족 관계	삶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가족관계 만족도(배우자, 자녀, 부모 등)	조사
		부모님 부양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 및 현황	조사
			부모님 부양에 대한 견해 및 동거자 부모님 생활비 주 제공자	조사 조사
	가족안전	가족안전유형	조사	
	고용·노사	노동공급	노동력 공급	(비)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고용률 및 취업자 수				행정
실업자 및 실업률				행정

분야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명	행정/조사
	노동수요	사업체 수요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행정
			산업별 구인, 채용, 미충원, 부족, 채용계획 인원	행정
	근로여건	노동 조건	직업 선택 요인	조사
			구직활동 유무 및 취업의 어려움	조사
	취업	일과 가정생활 병행 어려움	조사	
		선호하는 직장 및 취업 지원사업	조사	
	만족도	직장에 대한 근로여건 만족도(하는 일, 임금, 복리후생, 안정성, 환경 등)	조사	
복지	공적부조	자원	지자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율	행정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현황	행정
			사회복지 생활시설 수 및 평균 생활 인원	행정
		사회보험	1인당 의료보험 부담액 및 가입자 수	행정
			국민연금 가입자	행정
		기초생활보장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행정
	시군별 저소득층 인구		행정	
	사회복지서비스	인식, 견해	사회서비스 만족도	조사
			성차별	조사
			선호 장래 방법	조사
		아동, 청소년	보육 시설수 및 아동 수	행정
		여성	여성 경제활동 인구 및 경제활동 참가율	행정
		노인	노후의 생활비 마련 방법	조사
			노인이 겪는 가장 어려운 점	조사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조사
			노인복지 시설 확충	조사
장애인		장애유형별 장애인 수	행정	
	장애인 거주시설 수 및 생활자	행정		
사회참여	시민사회, 정부통합	객관적	공무원 1인당 도민 수	행정
	시민사회 통합	주관적	지역민으로서의 지역정체성	조사
			일반인에 대한 신뢰	조사
		객관적	공동체 의식	조사
			자원봉사 연간 참여 횟수 및 1회당 평균 시간	조사
			기부 여부, 유형, 기부금액	조사
사회적 지원(특정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			조사	
소득·소비	소득	가구 소득	지역소득 제도부문(개인)별 소득 계정	행정
			월평균 가구 소득(임금, 이자, 임대료 포함)	조사
			소득여부 및 소득(소비)에 대한 만족도	조사
	소비	가구 소비	가구당 월평균 생활비	조사

분야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명	행정/조사
			가구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가계 소비 중 가장 큰 지출항목)	조사
			소비자물가지수	행정
			소비생활 만족도	조사
	자산	가계 자산	가계 월평균 저축액	조사
			가계의 부채 규모 및 이유	조사
			지방세 부담	행정
경제적 행복	경제적 행복	경제적으로 행복한 수준의 월 소득액	조사	
인구	인구	총인구	시도별 인구 및 시군별 세대 및 인구	행정
		인구밀도	인구밀도	행정
		인구추계	장래 추계인구,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행정
	인구구성	내국인 인구구성	성 및 연령별 인구	행정
		외국인 인구구성	국적별 자격별 등록외국인 인구 + 시군 국적별 외국인 인구	행정
	인구동태	출생	시군구 합계출산율	행정
			모의 연령별 출산율	행정
		사망	사망자 수 및 사망률(사망원인별)	행정
		인구이동	인구이동 및 순이동	행정
	특성항목	안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조사
환경체감도				조사
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	
청년(19-39세)			부채 현황	조사
			연체 경험	조사
			주요 지출 항목	조사
			생활비 부족 경험	조사
		재테크 유무 및 방식	조사	

## 부록 2. 전북 사회지표 개편안

### 2.1 인구영역

하위 영역	지표	구분		출처
		기존 통계	사회 조사	
총인구	시도별 인구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시군별 세대 및 인구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장래 추계인구	○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국적별 등록외국인 인구	○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현황」
	시군 등록외국인 인구	○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현황」
	자격별 등록외국인 인구	○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현황」
인구구성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성 및 연령별 인구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평균연령 및 중위연령	○		국가데이터처 「장래추계인구」
	혼인상태별 인구	○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출생 및 사망	시군 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사망원인별 사망자 수 및 사망률	○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
인구이동	인구이동 및 순이동	○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귀농·귀어·귀촌 인구	○		국가데이터처 「귀농어·귀촌인 통계」

### 2.2 가구·가족

하위영역	지표	구분		출처
		기존 통계	사회 조사	
가구가족	세대수별 가구분포	○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 비율	○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분거가족 거주지역, 이유, 기간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다문화 가구 분포	○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가족생애 주기	혼인 건수(조 혼인율)	○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이혼 건수(조 이혼율)	○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초혼연령	○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외국인 배우자 부부 혼인 및 이혼 건수	○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결혼에 대한 태도 및 인식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신규)
	출산에 대한 태도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신규)
	가족관계 만족도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가족생활 및 돌봄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 및 현황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미취학아동 유무, 나이, 보육방법, 만족도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부모님 부양에 대한 견해 및 동거자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2.3 건강

하위영역	지표	구분		출처
		기존 통계	사회 조사	
건강상태	비만도	○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스트레스 인식도	○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자살률	○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
	자살충동 여부 및 느낀 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률	○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우울감 경험률	○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치매유병률	○		중앙치매센터 「대한민국치매현황」
	주관적 건강평가	○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영향 요인	흡연율	○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운동실천 정도 및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하루 평균 수면 시간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음주율	○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보건의료 체계	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불만사유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인구 천명당 병상 수	○		행정안전부 「한국도시통계」
	인구 천명당 의료인력 수	○		행정안전부 「한국도시통계」
	의료기관 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의료기관 접근성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미충족 의료이용률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신규)
	건강검진 수검률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 2.4 교육

하위영역	지표	구분		출처
		기존 통계	사회 조사	
교육기회 및 자원	가구당 월평균 공교육비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사교육 참여율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취학률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학업중단율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교육기회 충분성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평생교육 기회 충분성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평생교육 이용실태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평생교육 희망 강좌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교육과정	교사 1인당 학생 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보육환경 만족도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공교육 환경 만족도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학교생활 만족도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신규)
교육효과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졸업생 취업률	○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 2.5 고용·노사

하위 영역	지표	구분		출처
		기존 통계	사회 조사	
노동력	(비)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률 및 취업자 수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업자 및 실업률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	○		국가데이터처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	○		국가데이터처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비	○		국가데이터처 「지역별 고용조사」
근로 여건	직업 선택 요인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구직활동 유무 및 취업의 어려움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선호하는 직장 및 취업지원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일과 가정생활 병행 어려움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직장에 대한 근로여건 만족도(하는 일, 임금, 복리후생, 안정성, 환경 등)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일자리 충분도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2.6 소득·소비

하위영역	지표	구분		출처
		기존 통계	사회 조사	
소득	1인당 지역소득	○		국가데이터처 「지역소득」
	월평균 가구 소득(임금, 이자, 임대료 포함)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소득 만족도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소비	가구당 월평균 생활비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가구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소비자 물가지수	○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조사」
	소비생활 만족도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자산	가계 월평균 저축액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가계의 부채 규모 및 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가계의 부채 부담도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신규)
재정	지방세 부담	○		행정안전부 「지방세 통계연감」
	재정자립도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자료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 2.7 주거·교통

하위영역	지표	구분		출처
		기존 통계	사회 조사	
주택수급	주택보급률	○		행정안전부 「한국도시통계」
	주택 유형별 가구 분포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빈집 및 노후주택 비율	○		국가데이터처 「주택총조사」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
주택시장	주택의 점유 형태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도시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지수	○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
주거의 질	현거주지 선택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현거주지 거주 연수 및 거주 의향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주택만족도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주거환경 만족도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교통편의	도로 현황	○		국토교통부 「도로현황」
	통학, 통근 시간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통학, 통근 주요 이용 교통수단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대중교통 만족도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주차장 이용 만족도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2.8 여가

하위영역	지표	구분		출처
		기존 통계	사회 조사	
인프라	문화예술시설 수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공공체육시설 수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공공체육시설현황」
	공공도서관 수 및 장서 수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도서관통계」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여가지원	평균 여가시간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문화예술분야 지출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생활시간 압박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여가활동	여가활용 방법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문화예술관람 경험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독서 유무 및 독서량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지역 문화예술행사 참석 여부, 불만족 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여행경험률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신규)
	스마트기기 사용시간 및 용도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신규)
	디지털 역량 접근성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신규)
	여가활동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2.9 환경

하위영역	지표	구분		출처
		기존 통계	사회 조사	
환경상태	폐수 발생량	○		환경부 「산업폐수발생및처리현황」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		행정안전부 「한국도시통계」
	전력 소비량	○		한국전력 「전력통계」
	대기 오염도	○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체감환경	대기질 만족도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수질 만족도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토양환경 만족도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소음진동 만족도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녹지환경 만족도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기후변화 불안도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신규)
환경관리	환경오염 방지노력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폐기물 재활용량	○		행정안전부 「한국도시통계」
	상하수도 보급률 및 급수량	○		환경부 「상하수도통계」

## 2.10 안전

하위영역	지표	구분		출처
		기존 통계	사회 조사	
범죄	유형별 범죄 발생건수	○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소년범죄 발생 비율	○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범죄피해 두려움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본인·가족 범죄피해 두려움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재해 및 사고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화재발생 현황	○		국가화재정보센터 「화재통계」
	자연재해 인명 및 재산 피해액	○		국가재난정보센터 「재해연보」
	화재현황 7분 이내 도착률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방호예방과
	산불발생 현황	○		산림청 「산불통계」
안전에 대한 인식	사회안전 인식도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사회안전 중요 분야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지역 내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긴급상황 대처 수준(재난 등)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2.11 사회참여

하위영역	지표	구분		출처
		기존 통계	사회 조사	
지역 복지여건	지자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율	○		지방재정365 「지방예산지표」
	사회복지 공무원 1인당 수급자 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현황)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노후의 생활비 마련 방법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노인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노인이 겪는 가장 어려운 점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포용	장애유형별 장애인 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다문화 가구 인식 정도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성차별 여부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산규)
시민참여	투표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율 분석」
	자원봉사 참여율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기부(후원) 참여율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연대	지역민으로서의 지역정체성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일반인에 대한 신뢰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공동체 의식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사회적 관계망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외로움 경험률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산규)

### 2.12 주관적 웰빙

지표	구분		출처
	기존 통계	사회 조사	
삶에 대한 만족도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지역생활 만족도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긍정정서 경험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부정정서 경험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부록 3. 전북 사회조사 기존 조사항목

연도	영역	조사항목
24년 (80)	일반사항 (7개)	성별,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거주종류, 점유형태, 세대구분 생년월일(1), 혼인상태(2), 교육정도(3), 경제활동(4), 직업(4-1), 중사상지위(4-2), 근로형태(4-2-1)
	가구·가족 (15)	주관적 웰빙(1-1~1-4), 가족관계 만족도_7개(2), 가사분담의식(3-1), 평소 가사분 담 실태(3-2), 부모님 노후돌봄(4-1), 부모님 동거자(4-2), 부모님 생활비 부담(5), 분거가족 여부(6), 분거가족별 지역/이유/기간(6-1), 미취학아동 여부(7), 미취학 아동 보육방법/만족도(7-1), 가구의 위험요인(8), 다문화 가구 관심(9-1), 다문화 가구 증가에 대한 인식(9-2), 다문화 가구 지원사항(9-3)
	소비·소득 (12)	가구소득(10), 생활비지출(11-1), 항목별 생활비 지출금액_10개(11-2), 가구원 수(12-1), 경제적으로 행복한 소득액(12-2), 월평균 저축액(13), 부채 여부(14), 부채액(14-1), 부채이유(14-2), 개인소득 여부(15-1), 소득 만족도(15-1-1), 소비 생활 만족도(15-2)
	고용·노사 (7)	구직 여부(16), 구직어려움 이유(16-1), 직업선택요인(17), 직장근로여건 만족도 _7개(18), 일가정 병행 어려움(19), 선호직장(20-1), 선호취업 지원사업(20-2)
	복지 (10)	성차별 인식정도_4개(21), 선호장래방법(22), 사회서비스 만족도_2개(23), 사회 복지대상(23-1), 노후준비 여부(24), 노후준비방법(24-1), 노후준비계획(24-2), 희 망하는 복지서비스(25), 노인이 체감하는 문제(26), 노인복지시설 확충(27)
	사회참여 (12)	사회적 지원(28-1), 도움상황별_3개(28-2), 자원봉사 여부_8개(29), 자원봉사 참 여의사(30), 자원봉사 미참여 이유(30-1), 현물기부 여부(31), 기부유형(31-1), 기 부경로 및 횟수(31-2), 미기부 이유(31-3), 지역소속감(32), 일반인신뢰(33), 공동 체의식_4개(34)
	공통항목 (6)	야간안전 두려움_2개(35), 지역안전도 인식_9개(36), 의료기관 이용 여부(37), 이용의료기관(37-1), 의료기관 만족도(37-2), 환경체감도_5개(38)
	특성항목 (11)	부채 여부(39), 부채액(39-1), 부채이유(39-2), 부채출처(39-3), 공과금 연체경험 (40), 공과금 연체이유(40-1), 주요 지출항목별 비중_10(41), 생활비 부족경험 (42), 생활비 부족 해결방법(42-1), 제테크 여부(43), 제테크방식(43-1)--> *39~43-1은 19~39세만 대상

연도	영역	조사항목
23년 (95)	일반사항 (4)	성별,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거처종류, 점유형태, 세대구분 생년월일(1), 혼인상태(2), 맞벌이 여부(2-1), 교육정도(3)
	교육 (13)	월평균 생활비(1), 사교육비(2-1), 사교육비 적정 여부(2-2), 적정사교육비 (2-2-1), 평생교육 여부(3-1), 평생교육 종류(3-1-1), 평생교육 미참여 이유 (3-1-2), 희망하는 평생교육(3-2), 평생교육 기회 충분도(3-3), 공교육 만족도 (4-1), 보육환경 만족도(4-2), 교외교육 기회 충분도(4-3), 학교교육 효과_4개(5)
	보건·의료 (13)	주간운동 횟수(6), 운동장소(6-1), 비운동 이유(6-2), 최근 1년 운동 여부(7-1), 운동종목(7-1-1), 희망운동종목(7-2), 수면시간(8), 자살충동(9), 자살충동 이유 (9-1), 의료기관이용 여부(10), 이용의료기관(10-1), 의료기관 만족도(10-2), 의 료기관 불만족이유(10-3)
	주거·교통 (18)	전북 거주연수(11), 전북 거주의향(11-1), 시군 거주의향(11-2), 거주지 선택이 유(12), 주택소유 여부(13), 소유주택 거주예정 기간(13-1), 과거 주택소유 여부 (13-2), 주거환경 만족도_7개(14), 대중교통 만족도_3개(15), 이용교통수단 (16-1), 통근통학 여부(16-2), 통근통학 소요시간(16-3), 통근통학 소요시간 적 정 여부(16-3-1), 통근통학 소요시간 단축 필요요소(16-3-2), 교통수단 보유현황 (17), 자전거이용 여부(18), 자전거이용 만족도(18-1), 자전거미이용 이유(18-2)
	환경 (3)	환경체감도_5개(19), 환경문제 해결방안(20), 환경오염 방지 노력_9개(21)
	여가·문화 (17)	여가시간활용(22), 평균여가시간_2개(23), 문화예술 지출 여부(24), 최근 3개월 문화예술 지출액(24-1), 문화예술부분별 지출액(24-2), 문화예술 관람경험_8개 (25), 지역 문화예술행사 인식(26), 지역 문화예술행사 찬성이유(26-1), 지역 문 화예술행사 반대이유(26-2), 지역 문화예술행사 참석 여부(27), 지역 문화예술 행사 만족도(27-1), 지역 문화예술행사 불만족 이유(27-2), 독서 여부(28), 독서 권 수_5개(28-1), 여가활동 만족도_2개(29),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29-1), 생활 시간 압박_2개(30)
	안전 (8)	야간보행 불안 여부(31), 야간보행 불안 이유(31-1), 사회안전인식_11개(32), 범 죄피해 두려움_2개(33-1), 범죄피해 두려움대상별_3개(33-2), 지역주민평가_7 개(34-1), 지역환경인식_6개(34-2), 위기상황 행동요령 인지도_4개(35)
	공통항목 (11)	주관적웰빙(36-1~36-4), 근로 여부(38), 미근로이유(38-1), 직업(38-2), 종사상지 위(38-3), 근로환경 만족도_5개(38-4), 일자리 충분도(39), 가구 월평균소득(40), 소득 여부(41), 소득만족도(41-1),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42)
	특성항목 (8)	영역별 삶의 만족도(37-1~37-4),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여부(43), 고향사랑기부금액(43-1),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지역(43-1-1), 고향사랑기부지역 연고지(43-1-2),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이유(44), 고향사랑기부금 희망답례품(44-1), 고향사랑기부금 희망용도(44-2)

## 부록 4. 배경항목 표준항목

배경항목명	표준화(안)
성별	1=남자, 2=여자
나이/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8자리)
교육 정도	0=받지 않음, 1=초등학교, 2=중학교, 3=고등학교, 4=대학교(4년제 미만), 5=대학교(4년제 이상), 6=대학원 석사 과정, 7=대학원 박사 과정
교육이수상태	1=졸업, 2=재학, 3=휴학, 4=중퇴, 5=수료
가구주와의 관계	1=가구주 본인, 2=배우자, 3=미혼 자녀, 4=기혼 자녀 및 그 배우자, 5=손주 및 그 배우자, 6=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7=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8=미혼 형제자매(배우자의 미혼 형제자매 포함), 9=기타 친인척, 10=기타 동거인
혼인 상태	1=미혼, 2=배우자 있음, 3=사별, 4=이혼(별거 포함)
경제활동 유무	1=일하였음(일시휴직 포함) 2=구직활동, 3=취업준비, 4=정규교육기관 재학 또는 진학준비, 5=육아 또는 가사, 6=쉬었음, 7=기타
일하지 않은 이유	
직업	1=관리자,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사무종사자, 4=서비스 종사자, 5=판매 종사자, 6=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단순노무 종사자, 10=군인
종사상 지위	1=상용근로자, 2=임시근로자, 3=일용근로자, 4=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5=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6=무급가족종사자
거처 종류 (가구주만조사)	1=단독주택, 2=아파트, 3=연립·다세대 주택, 4=기타
점유 형태 (가구주만조사)	1=자가, 2=전세, 3=보증금 있는 월세, 4=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5=무상
조사 방식	1=조사원 면접식 2=자기 기입식 3=인터넷 조사

## 부록 5. 전북 사회지표 정의서(신규 및 변경 지표 대상)

### 5.1 인구 영역

#### 1) 평균연령과 중위연령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객관지표</b>	<b>시/군</b>	▶ 국가데이터처 「장래추계인구」
<p>·정의: (중위연령) 총인구를 연령별로 세워서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 (평균연령) 총인구에 대한 연령의 평균</p> <p>·출처: 국가데이터처 「장래추계인구」</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세)</p>		
평균연령		중위연령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p>분석변수: 연도, 시/군</p> <p>주: 1) 중위연령 = <math>a + \left( \frac{\frac{N}{2} - \sum_{x=0}^{a-1} N_x}{N_a} \right)</math> (단, a는 중앙값이 속한 연령, <math>N_x</math>는 x세의 인구)</p> <p>2) 평균연령 = <math>\frac{\sum_{x=0}^n N_x \times (x + 0.5)}{N}</math> (단, N은 총인구, <math>N_x</math>는 x세의 인구)</p>		

#### 2) 혼인상태별 인구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객관지표</b>	<b>시/군</b>	▶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p>·정의: 인구의 혼인상태(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별 구성비율</p> <p>·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p>							
남성				여성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p>분석변수: 연도, 연령, 시/군</p>							

#### 3) 귀농어 귀촌인구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객관지표</b>	<b>시/군</b>	▶ 국가데이터처 「귀농어·귀촌인 통계」					
<p>·정의: 동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읍/면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의 수</p> <p>·출처: 국가데이터처 「귀농어·귀촌인 통계」</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명)</p>							
		연령별					
		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귀농(어)							
귀촌							
<p>분석변수: 연도, 시/군</p> <p>주: 귀농인구와 귀어인구를 합산하여 작성</p>							

## 5.2 가구·가족 영역

### 1) 다문화 가구 분포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객관지표</b>	<b>시/군</b>	▶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p>·<b>정의:</b> 귀화자 등이 있는 가구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과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구 또는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 수와 가구원 수(평균)</p> <p>·<b>출처:</b>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가구, 명)</p>						
	다문화 가구 구성(가구)					평균 가구원수
다문화 가구 (가구)	내국인 귀화	내국인(출생)+ 내국인(귀화)	내국인(출생)+ 외국인(결혼이민자)	내국인(출생)+ 다문화자녀	내국인(귀화)+ 외국인(결혼이민자)	
분석변수: 연도, 전국, 시/군						

### 2) 초혼연령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객관지표</b>	<b>시/군</b>	▶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p>·<b>정의:</b> 초혼자의 평균 초혼연령(성별)</p> <p>·<b>출처:</b>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세, %)</p>			
구분	평균 초혼연령		조혼인율
	남	여	
분석변수: 연도, 전국, 시/군			
1) 조혼인율 = (연간 혼인 건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x 1,000			

3) 외국인 배우자 부부 혼인 및 이혼 건수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객관지표</b>	<b>시/군</b>	▶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p>·<b>정의:</b>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및 이혼 건수</p> <p>·<b>출처:</b>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p>																																																		
<p>1) 외국인과의 국적별 혼인 구성비 <span style="float: right;">(단위: 건, %)</span></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연도</th> <th colspan="9">외국인 아내</th> </tr> <tr> <th>혼인건수</th> <th>베트남</th> <th>중국</th> <th>태국</th> <th>일본</th> <th>필리핀</th> <th>미국</th> <th>러시아</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10" style="text-align: right;">(단위: 건, %)</td> </tr> <tr> <th rowspan="2">연도</th> <th colspan="9">외국인 남편</th> </tr> <tr> <th>혼인건수</th> <th>베트남</th> <th>중국</th> <th>태국</th> <th>일본</th> <th>필리핀</th> <th>미국</th> <th>러시아</th> <th>기타</th> </tr> </tbody> </table>			연도	외국인 아내									혼인건수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필리핀	미국	러시아	기타	(단위: 건, %)										연도	외국인 남편									혼인건수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필리핀	미국	러시아	기타
연도	외국인 아내																																																	
	혼인건수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필리핀	미국	러시아	기타																																									
(단위: 건, %)																																																		
연도	외국인 남편																																																	
	혼인건수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필리핀	미국	러시아	기타																																									
<p>2) 외국인과의 국적별 이혼 구성비 <span style="float: right;">(단위: 건, %)</span></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연도</th> <th colspan="9">외국인 아내</th> </tr> <tr> <th>혼인건수</th> <th>베트남</th> <th>중국</th> <th>태국</th> <th>일본</th> <th>필리핀</th> <th>미국</th> <th>러시아</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10" style="text-align: right;">(단위: 건, %)</td> </tr> <tr> <th rowspan="2">연도</th> <th colspan="9">외국인 남편</th> </tr> <tr> <th>혼인건수</th> <th>베트남</th> <th>중국</th> <th>태국</th> <th>일본</th> <th>필리핀</th> <th>미국</th> <th>러시아</th> <th>기타</th> </tr> </tbody> </table>			연도	외국인 아내									혼인건수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필리핀	미국	러시아	기타	(단위: 건, %)										연도	외국인 남편									혼인건수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필리핀	미국	러시아	기타
연도	외국인 아내																																																	
	혼인건수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필리핀	미국	러시아	기타																																									
(단위: 건, %)																																																		
연도	외국인 남편																																																	
	혼인건수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필리핀	미국	러시아	기타																																									
<p>분석변수: 연도, 시/군</p>																																																		

4) 결혼에 대한 태도 및 인식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주관지표</b>	<b>시/군</b>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신규항목)																			
<p>·<b>정의:</b> 결혼이나 동거에 대한 인식 정도</p> <p>·<b>출처:</b>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신규항목)</p>																					
(단위: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3">독신으로 사는 것</th> <th colspan="3">결혼하지 않고 동거</th> </tr> <tr> <th>그렇지 않다</th> <th>보통이다</th> <th>그렇다</th> <th>그렇지 않다</th> <th>보통이다</th> <th>그렇다</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독신으로 사는 것			결혼하지 않고 동거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독신으로 사는 것			결혼하지 않고 동거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p>분석변수: 연도, 성, 연령</p>																					

5) 출산에 대한 태도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주관지표</b>	<b>시/군</b>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신규항목)																				
<p>·정의: 비혼출산과 무자녀에 대해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p> <p>·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신규항목)</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th> <th colspan="3">비혼 자녀</th> <th colspan="3">결혼 후 무자녀</th> </tr> <tr> <th>그렇지 않다</th> <th>보통이다</th> <th>그렇다</th> <th>그렇지 않다</th> <th>보통이다</th> <th>그렇다</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비혼 자녀			결혼 후 무자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비혼 자녀			결혼 후 무자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p>분석변수: 연도, 성, 연령</p> <p>주: 1) '그렇지 않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별로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비율</p> <p>2) '그렇다'는 '매우 그렇다' 또는 '대체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p>																						

5.3 건강 영역

1)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률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객관지표</b>	<b>시/군</b>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p>·정의: 조사대상자 중 고혈압과 당뇨병 비율</p> <p>·출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th> <th colspan="3">당뇨병 유병률</th> <th colspan="3">고혈압 유병률</th> </tr> <tr> <th>계</th> <th>남자</th> <th>여자</th> <th>계</th> <th>남자</th> <th>여자</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당뇨병 유병률			고혈압 유병률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당뇨병 유병률			고혈압 유병률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p>분석변수: 연도, 시/군</p> <p>주: 의사에게 당뇨병 혹은 고혈압을 진단받은 30세 이상 사람의 비율</p>																						

2) 우울감 경험률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주관지표</b>	<b>시/군</b>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p>·정의: 최근 1년 동안 2주 이상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p> <p>·출처: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연도</th> <th rowspan="2">전체</th> <th colspan="2">성별</th> <th colspan="6">연령별</th> </tr> <tr> <th>남자</th> <th>여자</th> <th>19~29세</th> <th>30~39세</th> <th>40~49세</th> <th>50~59세</th> <th>60~69세</th> <th>70세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p>분석변수: 성, 연령, 연도, 시/군</p>																															

3) 치매유병률 → 전북 정자료로 검토 필요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객관지표</b>	<b>시/군</b>	▷ 보건복지부 <b>중앙치매센터, 「대한민국치매현황」, 전북 행정자료</b>		
<p>·<b>정의:</b> 치매유병률 자료를 통한 지역 노인인구 대비 추정치, 치매등록환자 수</p> <p>·<b>출처:</b>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대한민국 치매 현황」,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자료</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명, %)</p>				
		만65세 이상 치매 유병 현황		
만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치매유병률(%)	전체 치매 환자 수	성별	
			남자	여자
분석변수: 연도, 시/군				

4) 주관적 건강평가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주관지표</b>	<b>시/군</b>	▷ 보건복지부 「 <b>지역사회건강조사</b> 」									
<p>·<b>정의:</b> 자신의 건강상태에 만족하는 비율</p> <p>·<b>출처:</b>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나쁨</td> <td style="width: 10%;">매우 나쁘다</td> <td style="width: 10%;">나쁜 편이다</td> <td style="width: 10%;">보통이다</td> <td style="width: 10%;">좋다</td> <td style="width: 10%;">좋은 편이다</td> <td style="width: 10%;">매우 좋다</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평균 (5점척도)</td> </tr> </table>		나쁨	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	보통이다	좋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평균 (5점척도)
	나쁨	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	보통이다	좋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평균 (5점척도)			
<p>분석변수: 연도, 시/군, 성별,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 주택유형, 주거점유 형태, 가구소득, 직업</p> <p>주: 1) 나쁘다=매우 나쁘다 + 나쁜 편이다 2) 좋다=좋은 편이다 + 매우 좋다</p>											

5) 음주율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객관지표</b>	<b>시/군</b>	▷ 보건복지부 「 <b>지역사회건강조사</b> 」								
<p>·<b>정의:</b> 음주율(한 달에 한 번 이상)과 고위험 음주율(주 2회 이상, 1회 남자 7잔, 여자 5잔 이상)로 제시</p> <p>·<b>출처:</b>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colspan="2"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음주율</td> <td colspan="2"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고위험음주율</td> </tr> <tr> <td style="width: 25%; text-align: center;">남성</td> <td style="width: 25%; text-align: center;">여성</td> <td style="width: 25%; text-align: center;">남성</td> <td style="width: 25%; text-align: center;">여성</td> </tr> </table>	음주율		고위험음주율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음주율		고위험음주율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분석변수: 연도, 시/군, 연령										

6) 의료기관 수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객관지표</b>	<b>시/군</b>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p>·정의: 시군별 의료기관수(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 한방병원, 보건소, 조산원, 약국)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의료이용통계」</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개소)</p>		
의료기관		
연도	계	종합 <sup>1)</sup> 병원 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보건소 <sup>2)</sup> 조산원 약국
<p>분석변수: 연도, 시군                      주: 1)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도지역에만 有, 전국 15개)</p>		

7) 의료기관 접근성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객관지표</b>	<b>시/군</b>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p>·정의: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의 평균거리와 최대거리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 보고서」</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km)</p>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2">응급의료시설</th> <th colspan="2">종합병원</th> <th colspan="2">병원</th> <th colspan="2">의원</th> <th colspan="2">보건기관</th> </tr> <tr> <th>평균</th> <th>최대</th> <th>평균</th> <th>최대</th> <th>평균</th> <th>최대</th> <th>평균</th> <th>최대</th> <th>평균</th> <th>최대</th> </tr> </table>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p>분석변수: 연도, 시/군</p>																						

8) 미충족 의료이용률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객관지표</b>	<b>시/군</b>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신규항목)				
<p>·정의: 최근 1년 동안 병원진료가 필요하였으나, 받지 못한 비율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신규항목)</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p>						
연도	미충족 의료이용률	미충족이유				
		시간이 부족해서	증상이 가벼워서	경제적 이유	교통이 불편해서	기타 <sup>1)</sup>
<p>분석변수: 연도, 시/군, 연령, 성별                      주: 1) 기타: '귀찮아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 확신이 들지 않아서', '진료 받기가 무서워서' 포함 (결과값 확인 후 변경 가능)</p>						

9) 건강검진 수검률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객관지표</b>	<b>시/군</b>	▶ <b>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b>				
·정의: 대상인원 중 건강검진(암검진)을 받은 사람의 비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단위: 명)						
	건강검진		암검진(악성신생물)			
	대상자 수	수검자 수	수검률	대상자 수	수검자 수	수검률
분석변수: 연도, 시/군						

5.4 교육 영역

1) 사교육 참여율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객관지표</b>	<b>시/군</b>	▶ <b>「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b>			
·정의: 지난 1년간 학교급별 사교육에 참여한 비율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단위: %, 만 원)					
	사교육 참여율				
연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분석변수: 연도, 시/군					

2) 취학률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객관지표</b>	<b>시/군</b>	▶ <b>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b>										
·정의: 취학 적령인구 대비 실제 취학자의 비율임. 각 학교급별 취학 적령인구는 초등학교 만 6~11세, 중학교 만 12~14세, 고등학교 만 15~17세, 고등교육기관 만 18~21세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단위: %, 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분석변수: 연도, 시/군												
주: 취학률 = (취학 적령 재적 학생수 ÷ 취학 적령 인구) × 100												

3) 학업중단율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객관지표</b>	<b>시/도</b>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p>·정의: 전체 학생 중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비율</p> <p>·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p>		
연도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일반고    특수목적고    자율고    특성화고
분석변수: 연도, 성별, 타 시도		

4) 학교생활 만족도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주관지표</b>	<b>시/군</b>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신규항목)
<p>·정의: 재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항목별 만족 정도</p> <p>·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p> <p>1) 학교생활 만족도(전체 평균)</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점)</p>		
	전반적인 학교생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우관계    교사(교수)와의 관계    학교시설 및 설비    학교주변 환경
<p>분석변수: 연도, 시/군, 성별,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 주택유형, 주거점유 형태, 가구소득, 직업</p> <p>주: 각 영역에 대해 5점 척도(1=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5=매우 만족한다)로 측정된 만족도 평균 점수임</p> <p>2)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우관계, 교사(교수)와의 관계, 학교시설 및 설비, 학교주변 환경,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각각 제시</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점)</p>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평균 (5점 척도)
분석변수: 연도, 시/군, 성별, 연령		

5) 졸업생 취업률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객관지표</b>	<b>시/도</b>	▷ <b>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취업통계연보」</b>										
<p>·<b>정의:</b>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졸업자 중 취업대상자 대비 취업자의 비율</p> <p>·<b>출처:</b>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취업통계연보」</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p>												
고등학교 <sup>1)</sup>		고등교육기관 <sup>2)</sup>										
계	일반	특수목적	자율	특성화	계	전문대학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일반대학원
<p>분석변수: 연도, 시/군, 성별, 연령</p> <p>주: 1)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률= [취업자 수/(졸업생 수-진학자 수-군입대자 수)] × 100</p> <p>2)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취업률=취업자/취업대상자 ×100</p> <p>* 취업대상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제외인정자+외국인 유학생)</p>												

5.5 노동 영역

1)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객관지표</b>	<b>시/군</b>	▷ <b>국가데이터처 「지역별 고용조사」</b>												
<p>·<b>정의:</b>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 비율</p> <p>·<b>출처:</b> 국가데이터처 「지역별 고용조사」</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천명, %)</p>														
취업자 수(천명)							구성비(%)							
	계	농림업, 어업	광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전기통신, 금융	사업개, 인공공, 서비스, 기타	계	농림업, 어업	광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전기통신, 금융	사업개, 인공공, 서비스, 기타
전국														
전북														
시군														
<p>분석변수: 연도, 시/군</p>														

2)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객관지표</b>	<b>시/군</b>	▷ 국가데이터처 「지역별 고용조사」											
<p>·정의: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율</p> <p>·출처: 국가데이터처 「지역별 고용조사」</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천 명, %)</p>													
취업자 수(천명)		구성비(%)											
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 자	서비스 판매 종사자	농림어 업 숙련 종사자	기능 기계 조작 조립종 사자	단순 노무 종사 자	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 자	서비스 판매 종사자	농림어 업 숙련 종사자	기능 기계 조작 조립종 사자	단순노 무종사 자
전국													
전북													
시군													
분석변수: 연도, 시/군													

3)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비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객관지표</b>	<b>시/군</b>	▷ 국가데이터처 「지역별 고용조사」								
<p>·정의: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 비율</p> <p>·출처: 국가데이터처 「지역별 고용조사」</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천명, %)</p>										
	전체 취업자 수 (천명)	18시간 미만 근로자	임금 근로자 수 (천명)	상용	임시	일용	비임금 근로자 수 (천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종사자
전국										
강원도										
시군										
분석변수: 연도, 시/군										

4) 일자리 충분도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주관지표</b>	<b>시/군</b>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p>·정의: 지역 내 일자리 기회가 얼마나 충분한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p> <p>·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점)</p>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 척도)
분석변수: 연도, 시/군, 성별, 연령,								

## 5.6 소득·소비 영역

### 1)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정도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주관지표</b>	<b>시/군</b>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정의: 지난 1년간 생계유지를 위해 어려움을 겪은 경험 여부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단위: %, 점)					
	전혀 없었다	별로 없었다	가끔 있었다	매우 자주 있었다	평균 (4점 척도)
분석변수: 연도, 시/군, 성별, 연령					

### 2) 가계의 부채 부담도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주관지표</b>	<b>시/군</b>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정의: 부채가 있는 가구에서 부채로 인한 생계에 부담을 느끼는 정도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단위: %, 점)					
	전혀 부담 없다	부담이 없는 편	약간 부담	매우 부담	평균 (4점 척도)
분석변수: 연도, 시/군, 성별, 연령					

### 3) 재정자립도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객관지표</b>	<b>시/군</b>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자료			
·정의: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자료					
(단위: %)					
구분	전북				전국
연도	일반회계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분석변수: 연도, 전국, 시/군					

## 5.7 주거·교통 영역

### 1) 노후주택 비율(또는 빈집 비율)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객관지표</b>	<b>시/군</b>	▶ 국가데이터처 「주택총조사」	
·정의: 재고 주택 중 미거주 주택 및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비율 ·출처: 국가데이터처 「주택총조사」 (단위: %)			
		빈집비율	노후주택 비율
		전국	전북
		전국	전북
분석변수: 연도, 전국, 시/군			

### 2)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객관지표</b>	<b>시/군</b>	▶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
·정의: 공공부문에서 공급한 임대주택 유형별 재고 수(시도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 (단위: 호, %)		
		임대유형별
연도	전체	영구 임대    50년 임대    국민 임대    10년 임대    5년 임대    사원 임대    장기 전세    기존 주택 전세 임대    행복 주택    기존 주택 매입 임대    통합 공공 임대
분석변수: 연도, 전국, 시/군		

### 3) 주택만족도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주관지표</b>	<b>시/군</b>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정의: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단위: %, 점)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5점 척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분석변수: 연도, 시/군, 성별, 연령, 주택유형					

4) 주거환경 만족도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주관지표</b>	<b>시/군</b>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p>·정의: 주거환경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 (녹지공간, 편의시설 접근, 교통편의성, 기반시설)</p> <p>·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3">녹지공간</th> <th colspan="3">편의시설 접근</th> <th colspan="3">교통 편의성</th> <th colspan="3">기반시설</th> </tr> <tr> <th>만족</th> <th>보통</th> <th>불만족</th> <th>만족</th> <th>보통</th> <th>불만족</th> <th>만족</th> <th>보통</th> <th>불만족</th> <th>만족</th> <th>보통</th> <th>불만족</th> </tr> </thead> </table> <p>분석변수: 연도, 시/군, 성별, 연령, 주택유형</p>			녹지공간			편의시설 접근			교통 편의성			기반시설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녹지공간			편의시설 접근			교통 편의성			기반시설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5) 주차장이용 만족도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주관지표</b>	<b>시/군</b>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p>·정의: 주거지역 내 주차장 이용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p> <p>·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3">불만족</th> <th rowspan="2">보통</th> <th rowspan="2">만족</th> <th colspan="2">평균 (5점 척도)</th> </tr> <tr> <th>매우 불만족</th> <th>불만족</th> <th>만족</th> <th>매우 만족</th> </tr> </thead> </table> <p>분석변수: 연도, 시/군, 성별, 연령, 주택유형</p>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5점 척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5점 척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5.8 여가 영역

1) 공공체육시설 수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객관지표</b>	<b>시/도</b>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공공체육시설현황」						
<p>·정의: 간이운동장, 육상경기장, 축구장, 야구장, 수영장 등을 포함하는 주요 공공체육시설의 수</p> <p>·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전국공공체육시설현황」</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개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연도</th> <th>간이운동장</th> <th>축구장</th> <th>야구장</th> <th>수영장</th> <th>육상경기장</th> </tr> </thead> </table> <p>분석변수: 연도, 전국, 타 시도</p>			연도	간이운동장	축구장	야구장	수영장	육상경기장
연도	간이운동장	축구장	야구장	수영장	육상경기장			

2) 공공도서관 수 및 장서 수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객관지표</b>	<b>시/도</b>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도서관통계」			
<p>·정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민간이 설립한 공공도서관 수 및 보유장서 수</p> <p>·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도서관통계」</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관, 권)</p>					
구분		도서관수	좌석수	자료수	1만 명당 장서수 <sup>2)</sup>
지역	연도				
<p>분석변수: 연도, 전국, 타 시도</p> <p>주: 1)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문고, 교도소도서관, 병영도서관, 병원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전문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 기준</p> <p>2) 1만 명당 장서 수=자료 수/주민등록인구수*10000</p> <p>자료수: 총 도서(인쇄) 수(권) + 총 비도서 수(점) + 총 연속간행물 수(종)</p>					

3)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주관지표</b>	<b>시/군</b>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p>·정의: 문화여가시설의 접근성과 충분 정도에 대한 만족 비율</p> <p>·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점)</p>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5점 척도)
<p>분석변수: 연도, 시/군, 성별, 연령, 가구소득</p>								

4) 여행경험률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객관지표</b>	<b>시/군</b>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신규항목)			
<p>·정의: 지난1년간 국내여행과 해외여행 경험비율과 일수</p> <p>·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일)</p>					
구분		국내여행		해외여행	
		경험률	일수	경험률	일수
<p>분석변수: 연도, 시/군, 성별, 연령, 가구소득</p>					

5) 스마트기기 사용시간 및 용도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객관지표</b>	<b>시/군</b>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신규항목)					
<p>·정의: 하루평균 스마트기기 사용시간 및 이용 콘텐츠</p> <p>·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시간, %)</p>							
1일 평균 사용시간	이용콘텐츠 비율						
	계	자료 검색	영상 시청	SNS 등 커뮤니티 활동	게임	업무	기타
분석변수: 연도, 시군, 성별, 연령, 가구소득							

6) 디지털 역량 접근성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주관지표</b>	<b>시/군</b>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신규항목)
<p>·정의: 디지털 활용 역량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상변화에 대한 인식 정도</p> <p>·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p>		

5.9 환경 영역

1)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객관지표</b>	<b>시/도</b>	▷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p>·정의: 도시공원<sup>1)</sup>의 시민 1인당 면적</p> <p>·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km<sup>2</sup>, m<sup>2</sup>)</p>				
연도	결정면적	미집행면적 <sup>2)</sup>	조성면적	1인당 조성면적 <sup>3)</sup>
분석변수: 연도, 전국, 타시도				
<p>주: 1)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간</p> <p>2) 사업에 착수(실시계획인가 혹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면적</p> <p>3) 1인당 조성면적 = 조성면적 ÷ 용도지역 기준 도시인구</p>				

2) 대기질 만족도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주관지표</b>	<b>시/군</b>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p>·정의: 거주지역의 대기질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p> <p>·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점)</p>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매우 만족	평균 (5점 척도)
분석변수: 연도, 시/군, 성별, 연령								

3) 수질 만족도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주관지표</b>	<b>시/군</b>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p>·정의: 거주지역의 수질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p> <p>·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점)</p>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매우 만족	평균 (5점 척도)
분석변수: 연도, 시/군, 성별, 연령								

4) 토양환경 만족도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주관지표</b>	<b>시/군</b>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p>·정의: 거주지역의 토양환경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p> <p>·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점)</p>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매우 만족	평균 (5점 척도)
분석변수: 연도, 시/군, 성별, 연령								

5) 소음진동 만족도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주관지표</b>	<b>시/군</b>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p>·정의: 거주지역의 소음진동 수준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p> <p>·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점)</p>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매우 만족	평균 (5점 척도)
분석변수: 연도, 시/군, 성별, 연령								

6) 녹지환경 만족도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주관지표</b>	<b>시/군</b>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p>·정의: 거주지역의 녹지환경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p> <p>·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점)</p>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매우 만족	평균 (5점 척도)
분석변수: 연도, 시/군, 성별, 연령								

7) 기후변화 불안도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주관지표</b>	<b>시군</b>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신규항목)						
<p>·정의: 기후변화로 인해 체감하는 불안 정도(심각 정도)</p> <p>·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점)</p>								
	불안하지 않다	전혀 불안하지 않다	별로 불안하지 않다	보통	불안하다	약간 불안하다	매우 불안하다	평균 (5점 척도)
분석변수: 연도, 시/군, 성별, 연령								

8) 상하수도 보급률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객관지표</b>	<b>시/도</b>	▶ 환경부 「상하수도통계」		
.정의: 기존 통계에 놓여진 지역의 상하수도 보급률 추가 .출처: 「상하수도통계」				
(단위 : %, t)				
	상수도 보급률	1인당 급수량	하수도 보급률	하수도 설치율
분석변수: 연도, 시/군				

5.10 안전 영역

1) 산불 발생 현황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객관지표</b>	<b>시/군</b>	▶ 산림청 「산불통계」		
.정의: 산불발생 건수 및 피해 현황 .출처: 산림청 「산불통계」				
(단위: ha, 천원)				
구분	면적(ha)			
	계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기타
구분	피해액(천원)			
	계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기타
분석변수: 연도, 시/군				

### 5.11 사회통합 영역

#### 1)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주관지표</b>	<b>시/군</b>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신규항목)
<p>·정의: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장애인 등과의 사회적 거리감</p> <p>·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p>		
1) 외국인 근로자 <span style="float: right;">(단위: %)</span>		
	계	받아 들일 수 없음    나의 이웃이 되는 것    나의 직장 동료가 되는 것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분석변수: 연도, 시/군, 성별, 연령, 교육정도, 가구소득		
2) 외국인 유학생 <span style="float: right;">(단위: %)</span>		
	계	받아 들일 수 없음    나의 이웃이 되는 것    나의 직장 동료가 되는 것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분석변수: 연도, 시/군, 성별, 연령, 교육정도, 가구소득		
3) 다문화 가족 <span style="float: right;">(단위: %)</span>		
	계	받아 들일 수 없음    나의 이웃이 되는 것    나의 직장 동료가 되는 것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분석변수: 연도, 시/군, 성별, 연령, 교육정도, 가구소득		
4) 장애인 <span style="float: right;">(단위: %)</span>		
	계	받아 들일 수 없음    나의 이웃이 되는 것    나의 직장 동료가 되는 것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분석변수: 연도, 시/군, 성별, 연령, 교육정도, 가구소득		

#### 2) 투표율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객관지표</b>	<b>시/군</b>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율 분석」
<p>·정의: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의 투표율</p> <p>·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율 분석</p>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연령대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022 (지방선거)		
2022 (대통령선거)		
2025 (대통령선거)		
분석변수: 선거별, 성별, 연령		

3)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주관지표</b>	<b>시/군</b>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																		
<p>·정의: 지역의 주민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역 주민에게 잘 제공되고 있는지를 조사</p> <p>·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p> <p>1) 임신·출산·육아 복지</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15%;">그렇지 않다</td> <td style="width: 15%;">전혀 그렇지 않다</td> <td style="width: 15%;">그렇지 않은 편이다</td> <td style="width: 15%;">보통이다</td> <td style="width: 15%;">그렇다</td> <td style="width: 15%;">그런편이다</td> <td style="width: 15%;">매우 그렇다</td> <td style="width: 10%;">5점 평균</td> </tr> </table> <p>분석변수: 연도, 시/군, 성별, 연령, 교육정도, 가구소득                      주: 사회복지서비스만족도 비율은 만 19세 이상 응답자 대상으로 응답항목 중 (6) 잘 모르겠다 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p> <p>2)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복지</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15%;">그렇지 않다</td> <td style="width: 15%;">전혀 그렇지 않다</td> <td style="width: 15%;">그렇지 않은 편이다</td> <td style="width: 15%;">보통이다</td> <td style="width: 15%;">그렇다</td> <td style="width: 15%;">그런편이다</td> <td style="width: 15%;">매우 그렇다</td> <td style="width: 10%;">5점 평균</td> </tr> </table> <p>분석변수: 연도, 시/군, 성별, 연령, 교육정도, 가구소득                      주: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비율은 만 19세 이상 응답자 대상으로 응답항목 중 (6) 잘 모르겠다 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p>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4) 외로움 경험률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주관지표</b>	<b>시/군</b>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신규항목)							
<p>·정의: 지난 2주간 외롭다고 느낀 사람의 비율</p> <p>·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15%;">외롭지 않다</td> <td style="width: 15%;">전혀 그렇지 않다</td> <td style="width: 15%;">별로 그렇지 않다</td> <td style="width: 15%;">외롭다</td> <td style="width: 15%;">가끔 그렇다</td> <td style="width: 15%;">자주 그렇다</td> </tr> </table> <p>분석변수: 연도, 시/군, 성별, 연령, 교육정도, 가구소득</p>				외롭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외롭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외롭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외롭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 5.12 주관적 웰빙

### 1) 삶에 대한 만족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주관지표</b>	<b>시/군</b>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정의: 최근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조사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단위: %, 점)		
	합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 ← (5) → 매우 만족한다 (10)
평균		
분석변수: 연도, 시/군, 성별, 연령, 교육정도, 가구소득		

### 2)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주관지표</b>	<b>시/군</b>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정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조사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단위: %, 점)		
	합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 ← (5) → 매우 만족한다 (10)
평균		
분석변수: 연도, 시/군, 성별, 연령, 교육정도, 가구소득		

### 3) 행복감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주관지표</b>	<b>시/군</b>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정의: 자신이 어제 느낀 감정 중 어제 얼마나 행복하였는지를 조사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단위: %, 점)		
	합계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다 (0) ← (5) → 자주 행복했다 (10)
평균		
분석변수: 연도, 시/군, 성별, 연령, 교육정도, 가구소득		

### 4) 걱정도

지표유형	작성단위	자료출처
<b>주관지표</b>	<b>시/군</b>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정의: 자신이 어제 느낀 감정 중 어제 얼마나 걱정하였는지를 조사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단위: %, 점)		
	합계	한 번도 걱정하지 않았다(0) ← (5) → 자주 걱정을 했다 (10)
평균		
분석변수: 연도, 시/군, 성별, 연령, 교육정도, 가구소득		

## 부록 6. 지표중요도 조사 전문가 조사표

<http://sri.kostat.go.kr>

### 전북 사회지표 체계 개편을 위한 지표 중요도 지문

안녕하십니까? 국가통계연구원<sup>1)</sup> 정책통계연구팀입니다.

전북의 요청으로 국가통계연구원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지표 및 사회조사 항목 체계 개편 연구』를 수요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북의 지역사회지표를 현재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도록 사회지표를 개편하고자, 각 영역별 기존 지표체계를 중심으로 지표 중요도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표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 <<작성방법>>

- 전북 사회지표 개편안은 총 12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인구, 가족가구, 건강, 노동, 소득소비, 교육, 주거교통, 환경, 안전, 여가, 사회통합, 주관적 웰빙
    - \* 기존의 '복지' 영역을 사회참여 영역과 통합하여 '사회통합'으로 변경
    - \*\* 주관적 웰빙 영역은 삶의 만족도와 정서경험 등의 지표로 구성될 예정
- 송부된 조사표의 영역은 전체 영역 중에서 3~4개 영역(인구, 가족가구, 사회통합)을 묶어서 응답하시도록 분류하였습니다.
  - 해당 영역에서 개별 지표들이 중요한 정도를 평가(1~7점), 관심 영역과 삭제 및 추가 지표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이외에 추가로 관심 있는 영역도 선택하여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붙임1)
- 다소 지표수가 많아 번거로우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은 **5월 11일**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국가통계연구원 심수진 사무관(042-366-7133, [shimsj@korea.kr](mailto:shimsj@korea.kr))

- 작성하신 조사표는 [yinari@korea.kr](mailto:yinari@korea.kr) 로 회신부탁드립니다.

1) 현 국가데이터연구원

## 1. 인구

### 1) 지표개편(안)

분야	관심영역	지표명	중요도						
			← 낮음			높음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인구	인구	시도별 인구							
		시군별 세대 및 인구							
		인구밀도							
		장래 추계인구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인구구성	성 및 연령별 인구							
		국적별 등록외국인 인구							
		시군 등록외국인 인구							
		자격별 등록외국인 인구							
	인구동태	시군 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사망원인별 사망자 수 및 사망률							
		인구이동 및 순이동							

### 2) 인구분야 관심영역의 적정성

### 3) 삭제 지표에 대한 의견

### 4) 추가 지표에 대한 의견

## 2. 가족·가구

### 1) 지표개편(안)

분야	관심영역	지표명	중요도						
			← 낮음				높음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가족·가구	가족구조	가구수							
		세대수별 가구분포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 비율							
		분거가족 거주지역, 이유, 기간							
		미취학아동 유무, 나이, 보육방법 만족도							
		다문화 가구 인식							
			<b>[질문내용]</b> 다문화 가구에 대한 관심정도와 필요한 지원사항						
	가족형성	혼인 건수(조 혼인율)							
		이혼 건수(조 이혼율)							
	가족생활	삶에 대한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 및 현황							
		부모님 부양에 대한 견해 및 동거자							
		부모님 생활비 주 제공자*							
		가족안전유형*							
			<b>[질문내용]</b> 가구·가족을 유지하는데 위험을 느꼈던 일						
	돌봄 (기존의 복지영역 지표)	사회서비스 만족도							
		성차별 여부*							
		선호 장례 방법*							
		보육 시설 수 및 아동 수							
여성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노후의 생활비 마련 방법									
노인이 겪는 가장 어려운 점*									
노인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노인복지 시설 확충*							

### 2) 가족·가구분야 관심영역의 적정성

### 3) 삭제 지표에 대한 의견

(‘부모님 생활비 주 제공자’, ‘가족안전유형’, ‘성차별 여부’, ‘선호 장례 방법’, ‘노인 관련 지표’ 삭제 예정)

### 4) 추가 지표에 대한 의견

### 3. 사회통합

#### 1) 지표개편(안)

분야	관심영역	지표명	중요도							
			← 낮음				높음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회통합	지역사회 또는 시민성	공무원 1인당 도민 수								
	참여 및 연대	지역민으로서의 지역정체성 [질문내용]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소속감								
		일반인에 대한 신뢰 [질문내용]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정도								
		공동체 의식 [질문내용] 거주지역 주민에 대해 느낀 점								
		자원봉사 연간 참여 횟수, 1회당 평균 시간*								
		기부 여부, 유형, 기부금액*								
		사회적 지원 [질문내용]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포용 (기존의 복지영역 지표)	지자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율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현황								
		사회복지 생활시설 수, 평균 생활 인원								
		국민연금 가입자								
		장애유형별 장애인 수 장애인 거주시설 수 및 생활자								

#### 2) 사회통합분야 관심영역의 적정성

#### 3) 삭제 지표에 대한 의견

(‘자원봉사 횟수·시간’, ‘기부여부·유형·금액’ 지표 삭제 예정)

#### 4) 추가 지표에 대한 의견

(지역사회 또는 시민성 영역의 경우 신규지표 추가 예정)

## 1. 교육

### 1) 지표개편(안)

분야	관심영역	지표명	중요도						
			← 낮음			높음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교육	교육자원	학생 및 교원 현황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교현황							
		사설학원 수*							
		학교도서관 좌석 및 장서 수*							
		가구당 월평균교육비							
		[질문내용] 자녀 학령별 월평균 공교육비 및 사교육비 금액							
	사교육	사교육 분야, 지출액 및 적정수준							
		[질문내용] 종류(학원, 과외, 학습지, 인터넷 등)별 사교육비 금액							
	평생교육	평생교육 이용실태							
		평생교육 희망 강좌							
		평생교육 기회 충분성							
	교육효과	교육보육환경 만족도, 교육기회 충분성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							

### 2) 교육 분야 관심영역의 적정성

### 3) 삭제 지표에 대한 의견

(‘사설학원 수’, ‘학교도서관 좌석·장서 수’, ‘사교육 분야 및 지출액’ 지표 삭제 예정)

### 4) 추가 지표에 대한 의견

## 2. 노동

### 1) 지표개편(안)

분야	관심영역	지표명	중요도						
			← 낮음			높음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노동	일자리	(비)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고용률 및 취업자 수							
		실업자 및 실업률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산업별 구인, 채용, 미충원, 부족, 채용계획 인원*							
	근로여건	직업 선택 요인							
		구직활동 유무 및 취업의 어려움							
		일과 가정생활 병행 어려움							
		선호하는 직장 및 취업지원사업							
		직장에 대한 근로여건 만족도 (하는 일, 임금, 복리후생, 안정성, 환경 등)							

### 2) 노동 분야 관심영역의 적정성

### 3) 삭제 지표에 대한 의견

(‘산업별 구인·채용·미충원, 부족·채용계획 인원’ 삭제 예정)

### 4) 추가 지표에 대한 의견

### 3. 소득·소비

#### 1) 지표개편(안)

분야	관심영역	지표명	중요도						
			← 낮음			높음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소득 · 소비	소득	지역소득 제도부문(개인)별 소득 계정							
		월평균 가구 소득(임금, 이자, 임대료 포함)							
		소득 여부 및 소득(소비)에 대한 만족도							
		경제적으로 행복한 수준의 월 소득액*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시군별 저소득층 인구							
	소비	가구당 월평균 생활비							
		가구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 (가계 소비 중 가장 큰 지출항목)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생활 만족도							
	자산	가계 월평균 저축액							
		가계의 부채 규모 및 이유							
		지방세 부담							

#### 2) 소득·소비 분야 관심영역의 적정성

#### 3) 삭제 지표에 대한 의견

(‘경제적으로 행복한 수준의 월 소득액’ 삭제 예정)

#### 4) 추가 지표에 대한 의견

#### 4. 여가

##### 1) 지표개편(안)

분야	관심영역	지표명	중요도						
			← 낮음			높음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여가	여가 자원	문화재수							
		문화예술시설 수							
		평균 여가시간							
	여가 활동	여가활용 방법							
		문화예술분야 지출							
		<b>[질문내용]</b> 최근 3개월간 지출금액 및 분야별 지출금액							
		문화예술관람 경험							
		동호회 활동 경험*							
		<b>[질문내용]</b> 문화예술행사 항목별로 해당분야 동호회 참여 경험							
		동호회 활동 횟수*							
		독서 유무 및 분야별 독서량*							
		지역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대한 견해							
	<b>[질문내용]</b> 지역 문화예술 행사개최 찬성								
	여가 결과	지역 문화예술행사 참석 여부, 불만족 이유							
		여가활동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b>[질문내용]</b>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전반적인 여가활동 만족도									
생활시간 압박									
		<b>[질문내용]</b> 주말/평일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인식							

##### 2) 여가 분야 관심영역의 적정성

##### 3) 삭제 지표에 대한 의견

( '문화예술분야 지출', '동호회 활동경험 횟수', '독서유무·분야별 독서량' 삭제 예정)

##### 4) 추가 지표에 대한 의견

## 1. 건강

### 1) 지표개편(안)

분야	관심영역	지표명	중요도						
			← 낮음			높음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건강	건강결정 요인	흡연율							
		운동실천 정도 및 장소*							
		[질문내용] 평소 건강유지를 위해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와 주로 운동하는 장소							
		주로 하는 운동							
		[질문내용] 지난 1년간 주로 한 운동종목							
		향후 해보고 싶은 운동*							
	건강상태	하루 평균 수면 시간							
		전염병 예방접종실적*							
		비만도							
		스트레스 인식도							
	의료이용	유병률							
		자살률							
		자살충동 여부 및 느낀 이유							
		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불만사유							
인구 천명당 병상 수									
인구 천명당 인력 수									
	1인당 의료보험 부담액, 가입자 수								

### 2) 건강 분야 관심영역의 적정성

### 3) 삭제 지표에 대한 의견

(‘운동정도·장소’, ‘희망운동’, ‘전염병 예방접종실적’ 삭제 예정)

### 4) 추가 지표에 대한 의견

## 2. 주거·교통

### 1) 지표개편(안)

분야	관심영역	지표명	중요도						
			← 낮음			높음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거·교통	주택수급 및 시장	주택보급률							
		주택 유형별 가구 분포							
		주택 소유여부 및 소유 기대기간							
		연간 주택 준공 실적 및 분양 실적							
		주택의 점유 형태							
		도시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지수							
	주거상황	현거주지 선택이유							
		현거주지 거주 연수 및 거주 의향							
		주거 환경 만족도							
	교통편의	도로 현황							
		자동차 등록대수							
		통학, 통근 시간							
		통학, 통근 주요 이용 교통수단							
		교통수단 보유현황, 승용차 보유대수							
		<b>[질문내용]</b> 가구에서 보유하는 교통수단, 승용차 보유대수							
		대중교통 만족도							
자전거 이용 만족도 및 미이용 이유*									

### 2) 주거·교통 분야 관심영역의 적정성

### 3) 삭제 지표에 대한 의견

(‘교통수단 보유현황’, ‘자전거 이용 만족도 및 미이용 이유’ 삭제 예정)

### 4) 추가 지표에 대한 의견

### 3. 환경

#### 1) 지표개편(안)

분야	관심영역	지표명	중요도						
			← 낮음				높음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환경	오염물질 배출	폐수 발생량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지정폐기물 발생량							
	환경상태	대기 오염도							
		환경 만족도							
	환경관리	환경문제 해결방안*	[질문내용]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할 과제						
		환경오염 방지노력*	[질문내용]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각 항목별 노력 정도(대중교통 이용, 분리배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세제사용 줄이기, 녹색제품 구매, 물절약, 자연보호 운동 등)						
		전력 소비량							
		폐기물 재활용량							
		상하수도 보급률 및 급수량							
에너지 소비량									

#### 2) 환경 분야 관심영역의 적정성

#### 3) 삭제 지표에 대한 의견

( '환경문제 해결방안', '환경문제 방지노력' 삭제 예정)

#### 4) 추가 지표에 대한 의견

#### 4. 안전

##### 1) 지표개편(안)

분야	관심영역	지표명	중요도						
			← 낮음			높음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안전	범죄	유형별 범죄 발생건수							
		소년범죄 발생 비율							
		범죄발생 신고건수*							
	사건 사고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수							
		화재발생 현황							
		자연재해 현황							
	사고 예방	경찰관 및 순찰차량 현황							
		소방관 및 소방차량 현황							
		화재현황 7분 이내 도착률							
	안전에 대한 인식	야간보행 안전도							
		사회 안전 인식도 및 중요도							
		<b>[질문내용]</b> 국가안보,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식량, 질병 등의 측면에서 느끼는 안전정도와 중요도							
		범죄 피해 두려움							
		<b>[질문내용]</b> 집에 혼자 있을 때, 야간보행 시 두려움							
		본인·가족 범죄피해 두려움							
		<b>[질문내용]</b> 나 자신, 배우자, 자녀 각각의 범죄피해 두려움							
	동네 사람 및 환경에 대한 느낌								
	<b>[질문내용]</b> 방치된 차량 건물 쓰레기가 있는지, 어둡고 후미진 곳이 있는지, 지역민의 기초질서 준수정도 등								
긴급상황 대처 수준(재난 등)									
<b>[질문내용]</b> 긴급상황 신고전화번호, 재난시 행동요령,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숙지 여부									

##### 2) 안전 분야 관심영역의 적정성

##### 3) 삭제 지표에 대한 의견

(‘범죄발생 신고건수’ 삭제 예정)

##### 4) 추가 지표에 대한 의견

## **Abstract**

### **A Research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Social Indicators and the Social Survey for Jeonbuk**

**Sujin Shim, Hansoo Woo, Nari Yi**

As a comprehensive indicator that shows the quality of life of a region by measuring its past and present state, Community Indicators should be compiled to support overall monitoring of the region.

This research was designed to improve Social Indicators and the Social Survey for Jeonbuk to reflect social changes. After the statistical production in 2007, Social Indicators for Jeonbuk maintained the same survey system without any revision. This research reviewed recent revision practices and social trends, and examined the survey business processes of Social Indicators and the Social Survey for Jeonbuk, with a focus on common survey items of the Community Survey.

As a result, the entire framework was finalized into 12 domains, with some domain names changed to reflect the recent reorganization of the social indicator system. Based on the importance survey of community indicators, expert consultation, and revision cases from other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all indicators within each domain were reviewed.

In consequence, a couple of survey items such as attitude toward foreigners, loneliness, attitude toward marriage and childbirth, travel experience, digital literacy, debt burden, and climate change were newly added to the Social Survey for Jeonbuk. To reflect recent social trends, survey items that were no longer important or meaningful were removed. In addition, a new survey item operation method was suggested when changing from the current 2-year survey cycle in which only half of sectors were included in the survey to the 1-year survey cycle in which all sectors will be included in the survey.

Finally, to improve the usability of Community Indicators, this research presented methods to compose more readable reports and statistical tables, and proposed adding metadata for indicators.

*Key words:* Community Indicators, quality of life, Community Survey

## 연구진

- 심수진(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정책통계연구팀 사무관)
- 우한수(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통계방법연구실 사무관)
- 이나리(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정책통계연구팀 주무관)

\* 연구진의 소속 및 직급은 연구과제 완료 시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연구보고서 2025-03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지표 및 사회조사 항목 체계 개편 연구

---

인 쇄 2026년 1월  
발 행 2026년 1월  
발 행 인 김 진  
발 행 처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Tel.(042)366-7100 Fax.(042)366-7123  
홈페이지 <https://mods.go.kr/dsri>  
ISSN(Online) 2733-4120

---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